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4월 24일 수요일 (주간) 제 366 호



법석 조대 **송암 스님** 경주 죽림정사 조실



"마음공부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다. 먹물옷입고 머리를 깎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천당에 가서도 내 마음 편치 않으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괴롭게 살지 마세요."

☞ 자세한 내용은 12 · 13면

올 봉축행사 국민축제로

월드컵과 연계, 일반 · 외국인 동참 문화 한마당

지역별 각종행사 … 거리연등 30일까지

"세계는 하나" 평화기원 우주탑 행진

올해 254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가 온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축제로 승화된다.

봉축위원회(위원장 정대, 집행위원장 원택)는 16일 '부처님 마음으로 인류평화 성취를' 이라는 표어를 선포하고 연등축제와 문화행사, 자비실천행사 일정을 확정했다. 봉축위원회는 올해 봉축행사가 세계인이 주목하는 월드컵을 목전에 두고 열리는 축제인 만큼 국민과 함께 월드컵개최를 축하하고,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부처님오신날이 붙자를 뿐 아니라, 일반시민도 참여하고 외국인들에게 불교문화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문화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풍성한 축제가 준비되고 있다.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해 사찰에서는 월드컵 축원을 하고, 월드컵 축하분위기 조성과 홍보를 위해 축하등표와 축구공등을 20% 부착한 거리연등을 월드컵 개막시(5월 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5월 12일(일) 동대문운동장~조계사 구간에서 펼쳐지는 연등축제에도 월드컵을 맞아 외국인의 참여가 많을 것으로 보고, 2002개 축구공등과 한일 월드컵 참가 32개국의 국기를 소개한다. 선두에 서는 한마음선원은 '세계는 하나다' 라는 7m높이의 세계평화기원 우주탑 장엄물 행진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 이와 함께 탑골공원에 외국인 관람석 설치와 외국인 등 경연대회, 외국인 등 행진 등의 참여프로그램을 확대키로 했다.

또 많은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팔만사천 마라톤대회, 등 만들기대회 등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전국 62개 도시 지역봉축위는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봉축 연등밥 점등법회, 어린이 청소년 대잔치, 니왕켓츠음악회, 차량 염주 나눠주기, 월드컵 성공기원 연꽃글씨만들기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조계사, 월정사, 수덕사등 8개 교구본사도 동자승 출가식, 월드컵 등 달기, 일본과 D조 예선 경쟁팀인 미국의 어린이 초청 동자승축구대회, 어린이 글쓰기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관련기사 3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 속에 회향하는 자비의 손길 나누기 행사도 다양하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현대불교신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희망의 등 달기 행사를 전국 주요사찰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을 비롯, 지역 봉축위는 전국 곳곳에서 자비의 떡 나누기, 경로잔치, 장애인 초청잔치, 불우이웃돕기 자비의 손길, 재소자 수계 및 위문 행사를 갖는다.

봉축위원회 집행위원장 원택스님은 "올해 봉축행사는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 세계인에게 한국불교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부처님오신날이 온 국민과 함께하는 시민 참여축제가 되도록 지역별 사찰별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m@buddhapa.com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봉축열차 달리고 싶다

지난해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한 이벤트 가운데 일반 시민들의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단연 봉축테마열차였다. 4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82일간 도시철도 5호선 방화→상일 구간을 오가며 불교의 세계와 문화를 선보였던 봉축테마열차를 관람한 인원만도 46만여 명에 달했으며, 봉축열차에 관한 문의전화도 5~8호선 147개 역에서 1만2천여 건에 이를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했다.



그런 봉축열차가 올해는 달리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봉축열차 이벤트를 맡고 있는 지하철 포교단체인 풍경소리는 16일 "일부 주요종단이 불참의사를 밝힌 데다, 다른 종단들도 참여의사 표시가 없어 올해 봉축열차 운행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봉축열차가 운행되기 위해서는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주요종단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1억2천여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예산의 절반 이상을 이들 주요 종단들이 분담해 주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계종과 태고종은 예산확보 어려움을 이유로 참여하기 힘들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진각종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천태종은 봉축열차 주관처인 종단협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결의한다면 참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다른데 있는 듯 하다. 한 관계자는 "(각 종단별로) 1천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자해도 종단홍보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아니겠느냐"고 말한다.

근래 들어 지하철은 달리는 문화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데다, 테마열차 운행을 위한 단체 및 기업들의 각축으로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해 봉축열차 운행으로 가장 먼저 '지하철 문화공간 시대'를 열었던 불교계가 소위 '티도 안난다'는 종단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올해 봉축열차 운행을 무산시킨 것은 지하철에서의 포교 효과가 그 어느 장소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안타까운 일이다.

올해 봉축열차 운행시점인 5월8일까지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 지금이라도 대승적 차원에서의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한명우(취재1부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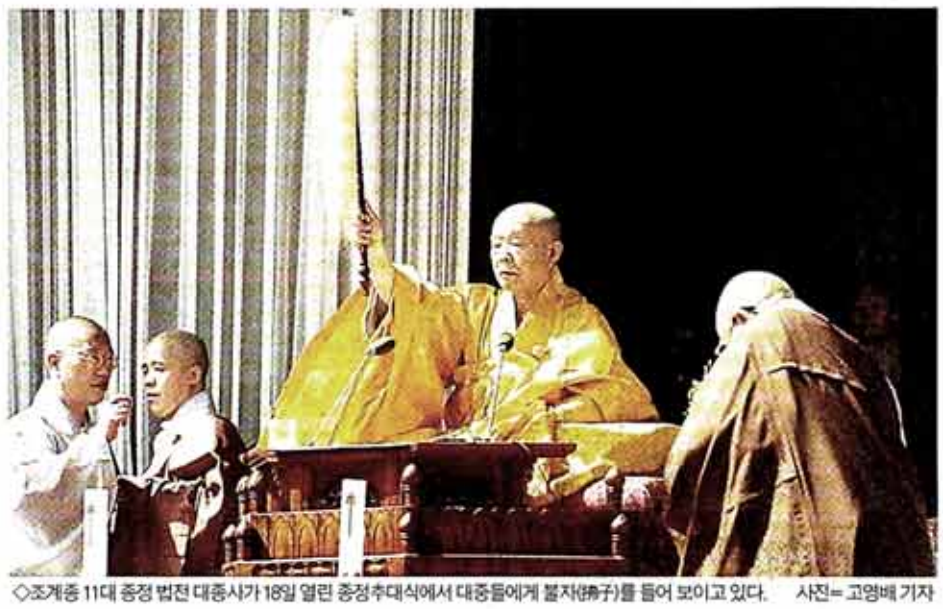
붙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석굴암 모형관

1. 석굴암 역사유물전시관 건립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어느 곳에도 건립해서는 안 된다.
   ②현재 계획대로 석굴암 경내에 건립해야 한다.
   ③건립하되 토함산 이외 지역에 해야 한다.

2. 모형관이 지어지면 방문하실 생각이십니까?
   ①한다 ②안 한다

설문 참여: 4월 25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67호 9면에 싣습니다.



◇조계종 11대 종정 법전 대종사가 18일 열린 종정추대식에서 대중들에게 불자(拂子)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 고영배 기자

법전 조계종정 추대 법요식

18일 조계사 대웅전서 사부대중 4천여명 참석

김대통령 축하메시지

조계종 제11대 종정 도림 법전(道林 法傳)대종사 추대법요식이 18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4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종정 추대식은 도량결계의식인 육법공양에 이어 오후 2시 11번의 법종이 울리는 가운데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종산스님과 총무원장 정대스님, 종회의장 지하스님의 안내로 종정 법전스님이 대웅전에 입장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총무원장 봉행사, 법전스님 행장소개, 원로회의 추대사, 대통령 메시지 낭독, 등단봉청, 불자와 법장 봉정, 청법게, 종정스님의 법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법전대종사는 이날 "봄마다 피는 꽃은 新黨成佛(신훈성불)소식이요, 가을에 부는 金風(금풍)은 實相(실상)의 본분이로다. 이 밖에 법이 따로 없으니 當機承當(당기승당)하라"는 법어를 내렸다. ☞법어전문 3면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새 종정예하를 모시고 종단 내외의 대작불사를 원만성취해 나가는데 지혜와 원력을 결집하자"고 밝혔다.

김대중대통령은 축하메시지를 보내 "법전 큰스님께서 조계종 11대 종정으로 추대되심을 축하드리며, 21세기 정신문화 선도, 남북화해 증진에 불교계가 크게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협의회 미가입 신생종단 종단협, 인정 않기로

종단협에 가입않는 신생종단의 경우 한국불교 종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 이하 종단협)는 15일 제 38차 정기총회를 갖고,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신생종단 난립에 따른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종단협은 신생종단의 정부 등록시 종단협과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문화관광부에 협조를 당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거리 탁발승등 비행승려 척결을 위한 연합감찰제도 추진한다.

한편 종단협 정기총회에서는 올해 예산 16억9천여만원과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추진,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개최, 한국문화해외소개, 대북지원, 중국불교체험 한국수련단 파견 등 11개 사업을 확정했다.

김원우 기자

이웃위해 '희망의 등' 밝힙시다



◇조계사가 19일 '희망의 등'을 밝혔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본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 을 발원하는 등(燈)공양의 의미를 살려, 어려운 이웃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이웃을 위한 희망의 등 밝히기' 행사를 조계사를 비롯 전국 주요 사찰에서 대대적으로 펼칩니다. '나누는 기쁨, 희망의 불교' 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올바른 신행문화를 조성하고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참 방법**: 신도 또는 신행단체들이 봉축 등을 달 때 법당으로 이웃을 위한 축원발원의 형태로 ○○가 ○○를 위해 단 꼬리표를 단 희망의 등을 달고 일정액의 보시금을 원하는 복지단체나 개인에게 전달하도록 기탁하면 된다

■**문의** 02)733-7277

● 주최 : 조계종 중앙신도회, 현대불교신문사
● 주관 :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생명나눔실천회, 교구신도회, 불교여성개발원

天馬行地 塵沙開

천마가 힘차게 나아가니
길이 훤히 열리도다

世界的 禪筆 天馬圖 구도적 예술세계



불기 2546년 부처님오신날

2002년 한일 월드컵 원만성취 민족평화통일 불교중흥 기원

제 7 회 불교문화대제전

玉龍子 大吉祥圖 作品展



修行과 포교에 전념하여온 玉龍子 석지행 스님이 불국정토 성취의 원력으로 20여년간 吉祥圖를 연구하고 정진하여 1996년 5월 7일 제1회 작품전을 거행한 이후 끊임없는 연마를 계속하여 제7회 대길상도 작품전을 마련합니다. 그동안 대길상도는 각급기관 美國대사관등 국내외 여러인연처와 각급단체 언론사등에 작품이 전수되어 소중하게 소장되어 있습니다. 玉龍子스님 대길상도는 세계적 특허인증기관인 미국 연방정부 특허청(UNITED STATES OF AMERICA PATENT AND TRADEMARK OFFICE)과 日本정부 특허청의 의장특허를 획득한 독창성과 예술성 높은품격 국제적보편성을 인증받은 세계적 작품입니다. 불기 2546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 나투심을 봉축하는 대길상도전을 봉행함에 있어 무려 10여m에 이르는 天馬圖대작등 정성다하여 밤새워 조성한 작품들을 모아 장엄하고 환희 충만한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기념대법회 : 2002년 5월 1일(수)오전 11시
❀ 작품전 : 2002년 5월 1일~5월 5일(5일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 기념불교문화대강좌 : 작품전 기간 중 매일 오전 11시 ~ 오후 1시까지 불교계 권위의 큰스님과 법사님의 특별대강좌 마련
❀ 불자연예인 공연 : 불자연예인단의 특별공연 ※ 동참 불자님께 호신불 목걸이 등 기념품 증정
❀ 장소 : 잠실 롯데호텔 3층 특설대법회장, 전시관
❀ 기념불교문화대제전 : 작품전 기간 중 불교전통문화행사



玉龍子대길상도의장 미국연방정부 특허청(UNITED STATES OF AMERICA PATENT AND TRADEMARK OFFICE) 日本정부 특허청 특허획득은 국제적인 인증을 받은 빛나는 일입니다
玉龍子스님 대길상도는 전세계에 널리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서울 소림정사 불교아카데미 총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2
TEL:511-6210~5, 3443-9871~7, 3446-2158,2185 FAX:511-6216

사 설

부처님을 맞이하는 마음

불교계가 봉축 준비에 분주하다. '부처님 마음으로 인류평화 성취를' 이라는 구호 아래 부처님이 오신 의미를 온 세상에 널리 펴, 모든 중생이 함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근본 의미일 것이다.

부처님이 오심으로써 새롭게 열린 진리의 세계, 참 생명의 세계에 동참하여 참다운 삶을 살게된 기쁨을 느낄 때 우리의 참된 봉축은 시작된다. 그리고 그 진리와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야말로 봉축의 시작이요, 그런 삶에서 기쁨을 느끼게 될 때에야 진정한 불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으로 부처님을 맞는 마음으로, 부처님이 가장 바라실 일을 준비하는 마음이어야 한다. 아니, 우리 모두가 부처님으로 여기 왔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마음 속에 부처님을 모시는 일이다. '부처님 마음으로 인류평화 성취를' 이라는 구호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 장사하는 부처님, 회사원 부처님, 환경미화원 부처님… 그런 여러 모습의 부처님으로 이 세상을 보다 밝고 맑게 하는 불자들이 그렇게 사는 삶의 환희를 표현하는 봉축일이 되어야 하겠다.

특히 우리 불자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기쁨의 춤사위에 어우러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올해는 월드컵이라는, 세계인이 주목하는 잔치가 한국에서 열린다. 한국으로 몰려들 세계인들에게 한국 불교 특유의 전통문화를 보여주고 부처님 자비를 느끼게 하는 일도 필요하다.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 오심을 기쁨으로 맞도록 하자.

비구니회관 원만 회향을

오는 5월4일 봉불식을 올리게 될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관, 법룡사(法龍寺)는 앞으로 7천여 한국 비구니 스님들의 결집된 힘으로 우리사회의 참다운 종교 지평을 넓히며, 한국불교를 세계로 전파해 나가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비구니 스님들만의 터가 마련되었다는 것은 여타 불교문화원이나 포교원과는 또 다른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비구니 스님들은 교육이나 복지 포교 종무행정 등 여러 면에서 승단 안에서 상대적 차별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수행과 복지사업, 생명존중이나 환경, 평화운동 등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면에서 그 성과는 높이 평가받아왔다. 비구니회관 건립은 그런 비구니 스님들의 힘을 한데 모아 보다 차원 높은 활동을 펴 나가겠다는 서원의 결실인 것이다.

서울 수서동에 현대적 건축물로 조성된 회관은 오랜 세월에 걸쳐 전국 비구니스님들이 땅 한 평 사기, 한 평 짓기 식으로 원력이 모아져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전국 비구니스님들의 모아진 원력이 새롭게 수행력으로 깊이를 더해 한국불교를 빛낼 선지식들이 많이 나오게 되길 기대한다.

이처럼 간단치 않은 원력과 행보 속에 건립된 회관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회관 내부시설 과 일주문 등 25억 여 원이 드는 마무리 불사의 자금 조달이 막연하다는 점이다. 5월4일 봉불식을 치르면서도 낙성식을 미룰 수밖에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비구니회관은 비구니 전문대학원 등 비구니 교육의 중심도량이자 포교 공간으로, 대사회적 복지 문화 공간으로 폭넓은 교화의 장이 될 곳이다. 마무리 불사에 비구니 스님은 물론 불자들이 힘을 모아 원만한 회향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주 필 : 김병규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l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전국 비구니회관 5월4일 봉불식

오는 8월 개관…2천여 비구니사찰 총본산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30여년만의 숙원사업인 전국비구니회관 건립불사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교육, 포교사업에 나선다.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우스님)는 5월 4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위치한 전국비구니회관(法龍寺) 만불전에서 봉불식을 갖는 한편, 내부시설 보완 등 오는 8월 개관 준비에 들어갔다. 조계종 원로 석주스님(칠보사 조실)의 증명 아래 전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법주로 봉행되는 이번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과 교구본사 주지스님, 비구니계 원로스님 등 사부대중 수천여명이 동참해 비구니 승단의 발전을 기원할 예정이다.

세계 비구니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작불사인 비구니회관 건립불사는 전국 7천여 비구니 스님들과 2천여 개에 이르는 비구니 사찰의 총본산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어서 비구니승단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지 1천2백40평, 건평 2천5백60평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에 대법당(만불전)과 교육관, 대강당, 강의실, 불교문화실, 도서관, 탁아실, 체력단련실, 숙소, 방송실 등을 갖춘 비구니회관은 종합불교회관으로서 비구니스님과 여성 불자들에 대한 교육, 포교, 복지사업은 물론 청소년, 장애인, 지역민 등을 위한 사회복지 및 문화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조만간 '비구니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 조계종 교육원과 협의해 비구니 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비구니 재교육 도량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우스님은 "이번 봉불식을 계기로 일주문과 내부 시설 등 마무리 불사를 완료해 8월경 낙성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인터뷰 4면>.

현재까지 103억여 원이 투입된 비구니회관 불사에는 아직 25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 사부대중의 지원이 절실하다.(02)733-5467 김재경 기자



◇7천여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 교육, 포교를 위한 근본도량으로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 비구니회관 전경.



◇16일 신촌 봉원사에서 봉행된 태고종 제22대 총무원장 운산스님 취임법회에는 각계 지도자 등 1천여명이 참석, 운산스님의 취임을 축하하고 태고종의 밝은 앞날을 기원했다.

태고종 운산 총무원장 취임법회

승풍진작 · 교육강화 · 재정자립 등 7과제 제시

한국불교 태고종은 16일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제22대 총무원장 운산 스님의 취임법회를 전통 진산의식으로 엄숙하게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운산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종단 정체성확립과 승가공동체 실현 △승단의 기강확립과 승풍 진작 △승가교육과 득도제도 개선 △종단의 재정안정과 재정자립의 확대 △조계종과의 사찰분규 종식 △포교활성화와 사회적 역할 증대 △포교와 의식개혁운동 등 7가지 종책과제를 제시했다.

운산 스님은 "앞으로는 선교육 후득도 제도를 실시해 일정기간 교육을 통해 승려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승려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와 중생에게 봉사할 수 있는 참다운 불교성직자를 배출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며 "조계종과의 사찰분규에 대해서는 두 종단이 명분과 실리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올해 안에 분규를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태고종 21대 총무원장 혜초 스님의 이임식과 원붕 자월 수종 스님의 부원장 취임식가 함께 열린 이날 법회에는 1천여명이 참석했으며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대독 사회부장 양산 스님)과 남궁진 문화관광부 장관(박문석 종무실장 대독), 이재석 한국종교협의회장이 각각 축사로써 운산스님의 태고종 총무원장 취임을 축하하고 태고종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경숙 기자

종의회의장에 진산 대정사

진각종, 사감원장엔 휴명 대정사 선출



◇진산 대정사



◇휴명 대정사

진각종 종의회는 17일 종의회 회의실에서 제330회 정기 종의회를 열고 재적인원 37명 중 35명이 출석한 가운데 종의회의장 선거를 실시, 제11대 종의회의장에 진산 대정사(전 사감원장), 부의장에는 진성 대정사(항수심인당 주교), 지명혜 대전수(밀엄심인당 주교), 사감원장에 휴명 대정사(전 종의회 의장)를 각각 선출했다.

종의회의장에 선출된 진산 대정사는 89년 심인중·고 정교, 92년부터 9~11대 종의회 의원, 98년 제30대 사감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주 홍원심인당 주교 및 경주교구청장을 맡고 있다.

한편 진각종은 종의회 의장 선출에 앞서 이날 총인원 대강당에서 2002년도 스승총회를 개최해 성초 종사 등 제11대 종의회 의원 37명을 선출했다. 한명우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금정산 통과 안돼!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승보종찰 송광사 임오년 삼월불사 및 가사불사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16국사의 도량, 승보종찰 조계산 송광사는 보조국사 이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청정승가의 수행과 화합의 정신인 목우가풍을 계승해 왔으며, 국제선원과 하계 수련회를 통하여 국내외에 한국불교의 위상을 널리 선양해 왔습니다.

금번 삼월불사에서는 보조국사 종재 및 가사불사 입재와 보살계 수계 산림을 성대히 봉행하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불사에 사부대중들의 수희 동참을 바라면서 이 인연공덕으로 다 같이 복혜가 구족하고 큰 깨달음을 이루어 모두 성불하여지이다.

1. 일 시 : 불기 2546(2002)년 5월 8일(음 3.26) ~ 9일(음 3.27) 2일간

5월 8일	5월 9일
오후 3시 : 보살계 입재식	오전 5시 : 보살계 법문
오후 4시 : 보살계 법문	오전 7시 : 보살계 수계식 및 법성도 요잡의식
오후 8시 : 보살계 법문	오전 10시 30분 : 792회 보조국사 종재 봉행
오후 9시 : 송광사 신도 총회 및 가사불사 안내	오후 1시 : 천도제 봉행
오후 10시~ : 철야정진	오후 3시 : 3월 불사 회향

2. 동참방법
송광사 종무소나 E-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송광사 종무소 061)755-0107~9 FAX : 061)755-0408 e-mail : sgs@songgwangsa.org

3. 동 참 금 : 삼월불사 보살계 수계동참 : 30,000원, 영가천도 동참금 : 10,000원
가사불사 : 한 벌 동참금 300,000원
(입재 : 불기2546(2002)년 음 3.26 ~ 회향 : 불기 2547(2003)년 음 3.27)
● 온라인 번호 / 우체국 : 501676-01-000849(예금주 송광사)

승 보 종 찰 송 광 사 주 지 현 봉 합 장

진각종 대북사업 독자노선 시사

27일 평양방문 종단협 대표단 불참키로

다른 종단들도 공감 … 향후 추이 큰 관심

진각종이 그동안의 종단협의 일원으로 참여해오던 대북사업에 대해 독자노선을 걸을 수도 있다는 방침을 시사하고 나섰다. 실질적으로 종단협을 이끌고 있는 조계종의 독주(?)에 '들러리' 설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다른 종단들도 진각종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어, 향후 종단협의 진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각종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9일 열린 2002년 월드컵 성공기원법회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진각종은 행사장 VIP석에 조계, 태고, 천태, 진각 4대 주요종단 중 진각종 통리원장의 자리가 배치되 있지 않고, 축사자 명단에서도 통리원장만 빠진데 대해 이날 행사를 주관한 조계종에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무를 맡았던 봉축위 박상희 간사는 "실무팀은 통리원장 자리를 VIP석에 배치했지만 문화부와 조정하는 과정에서 빠지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선불교도연맹 초청으로 이달 27일부터 5월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는 종단협 대표단에도 진각종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대북창구를 종단협으로 일원화한다는 약속과는 달리 조계종이 단독으로 북한에 악기를 지원하려고 한데다, 지난해 단 한 번도 대북지원에 참여하지 않는 등 편의에 따라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진각종 문사부장 무외정사는 "우리는 독자적 창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종단협에 최대한 협조해 왔다. 그러나 조계종이 종단협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행동을 계속할 경우 대북창구 (종단협으로의) 일원화를 재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종단들도 이번 사안에 대해 서운해하는 태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태고종의 한 스님은 "진각종이 불만을 가질 만 하다. 조계종이 운영의 묘를 못 살리는 것 같다"고 말했고, 총지종의 한 관계자는 "화합과 상호협의가 중요한데 이대로 가다가는 종단협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염불원 설립 총림寺格 갖출터"

동화사 새 주지로 선출된 지성스님



13일 동화사 산중총회에서 지성스님(보현사신협 이사장)이 새 주지에 선출됐다. 총유효선거권자 190명중 177명이 투표하여 개표한 이날 지성스님은 97표를 얻어, 78표를 얻은 성덕스님과 19표 차이로 동화사 주지에 당선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5월 25일부터 주지 소임을 맡게되는 지성스님은 1959년 동화사에서 사미계, 66년 범어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다. 66년 은해사 대교과를 졸업하고, 금당선원에서 5안거를 성만했다. 또 조계종 7, 8, 9, 10대 중앙종회의원, 은해사 주지, 능인학원 이사를 지냈다. 스님은 현재 대구 보현사 신협 이사장이다.

임기내 대구불교회관 꼭 완공
화합위해 주지 단임제 검토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은.

"이번 선거에 각 교구본사들의 관심과 지역의 관심이 컸던 것 같다. 그래서 소임수행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앞으로 화합에 중점을 두고 계층간 지역간 문도간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

◆동화사의 발전을 위한 구상은.

"동화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불교강원이다. 빠른 시일내 학사를 신축하여, 전통과 현대의 장점이 어우러진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동화사 통일대불 앞 통일전을 염불원으로 만들고, 동화사 금당선원, 파계사 영산율원을 묶어 총림의 사격을 갖추도록 하겠다. 또 동화사가 전국 교구본사 중에서 광역도시에 자리잡고 있는 사찰인 점을 잘 활용하여 '받는 불교에서 주는 불교'가 되도록 역할을 해 나가겠다. 복지사업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지역불교계의 현안은 무엇인지.

"대구불교계는 계층간의 갈등이 크다. 여기에다 본사와 사원주지연합회 갈등까지 상존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철골로 뼈대만 세운 채 10년간 공사가 중단돼 있는 대구불교회관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원로의장 도원스님과 부의장 원명스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 주지를 맡는 동안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구불교회관을 꼭 완공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구불교계가 합심해야 한다."

◆문중스님들과 종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문중스님들에게는 본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하나로 모아 주기를 바란다. 문도간 화합을 위해서는 재임중 주지 단임제를 제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역불교가 잘되면 종단과 한국불교가 저절로 잘 된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법전 조계증정 법어

본래부터 天眞(천진)스러워
가는 곳마다 圓通(원통)하고
소리도 형체도 없으나
거두어들이면 따라오고
놓으면 일체여 두루하니
時會大衆(시회대중)은 알겠는가?

天關(천관)을 번쩍 높이 들고
地軸(지축)을 뒤집는 자도 찾지 못하였고, 千聖(천성)도 傳(전)하지 못했으니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찾으려고 하면 虎口橫身(호구횡신)이요, 얻으려고 하면 喪身失命(상신실명)이니라

신령스런 妙用(묘용)이 그대들 면전에 출현하니, 성인 속에 있어도 다를 바 없고, 범부 속에 있어도 물들지 않는구나.

시방법계 어느 구석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고, 우주만물을 포섭치 않은 곳이 없도다. 觸目菩提(촉목보리)요, 覓則失却(멱즉실각)이니라

본래부터 圓滿(원만)이 이루어져 있으니, 一切萬類(일체만류)가 낱낱이 부처요, 滿目靑山(만목청산)이 本來面目(본래면목)이로다.

봄마다 피는 꽃은 新薰成佛(신훈성불) 소식이요, 가을에 부는 金風(금풍)은 實相(실상)의 본분이로다.

이 밖에 법이 따로 없으니 當機承當(당기승당)하라.

몸에는 趙州(조주)의 布衫(포삼)이요
발에는 達磨(달마)의 一隻履(일척리)니라.

부처님 오신날 주요 행사

불기 254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일정이 확정됐다. 봉축위원회는 16일 연등축제와 각종 문화행사, 자비실천 등 주요 행사 일정과 봉축행사의 방향을 밝혔다.

'부처님 마음으로 인류평화 성취를' 이란 표어 아래 17일 경기도 김포 애기봉 봉축탑에 불을 밝혀 북녘에도 자비의 빛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된 봉축행사는 5월 25일까지 서울 부산을 비롯한 전국 62개 지역에서 각종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현재까지 봉축위원회에 접수된 행사는 봉축위연등축제 행사 10개, 문화행사 18개, 이웃돕기 12개, 지방 봉축행사 88개 등 총 128개이다. 다음은 2546년 연등축제와 전국 62개 지역 봉축위원회, 각 교구본사, 주요사찰에서 준비 중인 봉축행사의 내용이다.

연등축제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집행처
봉축 법요식	19일 10시	조계사/전국사암	봉축위원회
조계사 연등축제	12일 12시	봉축위원회	"
불교문화마당	12일 12시	우정국로	"
어울림마당	12일 16시	동대문운동장	"
체등법회	12일 19시	종로	"
대동한마당	12일 21시	우정국로	"
연등놀이	11일 19시	우정국로	"
등전시회	13일 12시	봉은사	"
시창일 점등식	6일 19시	시청앞 광장	"
애기봉 점등식	17일 18시	김포 애기봉	"
문화행사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집행처
법우 선서화특별전	서울 4.10-16 부산 4.26-5. 2	세종문화회관신관전시실	백령도 연희도량 부산국제신문
니르바나 실내악단	4.23. 7시30분	함전 이츠플센터	니르바나실내악단 011-9876-2569
제4회 정기연주회 우리소리한마당	4.27 3시	조계사	조계사 02-732-2183
안숙선 '봄타전' 연꽃노래잔치본선	4.28. 1 시	동국대중강당	서울불교청년회회 02-730-9108
연극 '비구여'	4.29-5. 1 4시	세종문화회관소극장	불교극단 바람 016-254-9166
천장 스님 농파 이기석	5.1 -7	동덕이트갤러리	도(道)환경조형 연구소 02-961-1488
도예인생 40년 회고전 연극 '업화이소'	5.3-12. 4시, 7시	명동 창고극장	불교인권위원회 02-734-6401
전국어린이 부처님그리기대회	5. 5. 10시	봉은사	일간 불광 02-420-3300
김영덕 회심곡	5. 8-12. 3시	세종문화회관	02-6001-2947
목아 박찬수 불교예술 40년전	5.11 - 16	법련사	불일미술관 02-733-5322
청소년 백일장	5.11 10시	목동 파리공원	
사생대회	5.12	목동청소년수련관	02-2646-6815
청소년댄스	5.12. 1시	우정국앞	파라이타 02-723-6165
경연대회			
음련대회	5.12. 1시	광명시 회관	불교오병련인 02-735-1806
봉축기념사진전	5.14 - 20	조계사 경내	대한불교사진연합회 011-477-0406
등지승 축구대회	5.14 ~ 25.	조계사 앞마당	조계사
청경스님 연꽃전	5.17 ~ 19		
	5.26 - 6. 16.	조계사문화교육관	조계사연화불교위원회
청소년 사경대회	3.10. - 5. 21	파라이타	02-723-6165
청소년전통예술	5.26. 2시	동국대중강당	청소년교화연합 02-735-8165
경연대회			
자비의 손길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집행처
자비의 선물운동	3월 ~5월	군법당, 교도소, 복지시설,소외된이웃	조계중 포교사단 02-737-7588
군장병불자 위문품보내기	4.초 - 5. 19	육해공군 법당	군불교진흥회 011-315-6762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4.14. 10시	서울랜드	조계사원심회 02-720-4528
장애인 세상나들이	4.16. 11시	신록사,목아박물관	조계종복지재단 02-723-5101
자비의 새물결운동 선포식및 난치병어린이 살리기 3000배정진	4.27 오후7시	조계사대웅전	조계종복지재단 02-723-5101
자원봉사한마당 축제	4.19 - 5.19	불교계사회복지시설	연화복지원
한마음체육대회	4. 21 10시	석촌호동학교,광릉시	02-2202-5831
이웃을위한 희망의등 밝히기	5. 1 - 19	주요사찰,신행단체	중앙신도회 02-733-7277
연꽃등 선물	5. 1 - 19	16개 법원불자회	법원불교연합회
무화연등회	5.10 - 20	중앙공원	불교자원봉사센터 02-723-6258
어려운 이웃을위한 희망찾기 모금운동	5.12 - 19	중앙공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02-732-0239

교구본사 및 지정봉축위원회 행사일정			
봉축위원회	행 사 명	일시	장소
제3교구본사	춘천교도소	5. 8	신 흥 사 033-636-7044
	위문법회		
신흥사	월드컵 성공기원및 봉축점등식	5.10	춘천베어스타운대연회장
	연등축제(제등행진)	5.12	춘천(수목탑~역스포장)
	장애인과 하나로	5.16	설악산 비선대
	등반대회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19	신흥사
제4교구본사			
월정사	월정사 불우이웃돕기	5	소백세마을 033-332-6664
	자비의 손길		원주시립복지원 강릉시립복지원
	월드컵 성공기원및 봉축점등식	5.10	춘천베어스타운대연회장
	제소자위문법회	5	원주,강릉교도소
	차량연등달아주기	5.12	진부시내
	연등축제	5.12	진부포교원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19	직장전
제5교구본사			
법주사	법주사 연등축제	5.17	보청천 043-543-3615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19	법주사 대웅전
	봉축 탑돌이	5.19	법주사 팔상전
제7교구본사			
수덕사	수덕사 연등축제	5.12	예산문화원 041-337-6665
	봉축대법회	5.15	공설운동장
	재소자 수계법회	5.17	충성교도소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19	수덕사

봉축위원회	행 사 명	일시	장소
제5교구본사			
마곡사	마곡사 동자승 출가식	5. 5	마곡사 041-841-6221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19	마곡사
	어린이 글쓰기 대회	4.19	마곡사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은해사 연등축제	5.16	영천시민회관 054-335-3318
	자비의 손길	5.15.18	3사관학교 박천복지관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19	은해사 봉축위원회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선운사 봉축 연등제	5. 1	35사단 세평호
제25교구본사			
봉선사	경노잔치	5.11	광동중학교031-527-5974
	월드컵성공기원및 봉축대법회	5.12	남양주시청
	봉축점등식	5.18	봉선사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19	봉선사
경기 포천 시암연합회	연등축제	5.12	포천군민회관 031-535-2172
경기 평택 시암연합회	장애인 초청 위안잔치	4.26	명법사 031-655-3215
강원 원주 시암연합회	어린이 백일장	5. 5	구룡사033-732-4800
	봉축 합창제	5. 9	원주차악예술회관
	봉축탑 점등법회	5.10	원주역
	봉축 연등축제	5.11	원주 시내
	위문법회	5.17	원주교도소
청주불교연합회	부처님그림그리기 대회	4.27	용화사 043-294-0107
	봉축 소외등만들기 대회	5.11	성안길 입구
	봉축 연합법회및 연등축제	5.12	청주 예술의전당
충남 천안불교 시암연합회	봉축대법회및 연등축제	5.14	천안농고 운동장 043-557-3223
	자비의 맥 나누기	5.15	천안구치소
		5.19	인근 군부대
	모범학생 장학금전달식	5.14	천안농고
전북 전주 봉축위원회	봉축 합창제	5.14	전북학생회관 063-277-3497
	안전운행 염주 나눠주기	5.11	전북불교회관 앞
	연등축제	5.16	객사-경기전
	어린이 청소년 대잔치	5. 2	정혜사
전남 여수 시암연합회	진남제(봉축 수륙재)	5. 4	진남관 061-662-1607
	나윤커츠 음악회	5.10	여수문예회관
	티벳 사진전	5.11	여수문예회관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19	석천사
광주광역시 시암연합회	광주불교 봉축합창제	4.26	5.18문화센터062-376-3223
	무등 청소년백일장	4.28	증심사
	월드컵 성공기원	5. 3	전북도청앞
	봉축탑 점등식		
	연등축제	5.15	광주공원
경남 마장 불교연합회	봉축연등탑 점등법회	5. 1	마산 육호광장
	연등축제	5.12	창원시청 앞
	연등축제	5.19	마산운동장
	봉축기요제	5.10	삼풍대 공원
	봉축 청소년한마당	5.12	창원시청 앞
	봉축 어린이 백일장	5.12	창원 용지공원
	교통안전 캠페인 보시	5.17	마 창 시가지 전역
	대학동아리 연등축제	5	창원대,경남대
	봉축기간 환경정화 운동	4.13-5.30	옥포패킹지 주차장 055-688-4664
	소년 소녀 가장위안잔치	5.19	거제불교회관
	거제불교연합차육대회	4.26	국산초교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부산연등축제	5. 2	부산역 광장 051-867-0501
	장엄등 점등법회		
	부산발전기원 3천배 법회	5.11	부산역 광장
	부산불교 봉축 합창제	5.13	문화회관 중강당
	부산시민 불교문화축제	5.12	부산역 광장
	연등축제	5.12	부산역-서면시거리
	교도소 위문법회	4.24	김해교도소
	독거어르신 생일잔치	4.27	용호 복지관
	자비실천 후원행사	5.18	내원정사
	봉축 어린이를 위한 문화답사	5.12	용호복지관
	봉축 어린이 등요대회	5. 2	들운다 복지관
	어린이 독경대회	5.19	동명불원
주요사찰행사			
조계사	이웃을 위한 등달기	4.19	조계사경내 732-2183.4
	등지승 30일간의 출가	4.27	대웅전앞
	우리소리한마당 안숙선 불타전	4.27	조계사경내
	부처님오신날 맞이 '보우전'	5. 5	문화교육관
	심청정국보청정 3000배용명정진	5. 4	대웅전
봉은사	부처님오신날맞이	5.12	대웅전 511-6070
	고승초청법문		
	전통공예품전시회	5. 1	보우당
	교통안전 초신앵주달아주기	5.15	봉은네거리
	마음의 등나누어주기	5.12	선불당 앞
	전통등전시회	5.13	법왕루
	봉축음악제	5.19	주차장
	봉축기념 사진콘테스트	5.12	봉은사 경내

광륜사 개원법회 안내

귀명삼보하나이다. 화창한 봄날에 불자(佛子)님,
날로 정안(淨安)하심을 앙축하나이다.
이번에 수승(殊勝)한 불연(佛緣)이 도래하여
불자님들의 독실한 시주공덕으로 이곳 도봉산 기슭의 성역(聖域)에
광륜사(光輪寺)를 마련하고, 그 개원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부디 왕림하시어 봉축의 자리를 더욱 빛내주시기 바라나이다.

◆ 일 시 : 불기 2546(2002)년 5월 5일(일) 오후 1시
◆ 장 소 : 도봉산 광륜사
◆ 내 용 : <1부> 청화큰스님 법문 / <2부> 범패 및 불교현악 4중주 공연
◆ 문 의 : 02-956-5555(종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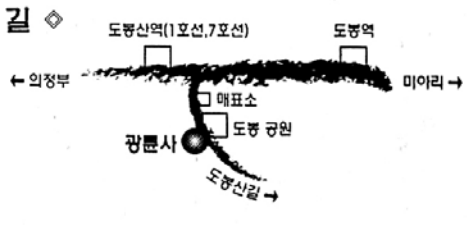
◇ 시민선원을 개원합니다 ◇

정진 시간표		
	새벽 정진	04:00~06:00
	오전 정진	08:00~10:00
	오후 정진	14:00~16:00
	저녁 정진	19:00~21:00

◇ 합동천도제 기도입제 ◇

◆입 제 : 5월 5일 일요일 오전 10시
◆해 제 : 6월 23일 일요일 오전 10시
◆가족단위 동참금 : 30만원
◆영가 1위당 : 5천원

◇ 오시는 길 ◇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도 봉 산 광 륜 사

일주문



학위수여식에 참석

녹원 동국학원 이사장은 18일 미국 LA를 방문, 동국로얄한의과대 학위수여식에 참석했다



의상대재 봉행

근일 영주 부석사 주지는 11일 300여명의 불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의상대재를 봉행했다.



월드컵 성공기원 산신재

원행 원주 구룡사 주지는 27일 오후 1시 구룡사에서 월드컵 성공기원 치악산 산신대재를 봉행한다.



관세음보살상 봉안법회

진원 부안 내소사 주지는 13일 능가산 관음봉에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상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2기 입학생과 성지순례

세등 왜관 북산불교대학장은 16일 불교대학 2기 입학생과 함께 고창 선운사 등지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한·일 불교대 심포지엄에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9일 일본 용곡대학이 주최한 '한·일 불교계대학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대학원협의회 회장에

조희영 동국대학원장은 12일 화성시 라비돌리조트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전국대학원협의회 신임회장으로 선임됐다.



의문사규명위원장 임명

한상범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는 11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신임위원장에 임명됐다.



조계종 재정국장 도성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9일 총무원 재정국장에 도성스님을 임명했다. 도성스님은 1988년 사미계를, 94년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현재 도선사 포교국장, 학교법인 승가학원 법인국장을 맡고 있다.

"비구니 대학원 세워 교육 전념"

전국 비구니회관 봉불식 앞둔 광우 스님

"비구니회관은 7천여 비구니 스님들의 염원을 실현하는 근본도량이자,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력을 더욱 높여 전법도생하는 포교의 장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오는 5월 4일 서울 수서 전국비구니회관 봉불식을 앞두고 본격적인 개관준비에 여념이 없는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우스님(정각사 주지·사진)은 비구니 전문대학원을 세워 수행, 교육, 포교사업을 펼치는 동시에 사회복지사업을 내실있게 펼치겠다고 말했다.

"유아, 장애인, 청소년, 지역민 등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역사회교육을 위해 회관을 개방하고 프로그램에도 동참을 유도해 포교의 기능을 함께 펼 계획입니다. 전문교육을 받은 비구니 스님들을 적극 활용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95년 7월 회장에 취임한 이래 줄곧 회관건립에 온 정성을 쏟아온 광우스님은 비구니스님들의 포교, 교육, 수행, 복지활동 등의 중심도량이 생김으로써, 그동안 공동체적 결집력이 다소 약했다는 평을 듣는 전국비구니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비구니 교육 및 전법도량이자 사회복지센터로서 행정기능, 인적자원관리기능, 시민문화공간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광우스님은 조만간 '비구니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출·재가자 교육, 복지사업, 문서포교사업, 비구니 조직강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91년 부지 매입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완공된 비구니회관은 세계 비구니사의 한 획을 긋는 동시에 불교운동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전망"이라는 광우스님은 마지막 남은 일주문 건립과 내장공사에 사부대중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02)733-5467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유아·청소년 등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

지역사회 위해 회관 개방 동참 유도

"도심·산사 잇는 포교공간으로"

9일 개원 서울 법종사 주지 무주 스님



위한 월정사의 서울포교당 개원은, 오래전 조계종 초대종정 방한암 대종사의 도심포교 발원과 탄허 큰스님의 유지였다"고 밝혔다. 법종사는 지상 5층 건평 400평 규모.

"불교대학을 비롯 유치원을 개원해 불자들의 신행 수행 교육 공간으로 개방하고 도심과 산사를 잇는 신행 포교공간으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스님은 "스님과 신도가 함께 수행하는 사찰, 신도들이 마음놓고 수행하고 공부하는 사찰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어린이, 청소년, 청년, 거사회 등 신행단체를 창립해 운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02) 905-6666.

김원우 기자 wwkim@bucdhapia.com

보시금 전액 학술·장학사업에

"법종사의 보시금 전액을 불교학 학술지원, 장학사업으로 사용하여 선사스님들의 가르침을 널리 홍포하겠습니다."

9일 서울 쌍문동에서 개원식을 가진 월정사 서울포교당 법종사 주지 무주스님(사진)은 "불교포교를

"환경보존 필요성 고취됐으면"

유화 개인전 연 황진호 변호사

현직 변호사가 19~25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 화랑에서 유화 개인전을 열어 관심을 모았다. 주인공은 독실한 불자로 불교법조인회 활동을 하고 있는 황진호(58·사진) 변호사.



"요즘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자연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파괴와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는 이로 하여금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황진호 변호사는 20여년간 그려온 그림 40여점을 한 데 모아 전시하게 된 취지를 이렇게 전했다. 한번 파괴된 자연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두번 다시 보여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는 것.

황 변호사는 현재 다니고 있는 서울 능인선원에서도 무료상담, 변론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성동구치소 교화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무료 변론·구치소 교화위원 활약



대구봉축위원회 결성법회

대구봉축위원회(위원장 성덕)는 17일 대구 금호호텔에서 불기254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결성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풍화사 주지 성덕 스님 등 대구 불교계 지도자 80여 명이 참가해 봉축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청앞 점등식 등 봉축행사 일정을 확정했다.

손법천 다구지사장



구미복지관 장애발생예방 홍보운동

구미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지도)은 13일 구미역 광장에서 장애발생예방 홍보캠페인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도스님을 비롯해 구미장애인협합회 이영모 회장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지도스님은 "우리 모두는 예비 장애인일 수 있다"며 "장애발생을 예방하는데 다함께 동참하자"고 말했다.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지도스님.



중신회소속 단체장 법전 종정 친견

백창기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김진관 서울광역신도회장, 오희창 교정인불자회장, 연기영 교수불자회장, 임완숙 교사불자회장 등 조계종 중앙신도회 소속단체장 12명은 15일 해인사 퇴설당에서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을 친견했다. 단체장들은 종정스님을 친견한 후 기념촬영했다.



진각복지재단 북한미술특별전

종단협의회와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진각복지재단이 주관하는 북한미술 특별전이 17~23일 서울 인사동 공평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열렸다. 18일 열린 개막식에는 효암 진각종 통리원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 운산 태고종 총무원장(왼쪽 네번째), 홍파 관음종 총무원장(왼쪽 여섯번째), 진산 진각종 종의회 의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만봉스님 불화전 개막 … 3백여명 참석

단청장 만봉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의 불화전시회 개막식이 18일 종로구 관훈동 백악예원에서 열렸다. 24일까지 계속되는 이 행사에는 前 조계종 포교원장 무진장 스님, 태고종 운산 총무원장, 관음종 홍파 총무원장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오른쪽부터 봉원사 혜경, 혜륜, 만봉 스님.



광주생명나눔회 화장유언 캠페인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일철)는 11일 전남대 교정에서 화장유언 남기기운동 선포식을 갖고 첫 홍보활동을 펼쳤다. 생명나눔회 광주지역본부는 화장문화 정착을 위해 매월 2차례씩 화장유언 남기기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일철 스님과 회원들이 화장유언 서약을 받고 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2002년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서 진행중인 동학사 주지선임에 관한 동학사 전통강원 학인들의 입장

200여년의 전통강원의 역사가 살아있는 동학사는 지금 현재 150여명의 학인들이 불퇴전의 신심으로 종정예하의 "持戒淸淨 見性成佛 衆生敎化" 의 敎示를 받들어 看經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看經에만 매진해야 할 우리는 잠시 본분을 뒤로 한 채 "2002년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서 진행중인 동학사 주지 선임에 관한 학인들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학사는 교구본사의 말사이기에 앞서 교육도량이므로 주지(강주겸임)의 선임에 있어 동학사 총동문회, 동학사 운영위원회 및 강원 학인들에 의해 추대된 스님이 종단차원의 교육적 안목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선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94년 개혁종단의 선배스님들의 의지로 불미스럽게 강단을 떠난 당사자를 비구니 강원의 정서와 학인들의 원력을 무시한 채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서 주지로 선임하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셋째, 앞으로도 저희들은 청정한 도량에서 持戒淸淨한 올바른 스승을 모시고 정법을 수호하며 간경에 몰두하여 전통강원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어른스님들의 개혁에 대한 원력으로 종단이 청정해지고 수행가풍은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힘입어 저희 후학들도 어른스님들의 이와 같은 수행정진을 계승하리라 서원해 봅니다.

동학사 전통강원 학인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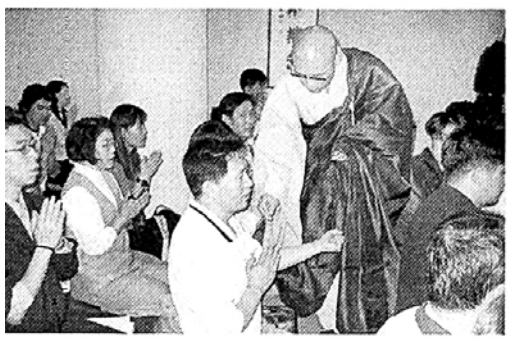
경남공불련 연합법회 성료

경남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공창석)는 12~13일 합천 해인사에서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열린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 김혁구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경남도청과 20개 시, 군 5백여불자가 동참했다. 법회에 초빙된 한국화가 이창호 화백(왼쪽)이 공창석 회장(오른쪽)에게 달마도를 전달하고 있다.



서울지하철법우회 수계법회 봉행

서울지하철공사 법우회(회장 민병훈)는 13일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내 법당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봉선사 회주 밀운스님이 계사로 나선 이날 법회에서 150여 회원들은 "참불자로 살아갈 것"을 발원했다. 밀운스님이 동참자들에게 연비하고 있다.



가정마다 '축제의 등' 답시다

성북승무소 법우회·승만부인회 캠페인 전개

인테리어 소품 활용 가능 전통등 제작

성북역사등 장식·이웃에 무료 보시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와 승만부인회는 '가정마다 축제의 등 달기' 캠페인을 전개하기위한 전통등 강좌를 18일 기원사에서 개최했다. 사진은 회원들이 연꽃등을 만드는 모습.

철도청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회장 박운학)와 승만부인회(회장 김재남)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가정마다 축제의 등 달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부처님오신날을 불자들의 축제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나아가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겠다는 것.

법우회와 승만부인회는 불자가 아니더라도 거부감이 없고 흥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전통등을 제작해 성북역사 등 거리를 장식하는 것은 물론 이웃 및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 줄 계획이다. 등 제작은 각 회원 가정에서 제작하며 승만부인회가 주관을 맡아 이달 말부터 부처님오신날 이전까지 이웃을 중심으로 무료 보시에 나선다. 성북역사와 주변 거리의 연등 부착 및 점등은 법우회 주관으로 부처님 오신날을 전후해 10여일간 불을 밝혀 봉축 분위기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18일 서울 월계동 기원사에서 전통등을 연구하는 김영만 포교사를 초빙, 등 제작방법을 배우는 한편 아이디어 모으기에 나섰다. 이날 강좌에는 법우회와 승만부인회 회원 60여명이 동참해 전통등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법우회 박운학 회장은 "온 세상에 큰 빛으로 화현하신 부처님께서 오신 날의 의미가 불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축제로 느껴지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하다"며 "'가정마다 축제의 등 달기' 캠페인의 취지를 공감하고 모든 불자들이 동참해 이웃과 함께하는 부처님 오신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우회와 승만부인회는 18일 성북역 승강장에서 인천-의정부행 열차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안전운행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열차 앞에 부착할 수 있는 연등을 보시하고 간단한 다과도 제공, 열차 안전운행을 발원하는 마음을 전달했다.

신행단체 담당=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단위 산악회 연결 조직 결집"

대한불교전국산악인련 정인악 총재



"불교계에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개개 회원들의 역량을 하나로 응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방만한 조직을 하나로 결집하는 일이야말로 시급한 과제입니다."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 정인악(68 · 사진) 총재는 불교계 단체들의 비능률적인 체계를 지적하며 "이름만 있을 뿐 실체가 없는 단체들이 많은 게 불교계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15개 지회, 40여 단위 산악회의 연합체인 불교산악인연합회도 이와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튼튼한 조직구조, 깊은 신심을 바탕으로 한 회원 구성 등 활성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정 총재는 "단위 산악회는 튼튼한 하부조직 구조를 갖고 있어 중앙에서 응집할 수 있는 동력만 갖춘다면 모범적인 신행단체로 거듭날 수 있다"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단위 산악회를 연결하고 결속시켜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교회관 하나 갖고 있지 못한 불교계의 현실을 보면서 불교지도자를 비롯한 불자들의 의식 전환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불교산악인연합회부터 중앙 임원과 단위 산악회 임원을 시작으로 현대사회에 맞는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탄탄한 불교장학회 서원

이를 위해 27~28일 공주 갑사에서 열리는 임원연수와 6월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창립 5주년 기념행사를 활용하는 한편 개개 회원들의 '현대불교' 구독을 장려, 불교소양교육을 대체할 계획이다. '현대불교'가 불교적 이슈는 물론 교리, 신행담, 큰스님 법문 등 다양한 내용을 갖춰 회원들의 신행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문회장 등 불교계 활동에 열심인 정 총재는 탄탄한 재정구조를 갖춘 불교장학회를 설립하고 싶어한다. 취약한 어린이 · 청소년불교와 불교적 신앙관이 미흡한 청년불교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청불회장에 김상남 복지노동수석



제7대 청와대불자회 회장에 김상남(56 · 사진) 복지노동수석이 추대됐다.

김상남 신임 회장은 16일 상견례를 겸한 첫 임원회의를 열고 취임법회와 종단 대표자 면담 등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취임법회는 부처님오신날 이전 봉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5월 10일경 개최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에 앞서 4월23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면담을 시작으로 주요 종단 대표자 면담을 통해 청와대불자회 활동의 폭을 넓혀 가기로 했다.

이번 청와대불자회의 김상남 회장 선임으로 박준영 회장 사퇴 이후 회장직 공석에 따른 정부부처 공무원 불자회의 위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대전 서구청·소보원 불자회 창립





대전 서구청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불자회가 창립됐다.

대전 서구청 불자회(회장 강선규 · 사진 왼쪽)는 18일 백제불교회관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또 부처님오신날 이전 창립을 목표로 대전광역시청과 유성구청, 동구청에도 불자회 창립이 준비되고 있어 대전광역시청을 비롯한 모든 구청에 불자회가 창립될 전망이다.

서구청 불자회는 창립에 앞서 지난 3일 창립 준비모임을 갖고 초대회장에 강선규 위생과장을 선출했다.

4일 소비자보호원 분임토의실에서는 소비자보호원 불자회(회장 신동구 · 사진 오른쪽)의 창립법회가 봉행됐다. 20여명의 회원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는 신동구 소비자안전국장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구성했다.

불자 방송·언론인 연수

불교협의체 구성 기대

불자 방송 · 언론인 연수가 27~28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열린다. 이번 연수는 수행과 신행생활에 대한 강의, 선 실수, 108배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28일에는 상원사 순례도 있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등 불자회 미창립 신문사의 불자들이 동참할 예정이어서 각 언론사 불자회 구성 및 방송 · 언론사 불교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모임에선

금융단불교聯 27일 연합법회 봉행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운영위원장 이탁수)는 27일 오후 4시 서울은행 본점 4층 강당에서 연합법회를 봉행한다. 12개 소속 150여 회원 및 가족이 참여하는 이날 법회는 금융인 불자들의 교류와 화합도모를 위해 마련된다. 소쩍새마을 원각스님의 법문이 있을 예정이며, 불전함 보시금과 특별성금을 모아 소쩍새마을에 전달한다.

전국경찰불교회 수덕사서 창립1돌 법회

전국경찰불교회(회장 김중겸)는 28일 오전 11시 예산 수덕사에서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경찰청을 비롯해 서울, 부산 등 전국 경찰서 불자회 회원 1천여명이 동참하는 이날 법회에서는 경찰불교회간 교류 활성화와 미창립 경찰서 지원대책 마련등을 모색하고 경찰불자간 도반애를 나눌 예정.

국회 정각선원 개원 7돌 기념법회

국회정각회 직원불교신도회(회장 김종환)는 30일 오후 6시20분 국회내 정각선원에서 선원 개원 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금강선원 주지 혜거스님(한국전통불교연구원장)을 초빙해 법문을 듣는다. 특히 이날 법회를 계기로 국회직원불교회 활성화 방안 모색에 나설 예정이다.

금주의 법회

■ 24일
△현대석유화학 현불회 정기법회=오후 6시30분 서산 망일사 △국립춘천정신병원 참나불자회 정기법회=오후 6시30분 춘천 대원사 △대우종합기계 · KAI 불자회 정기법회=오후 5시30분 창원 성주사 △춘천시청 도반회 정기법회=오후 7시 춘천 정토사

■ 25일
△보훈병원 불자회 정기법회=낮 12시 병원법당

■ 26일
△국립경찰병원 불교회 환자법회=오후 4시 병원법당

■ 28일
△전력인불자연합회 연합법회=오전 11시 공주 동학사

■ 29일
△국립서울정신병원 불자회 정기법회=낮 12시 병원법당

■ 30일
△국회 직원불교회 정각선원 개원7주년 기념법회=오후 6시20분 △삼천포화력 반야회 정기법회=오후 6시30분 고성 운흥사 △환경부 불자회 창립법회=오후 7시 서울 구룡사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한민족시조비님 제향일에 즈음하여

天地萬物이 씨앗의 성분대로 유전이 되어 종자를 이어 가듯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신령한 정신의 사상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니 가정에는 가훈(家訓)으로, 나라에는 민족정신의 사상(思想)으로 민족이 살아가고 나라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한민족시조님께서는 지구촌의 중앙인 이 땅에 하강하시어 천지인의 현묘지도(玄妙之道)를 바탕으로 성명정(性命精) 삼진귀일(三眞歸一)에 순응하여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대리를 민족의 가훈으로 정립하시고, 사람의 도리인 충효성경(忠孝誠敬)의 인지본(人之本)을 단군자손의 성심신(性心身)에 초목을 심듯이 심어 놓으셨으니 첫째, 나라가 있어야 하는 이치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충성을 가르쳐 주셨고 둘째, 나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부모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하여 효도를 가르쳐 주셨으며 셋째, 천지이치를 모르면 악에 빠져 영혼을 구할 수가 없으니 진리의 성현께 성경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단군자손들은 자연법리에 순응하는 인지본을 지키고 행하여 인과 없는 천손으로 태어나서 천운과 천복을 받아 수많은 외침과 시련 속에서도 오천 년 동안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51세기의 과학문명이 발전되는 세상에 도덕이 없으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고 문화문명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민족뿌리의 사상이 없으면 사람이라 할 수 없으니, 사람의 도리인 충효성경으로 민족뿌리와 도덕을 찾아 지키며 살아갈 때 비로소 자연을 거스르지 않아 어지러운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늘뿌리 종교, 태극민족 종교, 인류도덕 종교인 미륵대도에서는 태극백종(太極白鐘)을 울리어 겨레혼을 되살리고 민족정신으로 의식개화하여 주체성 확립의 이정표가 되는 한민족시조비님 제향일을 음력 3월 15일로 정립하여 대효(大孝)를 실천하고자 하오니, 이 땅에 살고 있는 한민족이라면 종교를 초월하여 지성동참하시어 민족의 윤상(倫常)을 바르게 세우고 민족의 뿌리로 대화합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 내 -

● 일 시 : 임오년 음력 3월 15일 오전 6시
(양력 2002년 4월 27일)
● 장 소 : 미륵대도 총무원 한민족시조전
● 연락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 84-3
● 전 화 : 032-832-0626 / 팩 스 : 032-831-8967

하늘뿌리종교 태극민족종교 인류도덕종교

彌勒大道 金剛蓮華宗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곱추 노인' 임악덕 할머니. 최근 앓고 있는 피부병 증세를 성북노인복지관 황은미 후원팀장이 들여다보고 있다.

지하방 독거 곱추노인 임악덕 할머니

햇빛보며 살아봤으면…

국민기초수급자로 한달 정부 지원금 25만 2천원. 월세비 15만원과 공과금 4만원을 치르고 나면 남는 생활비는 고작 6만원뿐. 병명은 '곱추', 전문의학용어로 말하면 '야곱병'. 지하방에 10년 넘게 살다보니 여기에 보태진 병은 심한 천식과 피부병, 게다가 관절염에 좌안 녹내장, 굽은 허리로 만성 소화불량에 복부팽만증. 독거노인으로 나이는 68세… '곱추 노인' 임악덕 할머니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다.

천식 겹쳐 호흡도 곤란

따스함 따위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있는 어두운 방안. 기웃거리는 이웃조차 없다. 자식이 없는 임 할머니, 어려서부터 곱추병을 앓아 아예 결혼도 안했다.

"가물가물해. 기억조차 나질 않아. 어렸을 때, 동네에서 놀다 허리를 크게 다친 뒤로 지금 같이 됐지. 가난한 집에서 약이나 사먹을 돈이 있었겠어. 그냥 죽지 못해 고향 전남 진도 집에서 밭일과 갯벌 일을 하면서 밥만 축내고 살아왔지…"

49년 전, 임 할머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의고, 어렵게 사는 동생 집에서 30년 넘게 얹혀 살았다. 1984년 더 이상 동생에게 '짐'이 되기 싫어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다. 젓갈행상을 해가며 근근이 연명만 하고 살았다는 임 할머니. 요즘은 지병인 천식으로 호흡이 짧아져 말을 길게 하지 못한다.

겨울이 시작할 무렵 임 할머니는 죽다 살아났다. 볕조차 잘 들지 않는 지하 단칸방. 문 앞을 떡하니 지키고 서 있는 연탄보일러. 연탄가스가 고스란히 방안으로 흘러들어오기에 충분했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혼수상태에 있었던 임 할머니는 방문 급식하던 봉사자에 의해 발견돼 병원에서 인공호흡 끝에 가까스로 살아났다. 또 연탄가스가 들어올까봐 임 할머니는 지난해 겨울 내내 창문을 반쯤 열고 살다보니 감기와 천식을 몸에 달고 지냈다.

이뿐만 아니다. 1층 화장실을 다녀오다 발을 헛디뎌 다리도 삐었다. 턱이 높은 계단을 오르내리다 결국은 계단에서 떨어져 지금은 바깥 출입조차 쉽지 않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계단 굴러 운신 불편

연신 다리를 매만지는 임 할머니는 제기동 뚝방 집에서 살던 때가 그립다고 한다. 그나마 지팡이라고 짚고 거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란다.

임 할머니에게는 아주 큰(?) 욕심이 하나 있다. 지하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남은 여생동안 햇빛이라도 제대로 보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임 할머니는 아주 간절하게 말했다.

주소:서울 성북구 종암2동 1-41번지 전화:(02)941-8574

계좌번호:중소기업은행 011-002295-02-011(예금주 임악덕)

김철우 기자

신행 캘린더

4월 27일 (토)

■인환 스님 '초청법회'=경기불교대학은 동국대 명예교수 인환 스님 초청 법회를 오전 10시 수원 포교당 3층 만불보전에서 봉행한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중심을 잃지 않고 자유자재 하는 마음으로 대응하면 어려울 일이 없다"는 스님의 법문을 통해 인생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031)255-2692

■혜명보육원 '바자회'=장애어린이 등 불우 청소년들이 모여 사는 혜명보육원이 오전 9시 보육원에서 알뜰 바자회를 개최한다. 집안에 쓸모없는 물건을 내다 팔며 불우이웃을 함께 도울 수 있는 기회.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소속 회원들이 진행하는 작은 음악회도 함께 열린다. (02)802-0358

■맑고향기롭게 '선수련회'=맑고향기롭게는 주말 시간을 이용, 일반 불자들이 참선정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서울 길상사 스님들이 불교상식, 예불, 참선 등의 기초를 친절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듯. 토요일 오후 3시에서 일요일 오후 3시까지 길상사 설법전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3만원. (02)741-4696

■정토회 '특강 수련회'=일과 수행의 공동체 정토회가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후 4시까지 서울 서초동 정토회관에서 특강 수련회를 마련한다. 무변심 법사의 '새로운 나를 찾아서', 유수 스님의 '정토를 일구는 사람들', 법륜 스님의 '즉문즉답', 분수 법사의 '자유로운 삶을 찾아서' 등 강의가 1박 2일 동안 펼쳐진다. 세면도구와 개인 컵은 각자 준비. 복창은 편하게. 참가비는 1만원. (02)587-8994

■나가자불자회 '사찰순례'=신행단체인 나가자불자회가 마련한 불자들과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신심도 다지고, 불자들끼리 친목도 다질 수 있어 일석이조.

첫날에는 영월 사자산 법흥사를 둘러보고 둘째날에는 흥천 연화사 사시예불에 참석할 예정. 출발은 오후 1시 서초구민회관 앞. 참가비는 2만원. (011)712-6674

4월 28일 (일)

■'어린이 연꽃노래잔치'=서울불교청년회가 마련한 제14회 전국어린이 연꽃노래잔치 본선대회가 오후 1시 동국대 증강당에서 열린다.



◇14일 열렸던 연꽃노래잔치 예심장면.

세련된 것과 순진무구한 것,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울까. 어리석은 질문. 정답은 각자의 마음 가는 곳. 하지만 아이들의 파란 하늘같은 맑은 목소리를 듣는다면 부처님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느낄 수 있으리라. (02)730-9108

■경남문화연구원 '역사문화기행'=근세 큰스님들이 참선 정진을 했던 벽송사와 화려한 불교문화를 꽃피웠던 가락국 10대왕 구형왕의 돌무덤을 찾아서….

경남문화연구원과 함께 떠나는 이번 여행의 출발은 오전 7시 30분 창원시청 앞. 참가비는 2만원. (055)267-6700

4월 30일 (화)

■우룡스님 '초청법회'=대전 보현불교대학은 울산 학성선원 조실인 우룡스님을 초청, '행복에 이르는 길' 주제로 법회를 오후 7시 불교대학 대법당에서 봉행한다.

'원인을 살펴 내가 한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세에 최선을 다하라'는 우룡 스님의 법문을 통해 일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들어보자. (042)624-6555

선원 대소사 도맡아 1인10역

우리 절 우리 신도

서울 칠보선원 김진주 총무



◇불교대학 강의가 끝난후 김진주보살(오른쪽에서 두번째)이 효정스님 및 도반들과 함께 부처님 오신날 행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칠보회·합창단 조직위해 동분서주
선원 일 매듭되면 본격 수행할 생각

도반들은 김진주 보살(52)을 '칠보선원의 꽃'이라 부른다. 법명이 칠보화(七寶花)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칠보선원의 모든 것은 김 보살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방일 등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불교대학 운영 및 재정관리 등 어느 것 하나 김 보살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다. 주지 효정스님은 그런 김 보살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어떤 일이든 상의한다. '칠보화'라는 법명은 효정스님이 김 보살의 그런 막중한 역할을 인정해 지어준 것이다.

9일 서울 강남 삼화불교대학 4층 칠보선원. 10여명의 신도들이 기초교리 강의를 듣고 있다. 불교대학쯤 되면 적어도 수강생이 50~60명은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인원이 적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칠보선원이 이곳에 문을 연 것은 지난해 9월. 개원한 지 불과 9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니, 여느 절과 신도수를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사찰 운영은 여느 절 못지않게 알차다. 그리고 바로 그 중심에 김 보살이 있다.

김 보살은 일주일에 평균 서너 차례는 칠보선원에 나온다. 매주 수, 금요일 오전과 저녁에 열리는 불교대학과 목요일에 열리는 시민선방에서 경전공부와 참선공부를 하기 위해서다. 물론 이 때는 공부하는 신도 중의 한 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공부가 끝나면 상황은 달라진다. 선원의 총무로서의 소임은 물론 주방일, 법당청소, 신도들과 상담 등 1인10역의 선원 '관리자'로 변신한다.

김 보살이 칠보선원의 신도가 된 데에는 사연이 있다. 김 보살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가톨릭 신자였다. 불교집안인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도 줄곧 성당에 다니며 활발한 활동을 했던 '인정받는' 신자였다. 그런 김 보살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은 스님이 되고 싶어했던 친구의 손에 이끌려 갔던 서울 세검정 현통사였다. 친정에 온 듯한 편안하고 포근한 느낌. 김 보살은 그 뒤로 몇 개월을 현통사에 다니다가 우연히 알게 된 의정부 호암사에서 본격적인 신행생활을 시작했다. 잡에서 가까운 능인선원 불교대학에도 다니며 불교공부에 매달렸고, 해인사 등 전국의 큰 절들을 찾아다니며 철야정진도 했다. 그러던 차에, 평소 김 보살을 아끼던 호암사 주지 해우스님으로부터 특명(?)을 받았다. 도반스님인 효정스님이 강남에 포교당을 개원하니, 그곳에서 공부하며 효정스님을 도우라는 것이었다.

"처음에 와 보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문을 연지 9개월밖에 안됐지만 칠보선원은 이제 어엿한 도심포교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선원 신도인 미래심 보살(44)은 "우리 선원이 이만큼 자리잡은 것은 김 보살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 보살은 한 달여 전부터 자원봉사회인 '칠보회'와 합창단을 조직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자비없는 신행생활은 그 의미가 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평소 소신에 따른 것이다. 합창단도 그늘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음성공양을 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 보살은 늘 아침, 저녁으로 경전을 염송하고 관음정근을 한다. 10년째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신행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수행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머리 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선원 일들을 모두 이루고 나서 본격적으로 수행에 나서볼 생각입니다. 자기 마음을 닦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명우 기자

추천의 말

효정스님 칠보선원 주지



우리 포교당은 개원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불교대학과 시민선방을 운영할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문화강좌를 계획하고 있고, 신도들 스스로 자원봉사회와 합창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얼마 후면 명실상부한 도심포교당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일궈낸 성과와 앞으로 진행될 일들은 사실 신도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김진주 보살이 아니었다면 이 많은 일들을 누가 해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신도들을 위한 갖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내놓아 '아이디어 뱅크'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김 보살은 우리 포교당의 '꽃'입니다.

상주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

신심있는 불자님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상주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 모연문

천주산 북장사는 신라 흥덕왕 3년인 833년에 진감국사 혜소스님께서 창건하신 1200여년 고찰입니다.

본래의 법당건물이 오랜세월 비바람에 썩고 기둥이 기울어 현재의 건물로 중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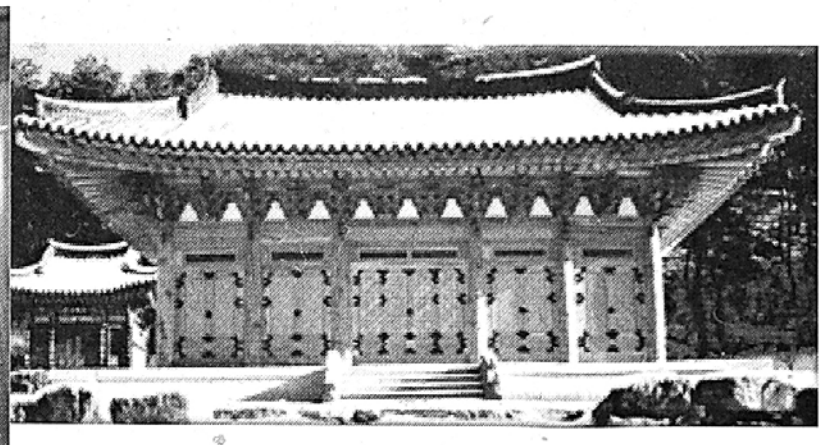
법당에는 목조 아미타여래좌상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이 좌우보처로 봉안되어 있읍니다.

숙종 2년에 모신 북장사 부처님은 경남·북 일원에서 제일크고 거룩한 부처님으로 부처님 생존시에 인도 교상미국의 우진왕(優塡王)이 부처님 형상과 똑같이 조성해 모셨다는 전단향나무로 조성한 높이 2m, 10cm의 영험하신 부처님 입니다.

저희 북장사에서는 아미타 삼존불의 개금불사를 발원하였습니다.

저희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에 전국의 신심있는 불자님의 정성스런 동참으로 복덕구족하신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소원성취 하시고 행복한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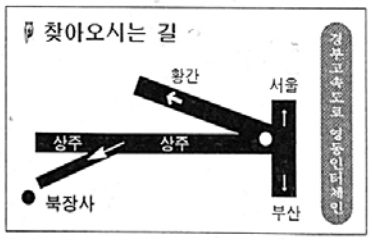
경북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대한불교 조계종 천주산 북장사

주지 효담 합장

■문의 : ☎(054)533-5103 ■농협온라인계좌 743058-51-005335 북장사

찾아오시는 길



교 통 편

◇고속버스 : 서울→상주 ※택시이용

◇기차편 : 김천→상주 ※택시이용

◇자가용 경부고속도로 영동 인터체인지에서 상주쪽으로 오시다 북장사 표시판을 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세파에 쫓기는 삶… '자신을 되돌아 본다'

수행프로그램 엿보기

재가불자의 참선수행

1. 한국의 재가선풍
2.간화선 수행의 실제

제행무상(諸行無常)을 증명이라도 하듯,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간다. 잠자는 시간을 뺀 하루 종일 숨가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세상일 수록 잠시나마 자신을 되돌아보는 안식처가 필요하다. 몇 년전부터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는 도심의 선방(禪房)들이 그런 곳이다.

보리 달마로부터 비롯된 선종의 성립이래로 최상승의 수행방편으로 오랫동안 각광을 받아온 간화선(看話禪). 화두를 통해 수행자가 큰 의심을 일으켜 찰나에 화두를 타파(打破), 깨달음을 증득(證得)하게 하는 '심인법(心印法)'이다. 간화선은 달마대사를 초조로 육조 혜능스님에 이르러 꽃을 피우고 마조, 임제, 덕산스님 당시에 중국에서 크게 종풍을 떨쳤다. 이때 정리된 1700여개의 화두가 한국에 도입되면서 한국 선불교 수행의 중심을 이룬다.

현재 도심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선방을 운영하는 곳은 서울 길상사와 조계사, 봉은사, 금강선원을 비롯해 인천 용화사, 부산 해운정사, 통도사 부산포교당 등 사찰들과 수선회, 보림회, 선도회, 한국불교연구원 구도회 등 수행모임들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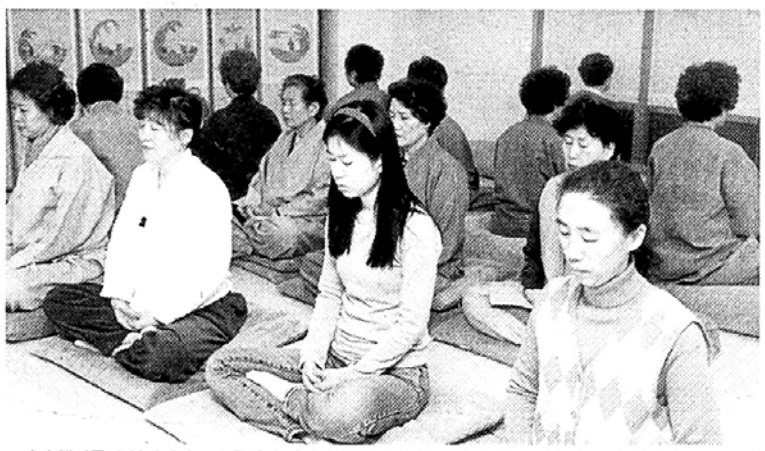
한국에서 본격적인 재가 선풍이 확립된 것은 1965년에 백봉 김기추 거사가 보림회를, 종달 이희익 거사가 선도회를 창립하면서부터다. 이어 75년 수선회가 창립, 87년을 정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 당시 조계사 법당을 가득 메울 정도로 선승 초청 선법회를 열어 다시 한번 도심 속에 선풍을 진작시켰다.

이같은 한국 재가선풍의 특징은 재가자들이 직장과 가사의 업무에서 짬을 내어 참선에 몰두하는 동시에, 행주좌와 어묵동정의 일상 생활 속에서 화두를 놓치지 않고 정진하는 생활선(生活禪)을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계종 포교원에서 발간한 〈재가자를 위한 수선(修禪) 교본〉은 이런 한국 재가선풍의 특징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행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지향하고, 참선은 바로 지금(當下) 여기에서 하되, 자성은 본래 완전하니 참선은 닦는데 속하지 않는 것(禪不屬修)으로 보고 있다. '좌선(坐禪)은 연습이요, 생활이 실수(實修)'라고 하는 이런 생활선은 〈재가자를 위한 수선고본〉에서 '무심형 간화(無心形 看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집약된다.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화두에 몰두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삼매에 이르도록 하는 집중형 간화(集中形 看話)와는 달리 무심형 간화는 애당초 무심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즉 처음부터 화두를 챙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할 뿐이다. 그러다가 문득 역순경계(逆順境界)가 나타나 한 생각 망념이 일어나는 순간 무분별심으로서의 화두를 챙김으로써 본 마음, 참 나 즉 평상심(자성청정심)으로 돌이킬 따름인 것이다."

대표적인 수선단체인 보림회, 선도회, 수선회의 가풍을 통해 재가 참선수행의 요체를 알아본다.



◇수행가풍이 엄격하기로 소문난 수선회의 정진 장면. 참선의 자세 등 5회이상의 참선교육을 받고 3안거를 성만한 불자들만이 정식 회원자격을 얻는다.

65년 보림회·선도회 재가禪風 확립

조계사·길상사 등 도심에 선방운영

주말 철야정진 29년째

120여회원 거사풍 계승

◈보림회의 거사풍

1965년 백봉 김기추 거사가 창립한 보림회(회장 이수열)는 초창기 한국 불교계에 거사풍(居士風)이라는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아침에는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뜻으로 세간에 뛰어들고, 낮에는 '모습을 잘 굴린다'라는 뜻으로 책임을 다하고, 저녁에는 '모습을 잘 굴렸나'라는 뜻으로 희열을 느끼고, 시간을 얻어서 앉을 때는 나는 '밝음도 아니요 어둠도 아닌 바탕을 나투자'라는 여김으로 삼매에 잠길 줄을 알면, 이에 따라 깨친 뒤의 수행도 또한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백봉 거사는 일체 만법인 상대성은 본래로 홀연독존인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그 사실을 학인들에게 이론적으로 깨우치고, 반드시 무상법신(無相法身)이 유상법신(有相色身)을 굴린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화두를 지니도록 했다.

백봉 거사의 제자들로 구성된 보림회가 한번도 빠뜨리지 않고 주말 철야정진을 해온 지는 어언 29년. 여름, 겨울 휴가에 맞춰 실시하는 일주일간의 용맹정진 역시 무려 55회 째를 넘겼다. 120여 보림회 회원들은 산청(본원) 지리산 보림선원과 부산 화엄사, 정릉 보림사에서 주말을 이용해 각각 정진하고 있다.

1908년 부산 영도에서 태어난 백봉 거사는 외로이 독립운동을 하던 암울한 시대를 뒤로 한 56세에 불법을 만나 '무자(無字)' 화두로 정진하던 중 6개월만에(1963년 1월) 새벽 종치는 소리를 듣고 활연대오(豁然大悟)한 우리시대의 도인이었다.

간화선을 수행의 핵으로

70여회원 화두타파 전념

◈선도회의 입실지도

선도회(지도법사 박영재)는 65년 종달 이희익 노사에 의해 창립된 재가수행자 모임. 남송의 대혜종고 선사가 당시 사대부들을 지도하며 확립한 간화선을 수행의 핵으로 한다. 무(無)자 화두와 스승과 제자의 선문답을 뜻하는 '입실(入室) 지도'를 중요시하는 선도회는 "스승만 제대로 만난다면 간화선만큼 빨리, 그리고 간결하게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수행법도 없다"고 강조한다.

선도회의 가풍(家風)은 '하루 향 한 대 타는 시간동안 앉지 않으면 한끼를 굶는다'는 것. 서울 목동, 정릉, 서강대, 인천, 대전, 광주 등 6곳에서 70여명의 회원들이 화두 타파에 전념하고 있다. 1990년 초대 지도법사인 종달 이희익 노사의 뒤를 이어받아 선도회를 이끌고 있는 서강대 물리학과 박영재 교수는 "간화선은 모든 괴로움의 원천인 이분법적 분별심을 끊고 평상심을 갖게 해 직장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수행"이라고 말했다.

종달 거사는 1924년 일본대학 철학과를 졸업한 후 1925년 일본 임제종 묘심사파 경성별원 전문도량과 경도 남선승당에서 수행했다. 1960년 월간 〈법시〉 편집인을 지낸 종달 거사는 '무(無)'자 화두를 타파한 65명의 거사와 대자(大姉)를 배출했으며, 14권의 선관련 저서를 남겼다. 80세 되던 해 쓴 자서전 〈인생의 계단〉에서 "가까스로 조주무자를 얻어 평생을 쓰고도 다 못쓰고 가노라"는 경계를 나타냈었다.

용맹정진 못지않은 수련

해마다 회원 10여명 출가

◈수선회의 용맹정진

수선회는 1975년 선수행하던 청년 불자들에 의해 창립됐다. 수선회는 '以法合友活禪現用(법으로 하나되고 선을 살려 현실에 쓴다)'이란 강령에 따라 "부처님법을 배우고 선을 실천해 깨달음의 경지를 대천세계에 밝히겠다"고 창립취지문에서 선언하고 있다.

수선회 회원은 2천여명에 이르지만 650여 도반은 고유번호를 갖고서 서로가 경책하며 수행에 임하고 있다. 모두가 학생, 직장인, 노보살에 이르기까지 재가 불자들이다.

지난 88년에는 조계사 옆에 자체 선방을 개설했으며, 이후 서울 강남과 경기도 양평, 캐나다 토론토에 지회를 두고 있다. 도심속에 자리한 이 선방들은 새벽 3시부터 저녁 9시 까지 빈자리가 없다. 여름이면 4차례의 수련회를 통해 화두를 추수린다. 이 수련회는 정진의 강도가 높아 스님들의 선방 용맹정진 못지 않다. 모두가 묵언으로 진행되는 여름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해마다 10여명씩의 회원들이 출가를 한다. 이렇게 출가한 200여 수선회출신 수좌들은 전국 선방에서 정진 중이다.

수선회는 87년부터 근일, 숭산, 정일, 혜암, 진제, 원담, 회광, 혜정, 서암, 화란, 성수스님 등 고승들이 결제 이외에는 매주 목요일 참선법문을 한 고승초청법회를 열어 불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수선회 회장 현담스님은 "좌선에 익숙해진 다음에는 가고 오고 말하고 일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 익어져서, 화두 한생각이 24시간, 365일, 흐르는 물과 같이 지속되는 여기에 실다운 정진의 힘이 생긴다"고 말했다.

수행법 담당=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4월-생명의 달

- 환경과 불교
- 불가전통의 친환경적 요소
- 생활 속 실천과제

생활 속 실천과제



◇지난 10월 열린 부산정토회 제4기 생태학교 세미나. 생태적 삶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했다.

소비·생활습관 바꿔야

"저희집에는 2개의 빨래대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걸레를 빠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와이셔츠 등을 빠는 대야죠. 우선 와이셔츠 등을 빨고나면 그 물은 버리지 않고 걸레대야에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와이셔츠를 헹구고 난 마지막 헹굼물도 깨끗한 대야에 그대로 두고, 걸레를 헹굼질할 때 그 물을 사용합니다."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이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생활을 보고 배우며 환경을 생각하게 되는 경험담을 소개하고 있는데, 68세된 시어머니의 실천은 매우 구체적이고 꼼꼼하다. 그들의 실천을 살펴본 이들은 어쩌면 이렇게 사소한 일들을 챙기며 살 수가 있을까하고 놀라워한다. 그만큼 환경과 환경운동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사고는 뜬구름 잡듯 관념적이다.

실제로 부산정토회의 환경담당 실무자인 최성희보살은 "환경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이들은 많지만 환경을 위해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이는 많지 않은게 현실"이라며 "환경의 실태를 알리는 강좌나 실천방안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몰라서 실천을 못했다면 발빠른 실천으로 상생의 길을 열어가는 이들에게서 몇가지 배워보자. 물 오염과 낭비를 막기 위한 실천 중 대표적인 것으로 설거지시 천연세재 사용하기가 있다. 기름때를 씻어낼 때 흔히 알려진 밀가루, 쌀뜨물 외에도 과일껍질, 야채껍질, 시금치 데친 물 등을 사용하면 뽀드득 소리나게 설거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헹굼물을 걸레빨기, 화분 물주기, 화장실 청소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기본. 음식물 쓰레기를 없애기 위한 노력으로는 음식양은 조금 적은 듯이 조리해 남는 음식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보관통으로 남은 음식물을 수시로 확인하고 조리해 식탁에 올려야 한다. 무엇보다 소식, 채식 등의 생활화로 음식에 대한 탐욕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장바구니 사용으로 비닐봉지 사용을 억제하고 종이컵, 일회용 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은 사절한다.

이러한 실천을 해본 이들이 고백하듯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소비하고 버린 만큼 지구와 환경은 파괴되고 그 파괴의 여파가 나에게 되돌아오는 순환의 고리를 이해한다면 실천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 조금 불편하게, 조금 덜 쓰면서 자신의 소비습관과 생활방식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환경 구호보다 몇배의 파급효과를 가질 것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모십니다

불기 254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부대중의
관심 속에 광주·전남불교 합창예술제가
이 지역 5개 사찰 합창단(백양사, 향림사, 원효사, 한마음선원, 사암연합)이 불교 음악의 대서사곡 '부처님이야기'를 무대에 올립니다. 부디 동참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2년 4월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벽상 합장

불교음악의 향연

2002 제 6회 광주·전남 불교합창예술제

공연내용

제1부

원효사합창단 ■ 노을 ■ 무상게
향림사합창단 ■ 남촌 ■ 경사로다
백양사참사람합창단 ■ 누가하는가요 ■ 한마음있음이여
한마음선원혼성합창단 ■ 빈손 ■ 에델바이스
광주불교사암연합합창단 ■ 홀로아리랑 ■ 얼마나 닦아야 거울마음 닮을까

제2부 – 부처님이야기

광주·전남불교 보리살타 연합 합창단

■ 출연자 – 원효사합창단, 향림사합창단, 백양사참사람합창단, 한마음선원혼성합창단, 광주불교사암연합합창단

독창 – 강명자, 오순아, 김성남, 이행숙, 성경남, 문희순, 우정례
소프라노 – 정지선, 장영희, 박순례 외 75명
알토 – 자비행 이숙희 외 50명

특별출연

하늘 땅, 향림사예술단
– 사물놀이
정광고어슬부팀
– 댄스
순천사암연합가릉빈가합창단
– 꽃 공양, 경사로다
한마음선원어린이합창단 나의작은별이야기
– 선법가를 접목시켜 만든 어린이 음악극

● 주 최 : 광주불교사암연합회
● 주 관 : 광주·전남 불교 보리살타연합합창단
● 후 원 : 백양사, 향림사, 원효사, 한마음선원
● 협 찬 : BBS광주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 광주·전남지사

공연일시 : 2002년 4월 26일 (금) 오후7시
공연장소 : 5 18 기념문화센타(상무지구 KBS방송국 옆)
문의전화 : 062- 375-9986, 376-3223

공연장 오시는 길 ▼



입장은 무료입니다 많은 홍보 바랍니다



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우주 ㉕

천문학적 사고와 禪

禪의 '직관' 우주 유기성 통찰

새로운 깨달음을 위해
끊임없이 수행하는 것이
자연서 살아가는 올바른 길

우주 내 모든 개체의 탄생, 운행, 소멸의 이치를 찾아내고 이들의 과거와 미래의 진화를 예측하는 학문이 천문학이다. 이러한 학문의 연구 대상은 이상적 조건을 갖춘 닫혀진 실험실 내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을 가진 열려진 실험실인 자연 그 자체가 천문학의 실험실이다. 그러므로 연구 대상은 시공적으로 제한이 없으며, 또 모든 사물은 원자라는 기본단위로 구성되었으므로 원자의 미시 세계에서부터 거대한 우주에 이르는 거시 세계를 넘나들면서 일어나는 순환적 사고가 필수적이다.

열려진 실험실인 자연에서 만유는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변화해 간다. 따라서 다양한 부분적 현상들을 전체적으로 종합·분석함으로써 전체의 유기적 진화 양상을 찾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전일적 사고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고 행위는 근본적으로 관측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관측에서는 항상 관측 대상에 관련된 객관적인 것과 관측자에 관련된 주관적 불확실성이 내포됨으로 관측 사실로부터 유추한 결론이나 모형설정에는 반드시 인식 한계를 결정짓는 불확실성이 내포된다. 그러기에 오늘의 진리가 내일에는 거짓이 될 수 있는 것이 관측 행위의 특성이며, 인식의 한계성이고 또 자연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진리에 대한 관용이다.

위에서 살펴본 천문학적 사고방식은 천문학뿐만 아니라 소위 열린 세계에서 살아가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며 인식하는 대상은 주로 자연적 상태에서 주변과 긴밀하게 연관된 상태에서 변화하며 또한 공간적으로 지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주적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이 우주의 만유에 관련된다면 이를 대상으로 하는 천문학의 사고방식도 불법과 다를 바 없다. 한 예로 불법의 수행에서 언급되는 선 수행의 방식이 천문학적 사고방식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자.

흔히 선이란 사유방식을 세속제에서 승의제로 바꾸는 것으로 분별적 사유의 태도에서 순수하게 직관하는 태도로 바꾸는 것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직관이란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논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미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내장되어 있는 아뢰야식을 통해 전체를 꿰뚫어 보며 종합하고 판단하는 사고 행위이다. 여기서 직관이 마치 강을 배로 건너지 않고 이쪽 강둑에서 저쪽 강둑으로 훌쩍 날아가는 것처럼 비약적 사고 활동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물과 현상을 자세하게 분별하고 차별하는 구체적인 과정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질 뿐이지 결코 식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즉 분별적 사유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대상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직관적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틀에 박힌 고정된 사고방식으로 부분적 현상에만 집착하는 세속적 사유과정을 벗어나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를 순환적으로 사유하며 전체를 깊고 넓게 조명하는 유기적인 전일적 사고가 곧 직관이다. 깨침에 이르는 승의제는 바로 이러한 순환적이고 전일적인 사유방식의 터득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이란 세속제에서 승의제로 들어가는 전의를 이루기 위한 단순한 실천적 수행이 아니라 자연의 사물과 현상에 대한 분별적이고 부분적인 사유체계로부터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사유체계를 통해 자연의 보편적 질서를 통찰할 수 있는 전일적 사유능력을 배양하는 적극적 수행이 선일 것이다. 6식에 의한 인식작용은 특히 형체를 가진 유형의 상에 편중되고, 또 시간과 공간적으로 제한적이므로 승의제든 세속제든 인간의 인식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내포된다. 따라서 외부 대상의 본질을 규명할 때, 완전한 해답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발전적인 의문을 제시함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의 깨달음이 내일에는 거짓이 됨을 알고 새로운 깨달음에 이르는 끊임없는 수행이 변천하는 자연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올바른 삶의 길이지, 결코 어느 한 순간에 완전한 깨달음의 달성이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다. 깨달음이란 거대한 연기라는 그물망에 걸려있는 만유의 존재양식과 진화를 이해할 때, 개체들에 관한 분별적 사유를 거친 후 전체와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성상융합(性相融合) 함으로써 쌍차쌍조를 이루어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 이르는 선의 경지일 것이다. 큰 바위일수록 낮은 곳에 머무는 것처럼 선은 마음을 낮추는 것이며 도는 낮춘 마음으로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다. 남악회양 선사는 '집착이 없고 취하고 버리는 것이 없는 것이 선이다'라고 했다.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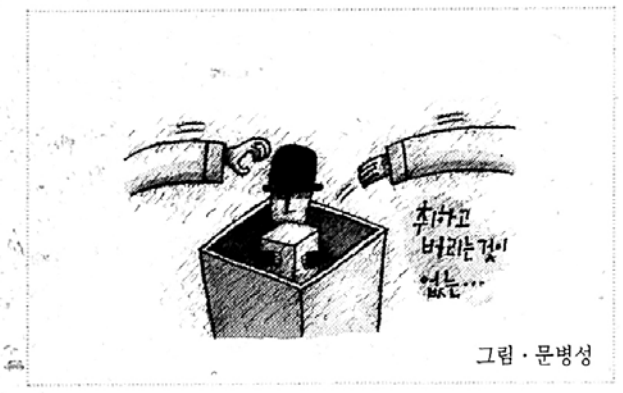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이렇게 들었다

"사회 공헌도·전문성 떨어져"

엘리트 그룹에 대한 평가

교수신문은 지난 15일자에 행정관료, 경영인, 언론인 등 사회 엘리트 그룹의 도덕성이 몹시 낮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행정관료와 언론인 등 대국민 영향력이 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공헌도와 전문성마저 여타 직업군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됐다.

교수들을 상대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사회 엘리트 그룹의 내부 점검적인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행정관료와 언론인에 대한 교수들의 평가는 그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만과 다르지 않았다.

우리는 행정관료, 경영인, 언론인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을 전문가, 사회 엘리트 또는 여론형성층이라 흔히 부른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며 특별대접을 하는 것은 그들의 전문적인 능력을 통해 이 사회를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도덕성, 사회적 공헌도,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그들에 대한 평가나 대접이 바뀌어 할 것이다.

▧나라의 중신이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사리만 생각하면 나라의 기강이 급속히 무너진다. 백성이 서로 속이고, 강자가 약자를 때리고, 귀족이 서민을 학대하고, 부자가 빈자를 착취해도 법의 제재가 없으면 도덕이 무너지고 혼란이 극에 달한다. 부정직한 공직자들은 백성의 복리를 훔쳐는 도둑일 뿐, 임금과 백성을 속여 나라를 불행하게 하는 원흉이다. 그러므로 임금은 직무를 태만히 하는 그런 중신들을 가려내어 엄벌해야 한다. <대살차니건지소설경>

▧관리들은 고위직이나 하위직을 막론하고 모두 법에 따라 업무를 바르게 수행하고, 법을 어기기 쉬운 자들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에 의한 보호, 법에 의한 처리, 법에 의해 안락을 주는 것, 법에 의해 언어와 행동을 삼가는 것, 이것이 관리가 준수해야 할 규칙이기 때문이다. <아육왕비유경>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⑧

지금 작용하고 있다

모든 것 인연따라 생기고 사라져

그대들은 조사·부처를 알고자 하는가? 바로 그대들 앞에서 법(法)을 듣는 것이 조사요 부처이다. 배우는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면 곧 밖으로 이리저리 찾지만, 설사 찾아서 얻는다 하더라도 이것들은 모두 문자의 뛰어난 모습일 뿐이니, 결국 저 살아있는 조사의 뜻을 얻지는 못한 것이다. 잘못 알지 말라. 여러분! 바로 지금 조사와 부처를 만나지 못한다면, 영원히 삼계를 윤회하며, 좋아하는 경계를 따라가서 당나귀나 소의 뱃속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도 배우는 이들이여! 나의 견처로 말하면 석가세존과 다르지 않다. 오늘 여러 가지 작용하는 곳에 무슨 모자람이 있는가? 여섯 가지 지각의 신령스런 빛이 끊어진 적이 없었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할일이 없다.

나[我]란 무엇인가? 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나'라는 생각 혹은 느낌을 늘 가지고 있다. 즉 아상(我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막상 이 '나'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면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육체를 '나의 육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육체가 곧 '나'인 것은 아니고, 느낌도 '나의 느낌'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느낌이 곧 '나'인 것은 아니며, 생각도 '나의 생각'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생각이 곧 '나'인 것은 아니다. 사실 어디를 찾아보아도 '나의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있어도 바로 '나'라고 할 만한 '무엇'은 찾을 수가 없다.

즉 '나'는 없다. 그러므로 무아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없다'고 말하는 이것은 일어나고 있다.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이것이 또한 '나는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한다. 생각과 말에서는 '있다'와 '없다'로 달라지지만, 생각하고 말하는 이것은 아무 차별 없이 동일하다. 이것이라고 말하지만, 생각하고 말하는 이것은 생각이나 말로서 파악하고 지시할 수 있는 무엇은 아니다.

이것은 생각이나 말로써는 어떤 방식으로도 파악되거나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순간도 빠짐없이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나의 모든 행위와 내가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모든 현상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난다. 그러므로 이것은 늘 이 순간 이런 느낌과 이런 행위와 이런 생각을 통하여 드러난다. 그러나 이런 느낌과 이런 행위와 이런 생각이 곧 이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한다면 바로 어긋나 버린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곧 이것이지만, 생각과 말을 통하여 생각과 말 위에서 이것을 파악하거나 나타내려고 하면 곧 허구에 빠지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고정되거나 정해진 무엇이 아니다. 모든 무엇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므로 이것은 바로 생겨남 그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진리를 연기법이라고 말한다. 모든 생겨남은 인연에 따른 생겨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지금 이 순간의 생겨남이라는 활동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어떤 눈에 띄는 움직임을 곧 이것이라고 해서는 안된다. 눈에 띄는 움직임은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허망한 생멸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생멸법과는 달리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다만, 육근이 작용해야 이것도 드러나 파악되므로, 이 불생불멸법은 인연에 따른 생멸법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멸법이 곧 불생불멸법이다. 동정(動靜)에 매이지 않는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의 존재이다.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http://www.mindfree.net/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독경 chant 운판 cloud gong 목어 wooden fish

The day begins at 3 a.m. One monk rises a little earlier, washes, and puts on his ceremonial robes. Slowly, he circling the Pagoda and chanting as he goes. After a short time, the large bell, followed by the drum, cloud gong and wooden fish are sounded and all monk go to the Main hall for chanting.

하루는 새벽 3시에 시작한다. 한 스님이 조금 일찍 일어나 씻고 가사를 입는다. 목탁을 치며 탑 주변을 천천히 돌며 독경을 한다. 잠시 후 범종과 법고, 운판, 목어를 치면 모든 승려들이 예불을 위해 대웅전으로 간다.

The large bell, followed by the drum, cloud gong and wooden fish represent a section of the world of living beings. The large bell calls those who have become decadent. The drum, made of an animal skin, calls the animals. and cloud gong calls the beings of the air. The log carved into the shape of a fish calls the all that live in water.

범종과 북, 운판, 목어는 우주의 생물들의 각 부분을 상징한다. 범종은 고통 받는 중생들을 깨운다.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법고는 동물을 깨우고, 운판은 하늘의 모든 생물을 깨운다. 나무를 파서 만든 물고기 모양의 목어는 물속에 사는 생물을 깨운다.



北韓의 세계적인 神秘의 명산품 국내시판
北韓 金剛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神秘



金剛 염주의 神秘

北韓의 세계적인 神秘의 명산품으로 서산대사의 고향이며 원효대사께서 참선 안거하시던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생산되는 희귀 광석으로 악귀와 액운을 쫓고 건강과 소원이 성취된다는 염주입니다.
金剛염주는 몸에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神秘한 靈驗으로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화를 쫓고 福을 부르는 最高의 염주입니다.
金剛염주는 현재온도에서 氣와 원적외선 93%가 24시간 방출되는 세계 유일의 神秘의 염주입니다.
북한에서는 고위층 인사와 일부 스님만이 비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000℃ 불에 넣어도 녹거나 타지 않는 금강석과 같은 염주입니다.

선물로도 최고! 건강에도 최고!

이런분은 꼭 사용하세요

- 중차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
- 대학진학 수험생 부모님
- 선거에 출마를 결심 하신 분
- 사업이 안되어 고민하고 계신 분
- 아들이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 중병으로 투병 중인 분
- 결혼배필을 찾고 계신 분
- 승진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

신청문의 전화 : (02)704-6868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고 대금 195,000원을 아래구좌로 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전국 어느곳이든 신비의 금강염주 SET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국내 독점보급
金剛염주社
서울 중로구 관훈동 177 대청B/D 406호

목어 배려하는 지도층 그립다



허 아무개라고 하는 잊지 못할 목사님이 한분 계시다. 그 분을 잊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두가지만 소개한다.

80년대초였다. 그는 나에게 자기 교회에 와서 강의를 해줄 것을 부탁했다. 달동네 그의 작고 허름한 교회에 와서 불교이야기도 좋고 인생이야기도 좋으니 신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는 것이다. 나는 기꺼이 그의 청을 받아들임으로써 화답해 주었다.

또 한번은 허 목사님 교회 신자인 건달기 있는 어느 청년이 사석에서 술에 취해 내게 시비를 걸자 목사님이 두 팔을 걷어붙인 채 그를 무력으로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다. 그것이 나에 대한 그분의 최상의 배려였던 것이다.

남에게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목사든 아니든 부처님처럼 존경하는 마음이 샘솟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 아닐까.

요즘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보고 있노라면 실망스러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그들이 남에 대한 배려보다는 오히려 아집의 극치를 보여주는 경우가 더 많아 보여서다.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사람들의 연설을 들어보면 상대 당이 아닌 자기 당 사람들 끼리도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느낌이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 역시 내 종교만 믿으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식의 환상에 사로잡혀 타종교를 깎아내리는 순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많은 지식인들 역시 아집에 빠져있기는 마찬가지다. 단적인 예로 한자교육 병행을 반대하는 한글학자는 많아도 찬성하는 한글학자 이야기를 나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이렇듯 상대를 배려하고 칭찬하는 모습은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자기밖에 모르는 아집과 어리석은 욕심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지도층을 많이 차지할수록 우리나라의 미래는 그만큼 어두울 수밖에 없다.

지도층 인사가 되려면 어느 분야에 몸담고 있던 남을 배려하는 마음부터 가꿀 일이다.

도 수(정업도량 회주, 본지 논설위원)

불자 세상보기

사찰 안내판 세심한 배려 필요



박규현
대구대 교수
미술학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이제 각 나라들은 세계인에게 문화관광을 체험하는 곳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과거 경제적 가치에 비중을 둔 '쇼핑관광'이 이제는 정신적 가치에 비중을 둔 '문화관광'으로 발전해 가고 있음은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갈수록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이는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서로의 오고 감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무역외수지 불균형으로 신경이 쓰이기 십다.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의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관광은 외국에 비해 비교적 낮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친절 때문일 수 있겠고, 바가지 요금 때문일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여행자의 기호에 따른 맞춤여행상품이 개발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안내 표지판의 무성의와 상세하지 못한 세부지도, 그리고 목적지 표지판의 표기누락으로 인한 여행의 곤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TV에서도 이 문제를 여러 번 다루었지만 이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 우리의 무관심과 무성의가 아직도 이 문제를 덮어두고 있는 것이다. 사실 여행지에서 서로 악간씩 봄친절하고 약간씩 바가지 씌우는 것은 애교(?)로 봐 줄 수도 있겠지만 표지판 누락이나 잘못 그려진 지도로 곤욕을 치르는 일은 여행자에게 애교가 아니라 애태우는 일이 된다.

앞으로 월드컵경기와 같은 각종 큼직한 국제행사 등 세계화과정에서 템플스테이는 각광받는 문화체험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템플스테이라고 해서 단순히 그들이 숙박만 하고 가는 것은 아니다. 사찰주변을 돌아보고 곳곳에 소개된 우리의 유물·유적에 대한 안내상태를 보고 그들은 우리의 문화수준을 가늠하게 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의 전통사찰에 있는 안내판과 표지판의 상태는 어떠한가?

얼마 전 외국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사찰을 다녀온 일이 있었다. 그곳에서는 푸른 눈의 외국인이 드문드문 보였는데, 그들은 한 표지판에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다.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잘 알려진 사찰이 이런 상태라면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은 더 말할 것도 없으려니 생각하니 한심했다. 앞으로는 점점 더 목적여행, 심층여행, 테마여행 등이 세계의 문화관광인들에게 인기를 얻을 추세고 보면 우리의 사찰 하나 하나가 모두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하루 빨리 안내판과 표지판을 정비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사찰에서 만드는 안내약도의 경우 대충 어림짐작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정확성을 따지는 서양인들에게 거리, 축척, 방향, 위치를 상세하게 표시한 후 반드시 영어를 병기해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 사찰을 홍보하고 알리는 표지판이나 주변 설치물의 소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그 사찰의 심미적, 환경적 평가가 달라지고 그것이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잣대로 작용된다. 번들거리고 야한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표지판과 중후한 청동판에 음각으로 멋을 낸 표지판은 야만과 문화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현격히 보여준다. 고급골동품상의 문화재란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도 싸구려시장의 조악품이란 느낌을 주어서는 곤란하다. 스님들의 가사와 발우가 나일론이나 플라스틱 소재가 아니고 왜 면이나 나무인가를 생각해보면 짐작할 일이다. 둘은 다르지 않다.

안내판이나 표지판의 새로운 손질, 거기에 들어있는 상세하고도 친근한 여행정보, 어울리는 적절한 소재의 선택, 면밀한 제작과 잘 구성된 디자인, 크기·비례가 주는 각 요소들의 조화, 이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행할 때 템플스테이는 한국전통문화체험의 하나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종교 NGO의 사회적 역할

부산 청정화합시민연대(상임대표 정각)는 18일 NGO 운동 속에서 종교NGO의 위상과 그 역할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았던 정천구 교수와 지정토론자인 김민남, 강호일 씨, 도관스님의 글을 통해 바람직한 종교NGO의 모습을 알아본다.

종교 NGO운동 방향



정천구(영산대 교수 · 정치학)

80년대 말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NGO 운동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종교NGO 운동도 이와 함께 성장해 한국사회의 문제해결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종교NGO운동이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발전 방향이 필요하다.

종교NGO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교적 교리와 신앙에 투철한 대중보살 운동, 복음주의 운동이 전개돼야 한다. 종교적 기초에 서서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교리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작업이 뒤따라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종교NGO운동의 저변을 확산시키기 위해 일반NGO운동의 쟁점 이외에도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긴밀한 분야를 개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생활과 신행 활동은 전혀 다른 분야라고 생각하는 행태가 변해야 할 것이다. 신행생활과 일상생활은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고 서로 보완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신앙 바탕 대중보살운동 절실

불교의 현실참여

김민남(동아대 언론홍보대학원장)



대상·방법등 충분한 연구를

시민운동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에 있어 종교가 시민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아직도 참여의 대상, 수준, 방법 등에서는 종교 내의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종교는 인간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물음이요 대답이라는 점에서 개인적, 사회적 문제해결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특히 불교는 수행을 통해 집착을 버리고 편견과 독선을 벗어나는 몰아일체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시민운동의 기본 정신을 제공해준다. 이런 점에서 불교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현실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이제 불교를 비롯한 종교는 교리의 신앙에 투철하면서 시민운동의 저변확대, 지속성 확보 등을 위한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야 할 때다. 특히 사회의 중요한 이슈나 아젠다뿐만 아니라 건강, 노인, 여성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분야로 관심의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종교 NGO 네트워크 역할

강호일(부산일보 논설위원)



대중·종교인 공감대 형성 중요

비정부 시민단체인 NGO의 활동은 전국에서 2만여개의 신생단체가 생겨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종교 NGO 운동에 거는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종교NGO 단체들의 자정 노력과 자립도 확보는 필수적 과제다.

여기서 우리는 세속화, 상업화된 한국종교의 개혁을 위해 지난해 11월 발족한 종교NGO네트워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교NGO네트워크는 맑은 종교를 위한 실천강령을 통해 종교시민운동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종교지도자들의 부정부패와 일반 종교인들의 근시안적 종교행위를 극복하는 자기정화 노력을 시작한 것이다. 종교 재정의 투명성 확보, 경제적 빈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기부문화정착 등 물량주의로 흐르는 종교문화를 척결하는데 주안점을 둔 이들의 움직임은 종교시민운동의 지향점을 제시해 준다.

이처럼 종교계가 시민운동에서 제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교계의 내부적 자정노력을 통해 일반 대중들과 종교인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불교와 사회참여

도관스님(불교인권위 사무국장)



사찰이 시민운동 중심돼야

종교시민운동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교시민운동의 태동 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파고다운동이나 만해스님의 대한불교청년회, 혁명불교연맹 등이 국가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했듯이 초기불교의 혁명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5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불교NGO협의체에서 주장하듯 사찰은 하나의 비정부기구로서 지역사회에서 시민운동의 중심이 되어야한다. 각 사찰이 지역내에서 봉사와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지관 역할을 하면서 사찰 재정, 인재, 공간 등을 대사회적으로 회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성숙된 시민의식 속에서 불교종교시민운동이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불교적 생명관이나 세계관을 토대로 대중성 이념성을 확보해야한다. 불교적 진리가 종교시민사회운동의 새로운 틀로 짜여질 때 여성, 환경, 인권 등 보다 폭넓은 시민운동으로 폭을 넓혀가며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불자의 생각

사찰환경 수호



불교환경운동의 네트워크 구축이 사찰 수행환경을 수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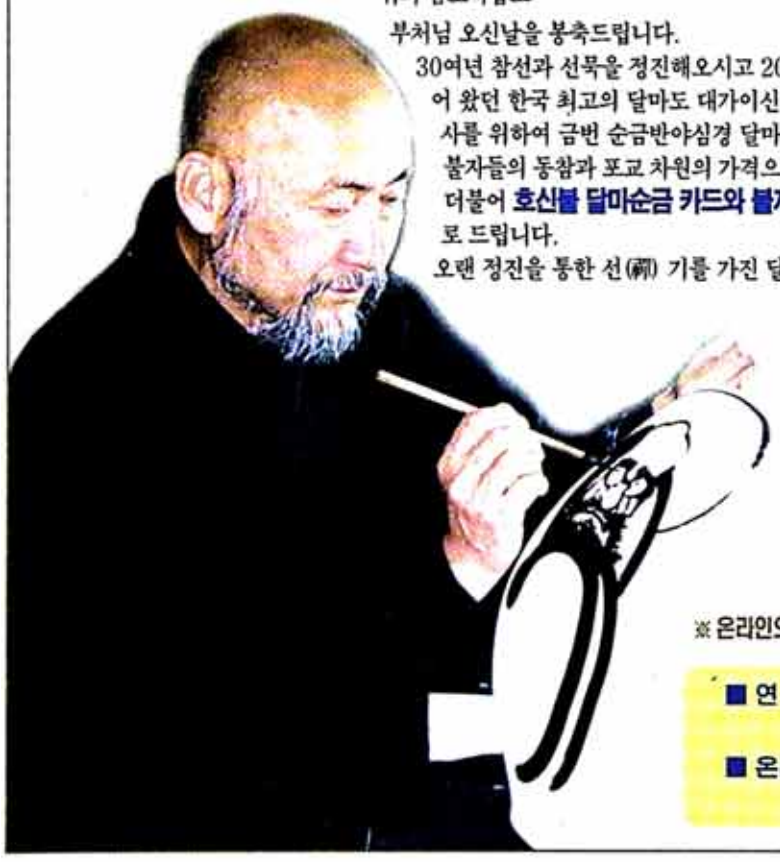
103명이 참여한 붓다뉴스 네디즌 설문에서

"환경운동 네트워크 구축" 52%

사찰의 수행환경 수호를 위해 불자들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54명(52%)이 이같이 응답했다. 이와 함께 30명(29%)이 사찰환경의 중요성 홍보를, 14명(14%)이 정부 및 지자체의 개발 정책 견제가 필요하다, 2명(2%)이 환경운동 기금 마련을, 3명(3%)이 기타라고 답했다.

불교환경 단체에 가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92명(89%)이 있다, 11명(11%)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임연태 기자

달마선원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범주스님 달마도 청자·백자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드립니다.

30여년 참선과 선묵을 정진해오시고 20여회 자선 전시회를 열어 불우한 이웃을 위해 자비를 베풀어 왔던 한국 최고의 달마도 대가이신 범주 스님께서 속리산에 열린 대중선원 달마선원 건립 불사를 위하여 금번 순금반야심경 달마청자 와 백자를 조성하여 건립 불사가 회향 될때까지 많은 불자들의 동참과 포교 차원의 가격으로 모셔드립니다.

더불어 **호신불 달마순금 카드와 불자집안에 가훈이 될 수 있는 범주스님 친필글 1점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 기를 가진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 줍니다.

범주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달마도자기를 소장하고 선원 건립불사동참의 공덕을 지을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뜻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속리산 달마선원 건립 불사위원회 합장

※ 온라인으로 송금해주시고 연락주시면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연 락 처 : 불사위원회 - 代)02-424-9901
달 마 선 원 - 054-535-0378

■ 온라인번호 : 제일은행 100-10-018794
(달마선원)



달마 청자 중(뒷면)



달마 백자 중(앞면)



달마청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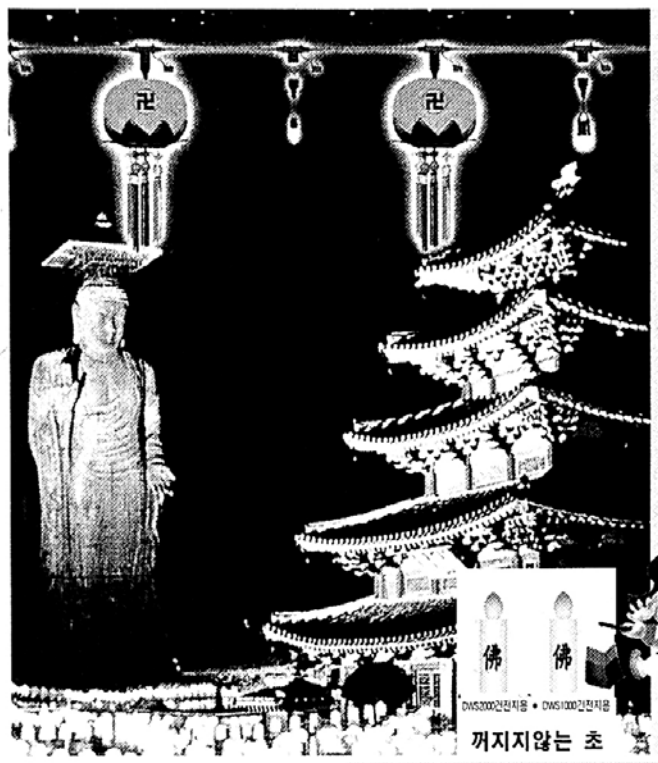
작품가격

달마청자 대(43.5cm × 31∅cm) 25만원
중(37.5cm × 35∅cm) 20만원
달마백자 대(43.5cm × 31∅cm) 25만원
중(37.5cm × 35∅cm) 20만원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건전지용 초.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통 간 격
22cm.30cm.50cm.
1M.2M.3M.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

- 불제대원 고주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월라멘트가 6배(특 월라멘트)로 밝아 월등이 밝고 깔끔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031) 986-0277~8
http://www.bulje.co.kr
구입문의 (02)2266-2634
(02)2263-2638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389-43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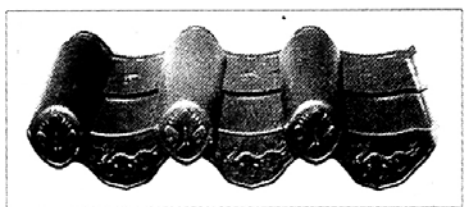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쳐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 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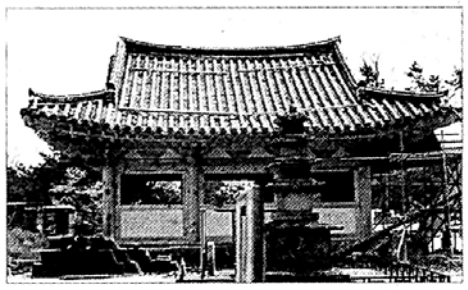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심 마 당 長腦山蔘

기와지붕시공전문





본 제품은 여와 부와의 합일성으로 시공의 간편함과 능률의 향상을 높이고 규격의 노출이 크므로 하중의 부담을 극소화 하는 개량형 전통 한식기와 입니다.
특성은 풍설 폭우 한파의 약천후에 균열이나 동과없이 견딜 수 있는 반영구적 (80년정도)인 제품이며 미려한 곡선의 연속으로 잔잔한 물결의 율동과 같습니다.

한옥기와 | 청기와 | 오지기와 | 한식기와

신형기술로 시공한 후 청소까지 완벽하게... 가장좋은 제품으로 가장 저렴하게

덕신기와는 불교계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뢰받을 수 있는 오랜 경륜과 경험, 그리고 책임있는 신형기술로 각종 기와를 부처님께 공양올리는 자세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스님을 비롯한 불자여러분의 많은 상담을 바랍니다.

덕신기와 TEL 02)930-7811, 063)856-8562
H.P 011)302-7812 FAX 02)930-7812

"스님들께서 육임을 하면 역술이 아닌 법력이 되고 맙니다. 육임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출간 ▶

- 바인더 차트식으로 되어 있어 하루치씩 꺼내 보게 되어 있습니다. -

음양오행을 몰라도, 역술공부가 부족해도, 이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좌정용과 휴대용」 만 있으면 그 고민은 이제부터 해결 됩니다.

■ 육임은 시간으로 보는 고등역술로서,
찾아오거나
전화오거나
가서 만난사람
의 비밀한 속사정을 먼저 말해줄 수 있게끔 되어있는 비서(秘書)입니다.

■ 출생 년월일시를 물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찾아 온 그 날 그 시간
전화 온 그 날 그 시간
가서 만난 그 날 그 시간
만 보면 이미 그 해당 시간 칸칸 마다에 상대방의 비밀한 속사정들이 다 적혀 있는 기서(寄書)인 것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여러명이 오거나 전화하거나 가서 만나더라도 각기 다르게 말해 줄 수 있게끔 쓰여 있어서 편리하고 신통합니다.

■ 또, 어디를 출타할때도 방문 앞에 오늘, 내일, 10일후, 한달후, 1년후 어느날 어느시간에 온 방문자이든 아래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미리 써 놓고 외출할 수 있으며, 미리 써 놓은 그것들이 신통하게 맞으므로 내가 자리에 있을때나 외출 할때나 나의 법력과 도력이 크게 과시 되는 것입니다.

■ 이를테면
- 무슨일 때문에 왔는지, 전화했는지
- 어떤 특별한 속사정을 이미 겪고 있는지, 아니면 장차 겪게 될 것인지
- 물고자 하는일이 어떤것이든 그 목적사가 될 것인지, 안될것인지, 된다면 묻는 그 목적사가 어느쪽, 또는 어느 일에 가서 성사 될것인지
- 본인이 저지른 일인지, 남으로부터 당한 일인지
- 상대방의 천성이 선한지, 악한지
- 상대가 이익을 줄 사람인지, 피해를 줄 사람인지,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력한 사람인지
- 하고자 하는 일의 시작과 중간과 결과가 어떻게 전개 될 것인지
- 지금 무슨 귀신의 침범을 받고 있는지, 그 귀신을 어떻게 제압시킬 수 있는 것인지
- 지금 누구의 산소에서 방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 탈을 해소 시킬 것인지
-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가상이 흉한지, 길한지
- 이사를 어느 방위로 몇일날 해야만 개운이 될 것인지
- 부적, 굿, 천도, 고사등 수법을 행할때 효과가 있겠는지, 없겠는지, 그렇다면 언제 해야만 좋을 것인지
- 어는 방위에서 사는 남녀 누구가 묻는 목적을 방해 하고 있는지
- 부부간 누가 밀등을 하고 있는지, 한 남자에 두 여자 관계인지, 두 남자에 한 여자 관계인지, 남자가 적극적인지, 여자가 오히려 적극적인지
- 병(病)이 나을지 안 나을지, 낫는다면 언제까지 낫게 될 것인지
- 집(土地)이 팔릴지 안팔릴지, 팔린다면 언제 팔리게 될지
- 임신한 아이가 여아인지, 남아인지

■ 이처럼 핵심사항들에 대해 들어서자 마자, 전화 받자 마자, 가서 만나자 마자 즉시 말해주게 되면 상대방은 당장 기선이 제압당해 자기가 알아서 생각하게 되고 맙니다.

■ 이 외에도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 승진, 구재, 구직, 시험, 혼사, 임신, 가정, 이사, 소송, 질병, 매매, 도난, 가출, 대인, 방문, 채용, 투자, 승부, 가격, 경작, 묘지, 기후** 사항 등을 밝혀 놓았습니다. 육임은 참으로 신통하여 역술인이면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만 워낙 난해하여 포기하고 마는데, 이처럼 쉽게 차트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활인전문** 천역자 분들에게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 주문전화 : 02-993-8680 부산지사 : 051-851-2349
▷ 본 사 : 02-996-3335 당일배달 : 정현철
▷ 입금구좌 : 한빛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 책 값 : 좌정용 1,300,000원 휴대용 1,500,000원 증보판 350,000원
매월별 12권 분권(부록, 비디오 포함) 각종 카드로 장기분할 구입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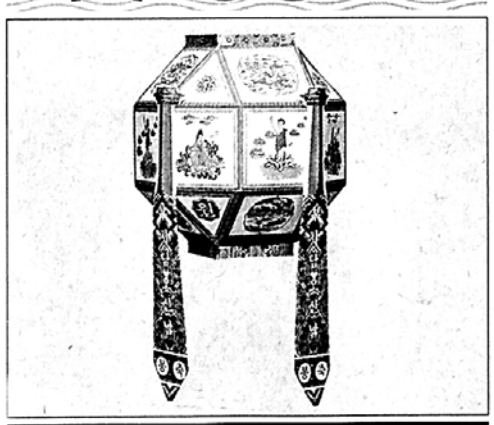
■ 육임강의안내 : 육임기초 · 기본에서부터 육임제비법활용단계까지 3개월 12강으로 완성합니다. 수강료는 1백 5십만원이며, 현재 제 1기 30명, 제 6강까지 진행되어 있고, 제 2기는 6월 7일부터 30명 제한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 두셔야만 순서에 드십니다.

■ 육임 통신 강의안내 : 지방에 계시거나 참석시간에 애로가 있는 분들께서는 비디오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강료는 80만원이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3시간 동안의 강의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3일이내 도착됩니다.

● 참고 하실 것은 사주명리 10년을 해도 육임 3개월을 공부한 육임가의 판단능력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문을 아는데는 태를, 지리를 아는데는 기문, 인사를 아는데는 육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사주나 일반명리는 묻는 것에 즉답할 수 없는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육임은 묻는 것을 시간만보아 딱딱 부러 뜨릴 수 있습니다. 시람들은 먼것보다 당장의 문제를 물어 옵니다. 여기에 육임의 진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연등초벌용 8Cm ❖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날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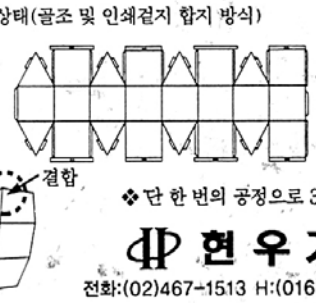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전화:(02)467-1513 H:(016)552-9360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率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용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20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2004

각종 佛事 상담
一心佛院
大佛, 小佛, 佛壇, 탱화, 단청, 단청 불교용품일체
☎ 02)725-2030, 2040 (조계사옆 포교원 입구)
여시아문
인터넷 도서주문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www.yosiamun.com


◇정토회보살들이 비닐봉투대신에 쓰일 투명망을 만들고 있다. 이 투명망은 일반에 배포된다.

2000년 말 우리나라의 일일 쓰레기 발생량은 약 4만6천톤. 이중 25%인 1만1천톤이 음식물 쓰레기다. 낭비된 음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15조원에 달하고 그 처리비용만도 8조원에 이른다. 이것만으로 서울시 1년 예산 11조원의 두 배가 넘는다.

자꾸만 메마른 사막으로 바뀌어 가는 도시 속에서 건강한 삶을 연장하기 위한 기본조건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불교적 가르침에 따른 생태적 삶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쓰레기제로 1080운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정토회(대표 유수 스님)는 앞으로 1080일 동안 '장바구니 속 비닐쓰레기제로'와 '음식물쓰레기제로'를 목표로 '쓰레기제로 1080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운동은 한달 회비 10800원을 내는 회원 1080명으로 '쓰레기제로 1080실천단'을 구성해 일상생활 속에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실천하자는 것이다.

정토회는 지난 3년 동안 내부 활동가 중심의 '쓰레기제로 운동'을 실천해 쓰레기 발생을 대폭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정토회는 쓰레기제로운동을 범시민적인 불교환경운동으로 전개하고자 '쓰레기제로 1080운동' 확산에 나서고 있다.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가 땅속에서 분해되기 위해서는 오백년이 걸린다고 한다.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정토회원들이 불자들에게 나누어줄 생리대를 만들고 있다.

발우공양정신 본받아 '쓰레기 제로화' 지향


◇한 가정당 일년 비닐봉투 사용량은 평균 600~800개. 정토회 보살들이 슈퍼에서 야채를 구입하며 비닐봉투 대신 투명망에 담고있다

쓰레기 분리수거

우리 주위에 쓰레기가 넘쳐난다. 쓰레기들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쓰레기 분리수거만 해도 충분하다. 서울 서초동 정토회관의 경우 캔이나 종이 등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분리 수거실시해 매일 100ℓ 봉지 두개씩 발생하던 쓰레기를 절반인 한 봉지로 줄일 수 있었다.

정토회 마산법당 전병인 보살도 분리수거가 쓰레기 줄이기에 큰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캔이나 종이, 비닐봉지 같은 것을 따로 버린다고 얼마나 쓰레기가 줄어들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 무심코 버리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리수거를 하다보면 버리는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과연 버려도 될까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전 보살은 "버리고 쓰기 전에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습관이 쓰레기 발생을 막는 첫 걸음이 된다"고 강조한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서울 정토회관에서는 전통 발우공양 방식에 현대적 식사법을 가미해 아침 저녁 공양을 한다. 개인마다 원하는 만큼의 음식을 덜어 먹고, 자기가 가져간 음식은 밥알 한 알까지 물을 부어 마시는 발우공양의 정신을 실천함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크게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공양간에서 음식물 조리시 발생한 쓰레기는 말린 후 채소를 키우는 퇴비로 쓸 뿐만 아니라 국물을 내기 위해 쓴 다시마와 무는 따로 모았다가 송씨를 발취해 밑반찬을 만들고 있다.

쓰레기 발생량 체크

쓰레기 발생량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토회는 2000년 4월부터 회관 내 개인쓰레기 통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을 매일 기록했다. 비닐, 화장지 등 종이, 기타 쓰레기로 나누어 누가 얼마만큼 배출하는가를 점검했다. 이런 방법을 통해 불필요하게 발생한 쓰레기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다.

서울 정토회관 공양주 소임을 맡고 있는 유정길씨는 "자기가 버린 쓰레기가 어떤 것인가를 되살펴보는 것은 필요 없이 사용한 물건은 없는지, 다 사용않고 버린 물건은 없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기회가 됐다"며 "이런 기회를 통해 함부로 물건을 사용하고 버리는 습관을 고쳐나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일회용품 안 쓰기

일회용품 안 쓰기 역시 중요하다. 길을 가다가 마시게 되는 자판기 커피의 일회용 종이컵, 집에서 편하다고 먹는 커피믹스의 비닐봉투, 차 한잔 마실 때마다 나오는 티백…. 이런 것들은 한번 사용 후 그대로 쓰레기가 된다. 일회용품 안 쓰기는 우리 일상생활의 습관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들에 익숙한 생활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불교환경교육원 최기진 간사는 "일회용품 사용 중단은 결국 세상의 편리함을 버리고 어려움을 택하는 자기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환경 살림을 통해 자기 수행에 근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한다.

비닐 봉투 안쓰기

시장이나 백화점, 마트에 갈 때마다 하나 둘씩 받는 비닐봉투를 모으면 그 양은 엄청나다. 한해 비닐봉투를 만드는 비용은 총 120여 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비닐 쓰레기 없애기를 위해서는 장바구니 이용은 필수. 정토회원들은 비닐봉투가 필요한 야채나 고기 등을 살때 계속해서 쓸 수 있는 흰천으로 된 투명망을 이용하라고 권한다.

"비닐봉투 안 쓰기 운동을 하며 비닐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았다"는 조옥분 보살(정토회 대구법당)은 "포장지며 비닐봉투를 쓰지 않겠다는 맹세를 지키기 위해 몇 분이면 될 장보기에 몇 시간을 허비한 적도 있다"고 비닐봉투 안 쓰기의 어려움을 털어놓는다.

하지만 이제는 슈퍼에서 물건을 포장할 때 쓰는 비닐봉투를 대신할, 환천으로 된 투명망을 늘 들고 다닌다. 조 보살은 투명망을 몇 개씩 들고 다니며 쇼핑을 할 뿐 아니라 다른 도반이 투명망을 잊고 오면 빌려주기까지 한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집 주변 과일집과 부식가게 주인들도 일부러 포장이 안된 제품을 주문해, 비닐봉투 안 쓰기에 동참하고 있다.

물 아끼기

우리나라도 이젠 물 부족 국가군에 들어간다. 화장실 사용에 들어가는 물을 줄이기 위해 빨래 헹군 물이나 세숫물을 모았다 쓰는 것은 필수. 빨래감을 모아서 세탁하는 것을 통해 세탁기를 무심코 사용하는 데에 들어가는 물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물을 아끼기로 유명해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간다는 물 짠돌이 전병임 보살(정토회 마산법당). 전 보살은 "한번 사용한 물을 다시 사용했다고 집안이 더 더러워지는 것이 아닌데 아까운 물을 그냥 버리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세탁기 사용을 2~3회로 줄이고 손빨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물 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비법을 밝혔다.

화장실 쓰레기 없애기

화장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정토회는 인도식 뒷물하기를 실천하고 있다. 뒷물 시설을 갖춘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화장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위생적이기에 쓰레기를 줄이면서 질병도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좀처럼 썩지 않는다는 일회용 기저귀나 생리대를 면기저귀나 면생리대로 바꾸는 것도 쓰레기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글=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a.com

남긴음식 年 15조, 처리비 8조원
정토회, 실천단구성 범시민 운동

"불교적 삶의 방식 일상생활에 접목"

박석동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불교환경운동의 목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실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쓰레기제로 1080운동'은 불교적 인생관, 삶의 방식을 현실 속에서 구체화시키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박석동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은 "'쓰레기제로 운동'을 일반 시민들에게 확산시킨다면 우리나라 전체 쓰레기가 크게 줄어들어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물자절약에도 크게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한다. 즉 전통발우 공양식 식사, 일회용품 안 쓰기,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발생량 체크 등은 불자들 뿐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조금만 습관을 들이면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박 국장은 "4월 개원한 땅살림생태교육장을 통해 발생된 쓰레기를 퇴비로 이용하는 등 여러 가지 쓰레기 제로화 방법들을 계속 연구, 보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㉓ 제11 견보탑품

견보탑품 증명법화

이 '견보탑품'이 지금까지와 다른 것은 그 다보불(多寶佛)이라는 부처님이 칠보탑(七寶塔) 속에 전신(全身)이 흩어지지 않는 몸으로—석가모니불은 그 사리가 시방으로 분산되어 사리탑에 봉안되었지만— 앉아 계시면서 보배탑과 함께 출현하였다고 하여, 불탑과 결부시켜 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화경〉에는 여러 곳에 탑공양과 조탑공양(造塔供養)이 설해져 있어 이 〈법화경〉의 기반에 강한 불탑신앙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견보탑품'은 그것을 보배탑 출현이라는 극히 구체적인 형식을 취해 설하고 있다.

그런데 다보불에 의한 〈법화경〉이 진실하다는 증명—이것을 증명법화라 한다—은 '서품'에서부터 이 11장에 이르기까지 하신 설법을 진실하다고 증명하는 것이 되므로 이것을 증명하기 이전이라는 뜻에서 '증전(證前)'이다. 여기서 '제16장 여래수량품'에 이르러 지금의 석존은 실제로는 아득히 먼 옛날에 성불하여 지금에 이른다고 하는 본문(本門)의 구원실성(久遠實成)이 밝혀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견보탑품'에서 다보불의 보배탑, 석존의 시방분신(十方分身)의 여러 부처님 등을 실마리로 하여 후의 본문 '수량품'이 불러일으켜지는데 이것을 '기후(起後)'라고 한다. 그러므로 앞의 '증전'과 합하여 '증전기후(證前起後)'라고 하며 다보불의 보배탑을 '증전 기후의 보탑'이라 부르고 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 '11장'이 현재의 형태로 정리되기 전에는 독립된 경전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똑같이 독립된 경전으로서 유포되고 있던 '제바달다품'과 더불어 법사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독송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있다.

불탑신앙 '보배탑출현'으로 설명
다보불 '법화경의 진실성' 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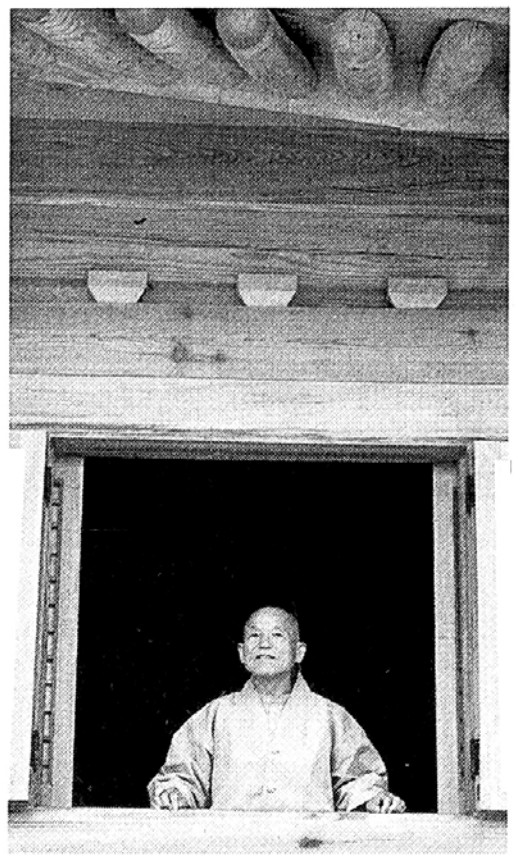
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밝히신 1승진실, 3승방편과 2승작불(二乘作佛)의 설법을 가리키는 것이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형식상이고 실제로는 〈법화경〉 전체의 설법을 진실한 것이라고 증명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다음에 다보불이 계신 보배탑을 열기 위해 석존의 분신인 여러 부처님이 밝혀지고 그 여러 부처님이 와서 모이는 것이 설해지는데 이것을 '기후(起後)'라 칭한다. 여러 부처님이 모임으로써 보배탑이 열리고 석존께서 그 보배탑 안에 들어가 다보불과 자리를 나누어서 두 분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는다. 그 후에 아래에서 설하는 것처럼 석존께서 세 가지의 고칙(告勅)에 의해 부처님께서 멸도한 후의 유통(流通)을 맡을 사람을 불러 모으자 뒤의 '제15장 종지용출품'에서 부처님 멸도 후의 유통을 담당할 보살들이 땅에서부터 출현하고, 이들의 보살들이 모두 전생에서 석존의 제자였음이 밝혀진다. 그러자 이 법회에 모인 대중은 지금의 석존과 땅에서부터 솟아난 지용(地涌)의 보살들과의 결부에 대해 의문을 일으킨다. 여기서 '제16장 여래수량품'에 이르러 지금의 석존은 실제로는 아득히 먼 옛날에 성불하여 지금에 이른다고 하는 본문(本門)의 구원실성(久遠實成)이 밝혀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견보탑품'에서 다보불의 보배탑, 석존의 시방분신(十方分身)의 여러 부처님 등을 실마리로 하여 후의 본문 '수량품'이 불러일으켜지는데 이것을 '기후(起後)'라 한다. 그러므로 앞의 '증전'과 합하여 '증전기후(證前起後)'라고 하며 다보불의 보배탑을 '증전 기후의 보탑'이라 부르고 있다.

그런데 여기 하나의 큰 의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왜 다보여래께서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면 그 어디라도 칠보탑과 함께 출현하여 "〈법화경〉이 진실한 가르침이다"고 증명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 〈법화경〉에서는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다.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인도의 나가르주나 즉 용수보살은 그의 저서 〈대지도론(大智度論)〉에서 말하기를 "그 옛날 다보여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 당시의 중생들의 근기가 미숙하여 〈법화경〉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화경〉을 설하지 못하고 열반에 들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화경〉을 다보여래 자신은 설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진실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화경〉이 설해지는 곳이 있으면 반드시 그 가르침이 진실한 것이라고 증명하겠다고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도 석가모니부처님이 설하시는 〈법화경〉이 진실하다고 증명한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무설정사 조실

"나때문에 불편한 사람 없어야"



◇그냥산을 보고 앉았으면 저 산이 내 산이된다. 그러나 그것을 나만의 것으로 가지려는 순간부터 산에 묶이게된다며 욕심없는 삶을 강조하시는 송암스님.

"산이 참 좋지? 이곳은 어머니 품속같이 고요하고 편안하건서도 생기가 있어. 여기 앉아 산에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 참 좋아. 안개에 싸여 산허리가 반쯤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봉오리 끝만 살짝 보이기도 하고 그만이야."

스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피어오르던 망상이 잠시 산허리를 휘도는 물안개로 향한다. 일순간 마음이 고요해지며 모든게 정지한 듯한 순간이 된다. 한사코 법문할 것이 없다고 하시는 스님에게 은사스님에 대해 여쭈었다. 송암스님의 은사는 당대의 선승이였던 경봉스님이다. 은사스님을 회고하는 스님의 얼굴에 보일 듯 말듯한 미소가 한동안 번졌다.

"우리 스님을 한 3년 모시고 살았는데, 그때는 참 헛되지 않았어….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지금도 그 시절이 새록새록해. 무척 인자하시면서도 서릿발같은 기상을 간직하신 분이었어. 천지를 뒤흔들 정도의 기상 말이야. 그리고 **칭찬을 잘 하시지 않았는데 '공부 더 해라'하는 말씀이 최고의 칭찬이요, 격려였어.**"

스님의 말씀에는 경봉스님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이 역력했다. 경봉스님을 찾는 사람들이 통도사 극락암에는 끊이지 않았다. 특히 스님의 작품을 소장하는 인연이나마 지어보려는 이들이 줄을 섰다. 어떤 날은 보살 한사람이 스님앞에 와서 눈물부터 흘렸다. 경봉스님은 "와 우노?"하고 물었다. "저는 10년동안 스님께 다녔는데 스님 글씨 하나 못얻었으니 이제 집에 못갑니다"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스님은 불편한 몸을 일으켜 글을 써주셨다.

"불자들이 막무가내로 스님의 법문을 청하고 점 하나라도 찍어 달라고 야단들이니 쉬실 수가 없었어. 마음이 아파 차마 볼 수가 없을 정도였지. 그 정도로 우리 스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서 모든 이들에게 자비로우셨지."

스님은 문득 어느 날 새벽 문안을 드리러 갔던 일을 들려주신다.

"게송을 하나 일러주시고는 좋제? 하고 물으시더군. '예'하고 대답을 했더니 내가 나중에 써 주마 하시더군. 나중에 시자가 불러 다시 가보니 '먹 갈아라' 하시대. '뭐하려고 그러십니까' 했더니 아까 그 글 써 주겠다고 하셔. 불편한 몸으로 그러시는 게 송구해 다음에 써 주십시오 했다가 청천벽력같은 고함을 대답으로 듣고 말았지."

그렇게 받은 글이 스님의 방에 걸려 있다. 1977년 1월 10일 이른 아침에 쓴 그 글이 시공을 넘어 경봉스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 경봉스님의 평등심과 자비심에서 스님은 절 문턱이 높으면 안 된다는 것과 불법은 차별이 없음을 체득했다. 그래서 지금도 스님은 찾아오는 이면 누구나 만나 삶의 지혜를 일러준다. '제 분수를 지키며 살아라'거나 '마음 자리를 잘 살펴라'하는 간단한 말로 요약되는 스님의 법문은 많은 이들이 생활 속에서 불법의 깊은 맛을 보도록 이끌고 있다. 스님의 법문은 차맛을 닮았다. 차는 이미 목으로 넘어가고 없는데 그 향과 맛이 오래 남아 입안 가득 되고이는 맛과 향.

"마음 공부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 아무나 할 수가 있어. 먹물옷 입고 머리를 깎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가능한 거야. 중국이나 우리 나라에도 방거사, 부설거사 등 멋진 분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나 생활하면서 잘 안되니 야단들이지."

"찾아 올 것 없어. 산속에 사는 늙은이 찾아와서 뭘 하려고 그래."

그러나 여름 장마처럼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죽림정사를 찾았다. 죽림정사를 병풍처럼 둘러싼 대숲의 푸른 바람이 쏴아아 쏴아아 비소리를 보태며 기자를 반겼다. 분명 그렇게 느꼈다. 차에서 내리자 법당의 문이 열려 있고 스님 한분이 밖을 내다보고 계셨다. 송암스님이셨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 뭐하러 찾아왔어? 나는 공부한 것도 없고 부처님밥만 축내는 사람이라 할 말이 없으니 감은사지 탑에 가서 무언의 설법이나 듣고 가." 한동안 말을 잃고 비소리만 듣고 있자니, 스님은 "정 법문이 듣고 싶으면 문무왕릉에 가서 파도소리 듣고 가라"고 하신다.

스님께서 주석하시는 죽림정사는 감은사지와 문무대왕릉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스님은 짐짓 그같은 말씀으로 번거로움을 피해보시려 함이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지금 현재 뵙고 있는 스님의 모습에서 감은사지 탑을 보아야 할것이고 스님의 음성에서 문무왕릉의 파도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감은사지 석탑에 간들, 또 끝도 없이 이어지는 동해 앞바다의 파도를 본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때마침 거센 바람이 앞산을 향해 난 창문 한짝을 열어 젖혔다. 쏴아아— 빗소리가 높아지며 바람이 시원하게 밀려온다. 창문을 등지고 있다 몸을 돌려 열린 창으로 보이는 앞산에 눈길을 주자 스님은 생각난 듯 말문을 열었다.

밥 먹을 때 길을 걸을 때 그것 하는 놈이 무엇인가 관하고 살펴야 돼 그것이 참선이야

가까이서 뵌 큰스님

송 암 스 님 (죽림정사 조실)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제 분수를 잘 지키고 자신의 마음자리를 잘 살피면 그것으로 그만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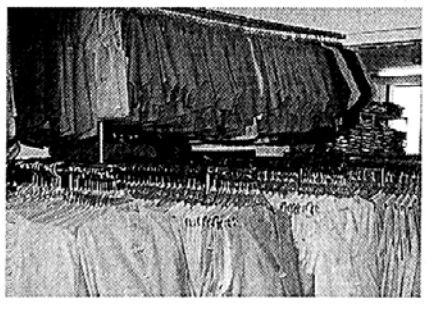
"관심일법(觀心一法) 총섭제행(總攝諸行). 이 말속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어. 이렇게 안되니까 이런저런 말이 생기고 갖가지 수행법들이 생긴거지. 밥 먹을 때나 걸을 때 그것을 하는 놈이 무엇인지 관하고 살펴야 해. 그것이 참선이야. 그렇게 참선을 잘하면 흐릿한 정신이 맑아지고 정신을 차려서 살 수가 있게 돼. 일부러 좋은 일 하려고 하지 말고 잘 살펴 나쁜 일을 하지 않는게 출발이야. 또 나로 인해 불편한 사람 만들지 않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야. 그리고 천당에 가서도 내 마음 편치 않으면 그곳은 지옥이 되듯이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괴롭게 살지 말아. 그런 어리석음에서 깨어나려면 일체를 하는 그놈을 관해야 하는 거야. 그것이 진정한 참선인 거지."

스님은 마음 공부란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집에 비유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 집을 지키는 주인이 정신이 또렷하고 눈이 초롱초롱하면 도둑이 함부로 그 집을 넘볼 수가 없겠지? 그 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훔쳐갈 수 있겠어? 그러나 대궐같은 집에서 살더라도 그 집을 지키는 주인이 흐리멍텅하고 정신을 딴데 빼앗기고 있다면 도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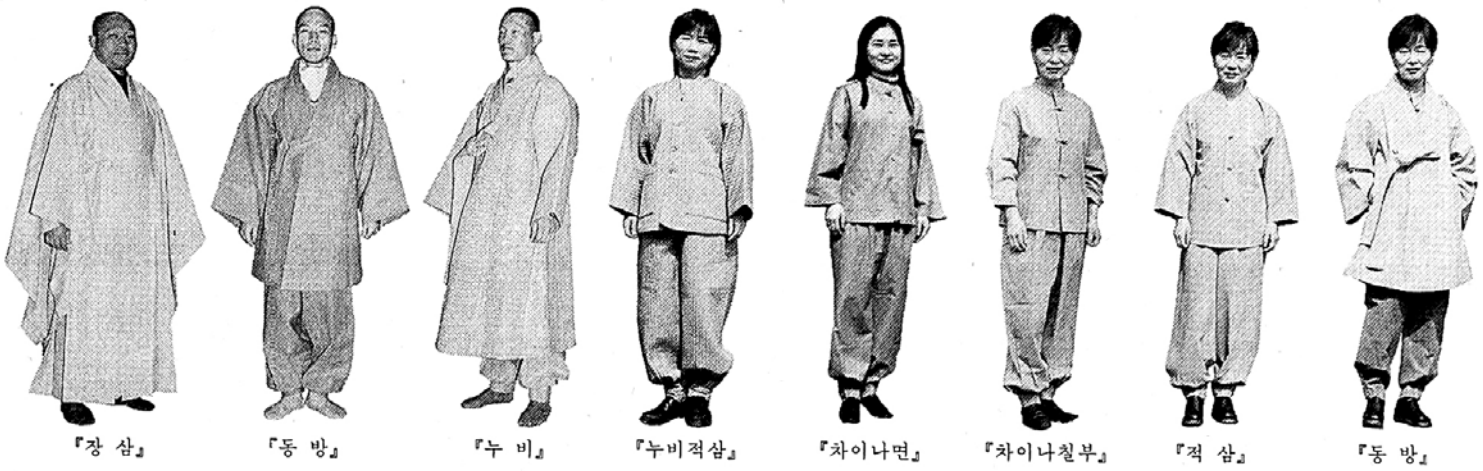
천개불심





천개불심 佛心

천개불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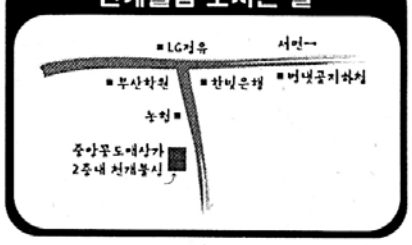


『장 삼』 『동 방』 『누 비』 『누비적삼』 『차이나면』 『차이나칠부』 『적 삼』 『동 방』

삼보에 귀의합니다.
천개불심은 승복(법복)의 대명사입니다.
저희 천개불심은 불심(佛心)을 바탕으로 승복문화를 새롭게 열어가는 업체입니다.
한벌의 옷을 짓는 마음에는
가족을 위한 바느질의 정성과도 같은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입을 옷을 짓는 정성이 한땀 한땀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불심이 깃든 승복(법복)을 수하십시오.
불세계로의 출발이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천개불심으로 오십시오.
대 표 문 수 환 합장

천개불심 오시는 길



승복,법복,각종소모품일체납품/부산광역시 진구 범천동 중앙시장2층 한약상가 16호 ※ 전국 불교용품점에 가시면 만나실수 있습니다.
www.cgbulsim.co.kr/ 051-633-2247 / 051-644-2246 / 011-835-9757

어떤 것이라도 훔쳐갈 수 있는 이치와 같은 것이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뜻대로 부리지 못하고 탐진치에 수시로 도둑 맞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경책이다.

스님은 이어 "눈에 보이는 것은 거짓말을 많이 하며 말도 거짓이 많다"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에도 속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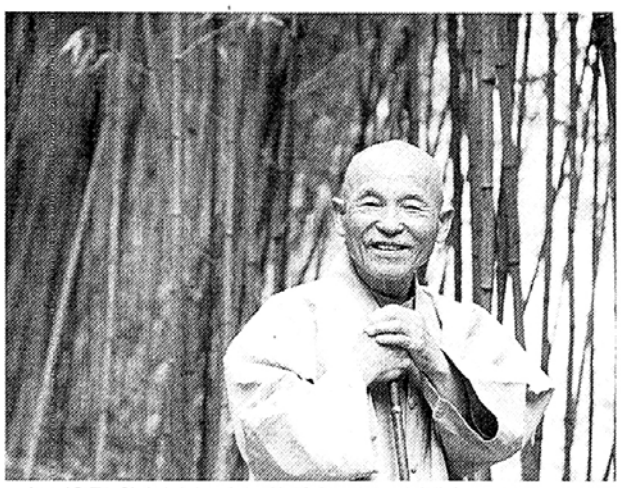
"육근이라고 하는 놈은 거짓이 많아. 눈은 안 보아도 될 것은 더 잘 보고, 귀는 안들어도 될 말을 더 잘 듣고, 입도 안덕어도 될 것을 더 잘 먹고, 몸은 안해도 될 행을 더 잘하거든. 그러니 이 모든 것을 하는 그 놈이 무엇인가를 관하고 참구하는 참선을 통해 생사를 뛰어넘고 궁극의 문제를 해결해야 해. 육체의 유한성을 뛰어넘어 영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야."

스님은 가로수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인간의 몸도 숨 들이쉬었다 내쉬지 못하면 송장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했다고 한다. 육체의 유한성을 자각하면 영원에 대한 참구는 간절해진다. 발심이 더욱 깊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정각을 이루려는 간절한 초발심을 잃지 않는 것이 불가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로 여겨진다.

스님은 "처음 출가해서 배우게 되는 초발심자경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부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부처되는 길이 그곳에 모두 들어 있는데 발심이 제대로 안되니 길을 자꾸 벗어나 엉뚱한 길을 헤매게 된다"고 발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순간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첫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며 초심을 견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부할 때 일어나는 망상도 첫마음을 잃어 버린데서 생기는 거야. 망상에 속으면 안돼. 길을 걷다 헛발을 디뎠으면 다시 가던 길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지, 헛발을 디딘 것에 집착해선 안되거든. 당상을 없애려고 하지말고 망상을 피는 그 놈을 관하기만 하면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그러면 망상을 끊어야지, 없애야지 씨름할 필요 없이 저절로 망상이 사라져."

스님은 삼재기도나 사주 팔자 모두가 마음의 장난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죽림정사나 스님이 20년 동안 암주로 있었던 대둔산 내원암에는 삼재기도가 없었다. 하루는 신도 한사람이 찾아와 "스님, 집에 삼재가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절에는 삼재기도 안합니까?" 하고 묻자 스님은 "삼재가 어디 있는지 한번 내나 봐라. 그러면 내가 없애 줄테니" 했다. 다급해진 신도는 집에 놓고 왔다고 했고 스님은 집 어디에 두고 왔느냐고 호통을 쳤다. 그 신도는 엉뚱하게도 "장롱 속에 넣어두고 왔다"고 대답을 해서 한바탕 웃었다. "삼재는 마음이 만드는 거야. 스스로 마음에 지어 놓고 자신을 괴롭히는 거지. 그러나 이렇게 말해줘도 자신의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삼재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지."



◇스님은 공부할때 일어나는 망상도 첫마음을 잃어버린데서 생기는거라며 "순간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첫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며 초심을 견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다.

제 분수 · 마음자리 잘 살펴야
'삼재' · '사주팔자' 마음의 장난

생각으로 짓는 지옥을 없애주려는 스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삿날이 언제가 좋은가 물으면 비 안오고, 식구들 일손이 충분한 날 하면 좋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사주나 팔자를 봐 달라고 하는 이가 오면 얼굴을 쳐다보곤 다 봤으니 가보라고 돌려보낸다. 그러나 그것은 '돌려보냄'이 아니라 본래의 마음자리로 '돌려세움'이 아닐까 싶다.

95년 경봉스님을 시봉했던 스님과의 인연으로 이곳에 절을 짓게 된 스님은 상좌없이 '보리'라는 개와 함께 살고 있다. 먹을 것이 있으면 한끼 밥해 먹고 형편 닿는 대로 살고 있다는 스님의 검소한 삶이 오히려 풍족해 보이는 것은 왜일까?

"사람들한테 저 산이 내꺼야 그러거든. 그러면 사람들은 저 산을 샀느냐고 물어봐. 저 산 주인은 땅문서 보관하느라 고생이지만 나는 그런 걱정 없이 저 산을 보고 앉았으니 내 산이지. 허허허. 모든 게 내 것 아닌 것이 없어. 그러니 가지려고 욕심부리지 않아도 부자가 되는 거지."

점심 공양 후 스님의 이야기같은 법문을 듣고 있으니 언제까지라도 올 것 같던 비가 그치고 거짓말처럼 햇살이 내렸다.

스님은 넓지 않는 도량 이곳 저곳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법당 뒷켠으로 심어진 소나무와 할미꽃, 이름을 알 수 없는 야생화, 돌멩이 하나 잡초 하나까지 소중하지 않는 게 없는 듯 소개를 하신다. 식구를 소개하듯이. 마당에는 손수 화분에서 옮겨 심은 꽃이 피어있다. 법당 앞에서 스님은 "밤이 되면 달빛이 그림을 그려. 이 법당벽에다 벽화를 그리는 거지" 하신다. 달빛을 배경으로 나무 그림자가 벽에 비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셨을 어느 밤의 스님 모습이 그려진다. 비가 그치니 대숲에 이는 바람소리가 더욱 맑게 마음을 씻어준다.

스님은 하루 전 일어난 비행기 추락 소식을 접하신 듯 사고의 대부분이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미비점이 많잖아. 한국 방문의 해니 월드컵이니 말로만 떠들지 말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해. 사고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아 생겨. 관제시설이나 조종사의 비행 기술 등 뭐든 사람이 자신을 잘 살펴보고 정신을 차려 일을 처리하면 방지할 수 있는 사고가 많아."

사람만이 희망이라 했던 어느 시인의 말처럼 희망이 되는 사람, 정신이 맑은 사람을 내 몸의 주인으로 삼아야 혼돈과 전도된 가치속에 살고 있는 삶에 희망이 있다는 호통이다.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은 하나야. 수행 잘 하라는 것이지. 처음부터 계율 따로 있고, 뭐 있고 했는게 아냐.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수행하다 보니 지장이 생겨서 계율이 생겨난 거야.

어떤 사람이 어디가서 딴 짓하고는 장모님 돌아가셔서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해 봐. 그러면 다음에 진짜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잖아. 결국엔 거짓말이 습이 되어 자신을 구속하는 감옥이 돼. 그것을 방지하고 근원을 없애는 것이 계야.

결국 중요한 것은 수행이야. 자신이 왜 절에 다니는지 깊이 참구해 봐. 그것이 발심이야.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순간이 바로 진정한 발심의 순간이야.

그것이 참선의 시작이고 공부의 시작인 것이지. 그렇게만 되면 공부는 저절로 진행되고 진정한 불교인, 수행인이 되는 거지."

글=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송암스님은?



스님은 당신의 살아온 발자취나 수행이력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으려 했다. "고향도 모르고 왜 출가했는지 아무 것도 몰라. 지금 현재 여기 내가 있다는 것만 확실할 뿐, 그 외엔 모든 게 거짓이야. 내 모습도 참이 아니며 내 말도 거짓이 많아. 그러니 겉 모습에 속지 마." 늘 눈에 보이고 이름 붙여진 것에 익숙해진 우리들에게 스님의 이 같은 말씀은 당혹스럽다. 그러나 스님의 지나온 수행이력을 알지 못해도 지금 바로 여기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는 확연한 현실만으로 충분했다. 소중한 일이었다. 세수 일흔 아홉. 팔순을 바라보는 스님의 현재 속에 녹아 있는 과거와 미래를 죽림정사를 찾는 많은 후학들이 눈치챘고, 가르침을 구하는 그들의 발걸음이 잦아지고 있다.

송암스님의 크지 않는 방 벽에는 경봉스님의 사진과 글이 걸려 있고 한쪽에는 경봉스님이 쓴 반야심경으로 제자가 직접 나무로 만들어준 병풍이 소담하게 놓여있다. 돋보기는 한쪽 알이 깨어진대로 그냥 놓여 있고 그 이후로 스님을 책을 보지 않는다. 스님의 일상은 그처럼 형편따라 자연의 순리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왜 출가했는지 몰라, 여기 있다는 것만 확실"

설곡스님의 스님이야기

경희 스님



(전호에서 계속) 스님과의 특별한 인연은 오랜 세월 지속되고 있다. 내가 대구 주변의 시골 절에서 주지소임을 보고 있을 때, 스님은 나를 불러 청년회 법회를 맡아서 설법을 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셨다. 그 뒤 매주 수요일 저녁 청년법회를 5년 정도 한번도 빠짐없이 계속하게 되었다.

나는 그 청년회 법회를 성의를 다해 준비하고 이끌었다. 사실 청년들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주역이라는 점에서 미리 가꾸어야 할 중요한 인물들이다. 그러나 대다수 사찰에서는 청년법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적으로 당장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돌보지 않는다면 내일의 우리 불교는 어디에 희망을 둘 것인가. 젊은이가 없는 집안은 대가 끊어지고 만다. 청년불교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경희스님께선 청년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 가지로 청년들을 도와주고 지원해 주기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청년회에서



법문을 할 때면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내가 하는 말을 경청하셨다. 그리고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법문이 끝나면 내 설법이 부처님법에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말이 너무 빠르거나 행동이 경솔하지는 않았는지, 어떤 점을 고쳐야 하는지 등등을 여쭙곤 했다. 그때마다 스님께선 어떤 점은 좋고 어떤 점은 어색하다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다. 스님의 그러한 성의있는 지적은 내가 설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스님의 격려와 칭찬이 나로 하여금 더욱 성의있는 설법준비를 하게 했고, 해를 거듭할수록 설법도 깊이를 더해 갔다. 그 결과 그 청년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출가해 비구, 비구니스님이 되었다. 10여 명도 넘는 그들은 지금 전국에서 정진하며 포교하고 있으니 모두 스님께서 청년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베푸신 은덕이라고 생각한다.

나중에는 매월 신도법회에도 나를 청해 법문하게 하여 여러 해를 계속했다.

스님은 항상 말씀하셨다. "무엇이든 스님이 하겠다면 다 도와드리겠으니 말씀하십시오. 장가가는 일만 빼고 어떤 일이든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처럼 스님은 내가 어려울 때 여러모로 나를 도와주셨다. 내가 힘들어 할 때면 어느새 먼저 알고 불러서 정중하고 간절하게 중노릇 잘할 것을 신신당부하시곤 했다. "스님은 종단의 보배같은 사람입니다. 스님같은 사람이 설법을 잘 해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몇 년을 두고 해마다 명절이면 내가 거주하는 절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라고 명절 음식을 정성스레 보내주시곤 했다. 철이 바뀔 때면 장삼이나 옷을 준비하여 주곤 했는데, 그럴 때면 반드시 잊지 않고 중노릇 잘할 것을 간곡히 당부하셨다.

"출가 생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구스님이 되려면 몇 생을 수도해야 합니다. 숙세(宿世)의 선근이 있어야 하지요. 더욱이 스님은 설법을 잘하니 선근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부디 공부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수행해서 불조의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스님의 말씀이 얼마나 간절하던지, 그러한 간절한 당부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기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경희스님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창설된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의 발기인이다.

"우리 스님네가 신도들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마다 스님들이 각기 다르게 가르치니 신도들이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 신도들을 한 곳에 모아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라고 늘 말씀해 오늘의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와 대구불교교육원이 있게된 것이다.

청년회에 아낌없는 지원
신도교육, 노인복지에도 관심

스님은 솔선수범하여 보시하고, 사심없는 결정으로 대구불교연합회를 운영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구에는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양로원이 한 곳 있다. 화성양로원이다. 본래 대구의 몇몇 스님들이 정재(淨財)를 보시하여 건립한 것이지만, 운영 미숙으로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다가 스님께서 인수해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

칠팔십 명의 노인들을 돌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스님은 "노인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우리도 언젠가는 늙고 기운 없어지면 다 저렇게 된다. 자비심으로 잘 보살펴 드려야 한다"면서 자주 양로원에 들러 노인들의 손을 잡아주시곤 한다.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만을 돌보며 사는 세상에 스님같이 살아가는 수행자는 많지 않다. 자신의 건강이나 안위를 돌아보지 않고 사회와 이웃에 따뜻한 마음을 베풀며 살아가는 스님은 우리 사회의 소금이며 목탁이다.

나는 은사나 스승에게도 못하는 말을 경희스님에게는 스스럼없이 하곤 한다. 스님은 내게 수행자로 살아온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게 하고 오늘 서있는 자리를 살펴보게 하는 선지식으로 남아 가장 진실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이다.

구미 영명사 주지

실크로드 여행사 조계사 앞 확장 이전

오대산. 운강석굴 6일

■ 출발일 : 2002년 5월 23일, 30일 출발 - 95만원! ■ 오대산의 가장 좋은 계절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 · 운강석굴 순례!! 6일

- 제1일 : 인천 - 북경 - 석가장 · 인천출발 : 중국의 수도 북경 도착, 북경출발 석가장 도착 후 호텔투숙
- 제2일 : 석가장 - 오대산 · 조주선사의 관음 원인 백림선사, 임제선사의 임제사, 개봉사 등 순례
- 제3일 : 오대산 · 오대산중대, 현통사, 보살정, 탑원사, 수상사, 대라정, 용천사, 금각사 등 순례
- 제4일 : 오대산 - 대동 · 응현 목탑, 현공사 등 순례
- 제5일 : 대동 - 북경 · 운강석굴, 화엄사 등 순례
- 제6일 : 북경 - 인천 · 자금성, 천안문광장 등 순례

● 포 함 사 항 : 항공, 호텔, 식사, 입장료, 비자비, 인천공항세, 중국공항세, 보험료 등
※ 구 비 서 류 : 여권만 제출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분은 연장해야 함)
※ 여권이 없는 분은 여권용 사진 2매, 주민등록증 원본, 주민등록등본 1통, 인지대 5만원

구화산, 황산 4박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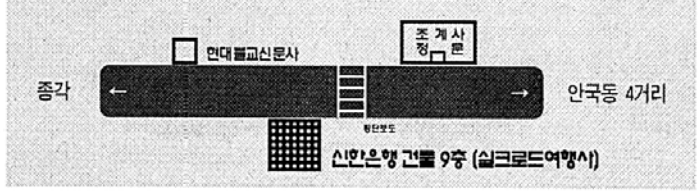
▶출발일 6월 4일 - 8일 ▶순례비 : 87만원

선종사찰순례 10박11일

▶출발일 : 6월 13일 - 23일

초조 달마대사의 소림사, 2조 혜가대사의 이조사, 3조 승찬대사의 삼조사, 4조 도신대사의 사조사, 5조 홍인대사의 오조사, 6조 혜능대사의 남화사, 운문사, 진여선사, 임제선사의 임제사, 조주선사의 백림선사등 이외 중국 선종의 발자취 순례

실크로드를 아껴주시는 대덕 큰스님과 불자님들의 도움으로 당사 사무실을 조계사 앞으로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항상 성원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크로드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이상원 합장



(주) 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아미산. 대족석굴 5일

■ 순례기간 : 2002년 5월 22일 출발 - 87만원!

- 제1일 : 인천 - 중경 · 아령공원, 양자강, 조천문 부둣가 등 순례
- 제2일 : 중경 - 대족 - 아미산 · 중국 사대 석굴 중 하나인 보정산 석각, 대족석굴 순례
- 제3일 : 아미산 · 보현보살 도량인 아미산 금정 등정, 와운암 화장사, 만년사, 보국사 등 순례
- 제4일 : 아미산 - 낙산 - 성도 · 높이 71m의 낙산대불, 무후사 등 순례
- 제5일 : 성도 - 인천 · 두부초당 순례 후 인천 도착

티베트. 수미산순례

짙푸른 하늘 아래 눈부신 황금탑과 거대한 포탈라 궁전, 전설의 불교왕국, 신들의 세계등 티베트는 신비의 베일에싸인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순례는 부처님의 세계로 불리우는 수미산과 아뇩다지로 지칭되는 마나사로바 호수등 경전상에 나오는 수미산의 세계를 찾아보는 일정으로 특히 올해는 12년만에 한번 맞는 성스로운 해로 업장소멸 및 수미산의 신비로운 기운과 영적인 세계를 탐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수미산 순례 17박 18일
▶ 출발일 : 6월 15일 - 7월 2일 ▶ 순례비 : 359만원
▶ 일 정 : 인천 - 성도 - 라사 - 시가체 - 라체 - 사가 - 파양 - 마나사로바호수 - 수미산 - 파양 - 사가 - 라체 - 시가체 - 라사 - 성도 - 인천

■ 티베트 일주 10박 11일
▶ 출발일 : 6월 15일 - 6월 25일 ▶ 순례비 : 239만원
▶ 일 정 : 인천 - 성도 - 라사 - 티베트 최초의 삼예사원 - 갼체 - 시가체 - 시가 - 장무-카투만두-인천

호암미술관 20돌 기념 한국미술 명품전

국보·성보문화재 등 160점

연말까지 … 주말엔 전시작품 설명도

교과서에 실린 문화재를 비롯해 국보급 불교공예와 조각, 사경작품 등 불교와 한국전통미술의 아름다움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삼성문화재단 호암미술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마련한 '한국미술명품전'이 12일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옆 호암미술관에서 시작돼 12월 31일까지(매주 월요일 휴관) 계속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보 32점과 보물 38점 등 모두 160여점이 선보인다. 이 중에는 불교 공예와 조각 29점, 전적과 사경 6점, 서화 23점, 고분에서 출토된 금속공예품과 토기 55점, 청자 24점, 분청사기 16점, 백자 35점 등이 포함돼 있다.

불자들이라면 1층에 마련된 '불교미술실'에 가장 발길이 오래 머물 것 같다. 아름답고 화려한 불상과 탑, 불화, 사경작품 등 쉽게 접하기 힘든 걸작을 만날 수 있다. 특히 하나의 커다란 광배(光背)에 본존불과 좌우보살상을 조각한 형태의 삼존불(三尊佛)로 현존하는 같은 형식의 불상 중에서 가장 큰 '금동무량수삼존불입상(국보 85호)'에서는 유연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 화엄종의 근본경전인 '감지은니 대방광불화엄경(<권31> 국보 215호)'은 표지에 금은색의 꽃무늬가 묘사돼 있어 굳이 제목을 보지 않더라도 금방 찾을 수 있다. 아래층 기단의 각 면에 등근테를 두른 연꽃잎이 새겨져 고려시대 석탑 양식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금동대탑(국보 213호)'을 유심히 보면 머리장식의 일부가 사라져 현재는 5층의 탑신만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 금동여래삼존상(국보 134호), 아미타삼존도(국보 218호), 금동관음보살입상(보물 927호), 지장도(보물 784호) 등도 눈여겨 볼만한 성보문화재들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청화백자매죽문호(국보 219호)', '가야 금관(국보 138호)',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216호)', 단원 김홍도의 '군선도(국보 139호)' 등 국사교과서에서 사진으로만 보던 문화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031)320-1801.


◇검푸른 종이에 금은가루를 사용해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쓴 두루마리 형태의 '감지은니 대방광불화엄경 <권31>' (국보 215호)


◇높이 155㎝의 큰 규모로 머리장식의 일부가 사라지고 5층의 탑신만 남은 금동대탑.(국보 213호)

문화 담당= 김주일 기자 jkim@buddhapa.com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서산 개심사에 갔다. 온갖 나무들마다 새싹이 돋아나, 봄 햇살 아래 빛나는 들판은 마치 레몬 빛이 감도는 연초록 바다 같았다. 동구 입구에는 '개심사'와 '세심동(洗心洞)'이라 적힌 입석 두 개가 나란히 서서 일주문을 대신하여 맞아주었다. 숲 사이로 난 돌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가 마침내 절 입구에 다다르니, 바른편에 있는 긴 사각형 연못이 손짓하며 불렀다. 연못 안에 놓인 바위에 파인 글자를 유심히 살펴보니 '鏡池(거울못)'라고 적혀 있었다. 무얼 비춰보라는 것인가? 법당으로 올라가려면 연못을 가로지르는 통나무 다리를 건너야 한다. 혹시 떨어질까 조심하며 좁은 다리를 건너는데, 마침 물 위에 비친 내 그림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다리를 건너다 제 그림자를 보고 깨달음을 얻어 지었다는 동산양개 선사의 게송(過水睹影)이 떠올랐다.

결코 남에게서 찾지 마라
아득히 나와 멀어진다
나 이제 홀로 나서니
가는 곳마다 '그(彼)'를 만난다
나 아닌 '그'가 바로 나이고
지금 나는 '그(진짜나)'가 아니다
이렇게 깨달았을 때
그게 내 얼굴이다

동산의 '물그림자'

지금 나는 그가 아니다
이렇게 깨달았을 때
그게 내 얼굴이다

그 자리에 가만히 푸그러 앉아 물 위의 그림자를 보며 말을 건넨다. "내 그림자야, 너는 내 것인데, 나는 네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문득 뒷덜미에 어떤 시선을 느꼈다. 그 시선의 임자가 내게 말한다. "내 그림자야, 너는 내 것인데, 나는 네 것이 아니구나." 뒤돌아보니,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나도 누군가의 그림자인가? 서산대사는 임종 때, "팔십 년 전에는 '그'가 나이더니, 이제는 내가 '그'로구나." 하는 말을 남겼다.

연못을 건너 계단을 올라서니 축대 위에 지어진 종루의 기둥이 특이했다. 무거운 종과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네 개의 기둥이 하나 같이 뒤틀린 나무들이었다. 올라오면서 길가에서 보았던 휘어진 소나무들 모양 그대로였다. '기둥은 곧아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깬 파격적인 작품이었다. 안양루를 끼고 해탈문을 지나 안마당으로 들어서니 고풍스런 심검당의 기둥과 대들보들도 한결 같이 굽은 나무들로 지어져 있었다. 그 기둥과 벽면과 대들보와 문짝과 창문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절묘한 조화와 비례의 콤포지션은 소박한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절 안팎을 둘러보니 유난히 꽃나무가 눈에 많이 띄었다. 자목련과 흰동백은 꽃잎을 떨구고 있었고, 그 유명한 왕벚꽃은 꽃잎을 막 터뜨리는 참이었다. 뒤란에는 작약이 계절의 여왕 5월을 기약하며 쑥쑥 자라고 있었다. 극락정토로 만들려는 염원에서 이 모든 건물을 배치하고, 연못을 파고, 철마다 번갈아 꽃피우는 나무들을 골라 심은 디자이너의 심성과 미적 감각을 생각하니 잔잔한 감동과 고마움이 바람에 날리는 벚꽃 비처럼 가슴을 적셔왔다.

■문학평론가


◇동서남북과 중앙의 다섯 방향 즉 우주를 향해 달리는 말을 표현한 '우주의 탄생'

말 소재 '吉祥圖' 200점 전시

지형스님 1일부터 롯데호텔서

10년동안 갑상도만을 화폭에 담아온 지형스님(서울 소림정사 주지)의 '대길상도전'이 5월 1일부터 5일까지 서울 잠실 호텔롯데월드 3층 특설대법회장 전시관에서 대규모로 열린다. 7회째를 맞이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100마리 말이 달리는 모습을 화폭에 담은 '대용마도(大龍馬 圖)'를 비롯해, 힘차게 도약하는 말의 기상을 표현한 '만마장성도(萬馬長城圖)', 중생의 성불을 상징하는 '금용등천도(金龍登天圖)' 등 200여 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지형 스님은 말(馬) 그림 이외에도 힘찬 비상을 상징하는 '독수리'와 무병장수를 염원하는 '도화도(桃花圖)' 등도 선보여 작품 영역이 다양하고 넓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형스님은 "힘차게 달리는 말 특유의 강한 생명력이 갖가지 번뇌에 싸여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길 발원하고자 말을 소재로 한 그림을 주로 그려왔다"고 말했다. 한편 지형스님은 임오년 말의 해를 맞아 2월 인사동 경인미술관 특별초청으로 '길상의 아름다움, 천마도전'을 열었다. (02)511-6210


◇축구공과 '空'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공을 들고온 달마'.

월드컵·달마 주제 – 공·다르마展

동성스님 100점 출품 … 한·일서 전시

달마야 축구하고 놀자. 달마대사가 축구를 하면 어떤 모습일까.

2002 한일 월드컵 대회를 맞아 '월드컵과 달마'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한국과 일본에서 잇달아 펼쳐진다. 달마도 화가 동성스님(경남 마산 봉국사 주지)이 24~3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월드컵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공-다르마 전'을 기획한다.

전시되는 작품들은 월드컵을 상징하는 축구공과 달마 그림을 그린 것으로 '혜가가 달마에게 바치는 공', '달마가 공을 든 까닭은', '공을 들고온 달마', '공을 깨고 나온 달마' 등 1백여점이다.

이번 전시회는 동성 스님이 지난 2001년 11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한·일 월드컵 기념 미술대전'에 초대작가로 작품을 출품하며 월드컵의 평화이념과 구도정신이 인류의 이상세계를 추구한다는 점에 영감을 얻고 1년에 걸쳐 기획했다.

동성 스님은 "세상의 모든 것이 인연법에 따라 흩연히 모이고 흩어진다는 연기론의 '일체개공(一切皆空)'의 진리를 축구공을 예로 들어 표현했다"고 작품을 설명한다. 5월21일부터 6월9일에는 일본 교토 고태사에서도 전시회가 열린다. (02)736-2585


◇불교목판화가 강행복씨의 '달마찬(達摩贊)'

서울 판화미술제 28일까지

강행복 씨 등 중진·신인작가 작품 선보

한국판화미술진흥회는 20일부터 28일까지 예술의 전당 미술관 전관에서 '서울판화미술제'를 연다. 이번 전시회에는 원로 판화작가 황규백씨를 비롯해 불교목판화가로 활동해온 강행복씨(나이테 판화공방 대표), 임병중, 박선주, 리차드 스페어, 아르망, 크리스토 등 국내외 중진작가와 신인작가 2백여명의 작품이 선보인다.

지하철 '풍경소리' 포스터 판화 삽화 등 15년동안 불교목판화 작업만을 해온 강행복씨의 작품이 있는 2층 D7 전시실에 가면 달마대사 옆에 '날마다 좋은날(日日是好日)'이 한문으로 각인된 '달마도', 차 마시는 풍경을 조각한 '다선일여',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등 15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02)518-6323

심곡암 4계 카메라에 담아

전제우 씨 사진展



불교사진작가 전제우씨의 두 번째 개인 사진전 '심곡암 이야기'가 5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북한산 심곡암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심곡암의 사계절과 '참선', '기도'를 주제로 한 수행자들의 정진 하는 모습 등 41점의 작품들이 소개된다. 사진은 '송림(松林) 사이의 해돋이'.

"자비의 등 지혜의 등" – 온 불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 이있습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 (만월등)

시공된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접등 팔모조립등 공단등



만월등

종등 신제품 • 실용신안 등록 • 의장출원

• 종 소리는 지옥 중생을 구제하고 악업과 고통을 멈추게 한다고 하여, 옛 사람들은 초파일 전에 종등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뜻을 전하고자 찬덕연등제작사에서는 '부처님오신날' 각종 법회 및 행사에 쉽게 장엄할 수 있는 신제품 종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종등 보관상태





◆연꽃잎 제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5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031)792-6288, 794-4055
찬덕 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

건강한 삶 위한 마음운동 '명상'

마음을 다스리는 티베트 명상법

조셉 아르파이아 · 롭상 락가이 지음 / 서보경 옮김





흔히 명상이라고 하면 익숙하지 않은 자세로 앉아 생각을 집중하는 일종의 종교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티베트 명상법〉(지혜의 나무)에서는 명상이란 신체 운동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운동'이라고 말한다. 명상을 통한 간단한 다음 운동으로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첨학과 의학을 공부하고 달라이라마의 보좌관이며 티베트 승려였던 롭상과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지만 15년 동안 명상 수련을 해오면서 심리학과 의학을 전공한 조셉이 티베트 사상과 현대인의 사고방식을 통합하는 명상체계를 공동 연구하여 특별한 명상법을 소개한다.

지은이는 명상이란 정신을 단련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편이며, 특정 종교에 소속되거나 유별난 생활 방식이 아니라고 말한다. 원제인 〈서구인을 위한 티베트의 지혜〉에서도 보듯이 명상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명상이 일종의 종교행위라는 편견을 가진 사람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실용적인 명상 안내서다.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에게 하루에 15분만 투자하면 누구나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의 마음을 조절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책에서는 마음중심두기와 마음수반하기, 마음집중하기 등 16가지 명상법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각 장마다 세 아이의 아버지인 브라이언과 기독교인인 마리아라는 초보 수련자의 변화와 명상 수련 과정을 담아 그들이 명상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성공적인 결과들을 공유할 수 있게 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명상보다는 자신의 건강, 일의 성취, 긍정적 · 적극적 사고방식을 얻기 위한 명상법을 소개하고 있다. 값 1만2천원.

초심자도 쉽게 활용 가능한 안내서

'마음 집중하기' 등 16가지 방법 소개

출판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맑은 바람이 그대를 깨우거든

이덕무 외 · 이강엽 편역



우리의 고전 문학은 고등학교 국어시간에 배운 것을 제외하고는 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명문장이나 아포리즘이라고 하면 서양 문호들의 글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우리의 고전문학에서도 명문장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강엽이 편역한 〈맑은 바람이 그대를 깨우거든〉(웅진닷컴)에는 이덕무, 정약용, 박지원, 신흠 등 우리 선인들의 고전 산문 중 맑고 깊은 사색이 담긴 명문장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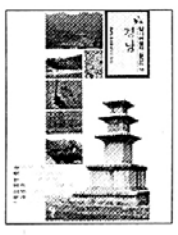
이 책에 실린 작가들은 대부분 고난의 세월을 살았다. 최치원은 자신을 옭아매는 신분의 한계 때문에 좌절했고 정도전은 조선 건국의 전면에 나섰지만 참수를 당했다. 이런 편치 않은 삶이 그들이 더욱 빛나는 글을 만들어내게 하기도 했다. 전란 중에도 꼬박꼬박 일기를 쓴 충무공, 옥중에서 〈성옹지소록〉을 쓴 허균 등이 그런 예이다.

책에는 이들이 써내려간 자연과 예술, 무소유와 청빈에 관한 글(1,2장)과 그리운 이들에 대한 사무치는 정을 노래한 글(3장), 스스로를 경계하고 자신을 다잡는 글(4, 5, 6장) 등이 어우러져 있다. 값 7천원.

先人들 사색 담긴 명문장 모음

답사여행 길잡이 14 경남

한국문화유산 답사회 엮음



우리의 문화유산과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답사여행의 길잡이' 시리즈 열네 번째 권 〈경남〉(돌베개)이 나왔다.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모태 삼아 문화를 일구어온 경남지역의 답사여행 안내서이다. 경남 문화의 중심 도시 창녕과 밀양, 태평양으로 연결된 한반도 남쪽 관문 울산과 양산 · 부산,그리고 가야의 원형을 간직한 김해 · 창원, 함안 · 의령 등 6개의 답사여행 코스가 소개돼 있다. 60여 곳의 문화유산 현장을 담은 230여 컷의 생생한 사진과 40여 개의 크고 작은 지도와 배치도 등 다양한 여행정보를 통해 경남지역을 안내하고 있다.

'제2의 경주'라 불리는 창녕에서는 비화가야의 영화를 가늠해볼 수 있는 교동 · 송현동 고분군과 찬란한 신라 불교 문화의 산물인 술정리 동서삼층석탑, 송현동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다. 산지 많은 양산의 대표 답사처로는 희서산 자락의 불보사찰 통도사와 성보박물관이 단연 으뜸이고, 항구도시 부산에서는 유서 깊은 고찰 범어사 등 시내 곳곳에 자리한 옛 유물을 만나볼 수 있다.

문화유산 60곳 여행정보 안내

불타 석가모니

와타나베 쇼코 지음

법정스님 옮김





지금으로부터 2546년 전 북인도의 룸비니 동산에서 석가족의 왕자 싯다르타가 태어났다. 왕자 싯다르타는 가족과 부귀영화를 버리고 우주의 근원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행에 나섰다. 길고 고통스러운 구도행 끝에 그가 얻은 깨달음은 무엇이며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부처님의 생애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책 〈불타 석가모니〉(동쪽나라)는 1975년 〈부처님의 생애〉(샘터문고)로 맨 처음 번역되었고 이후 법정 스님의 번역으로 〈불타 석가모니〉로 두 차례 출간되었다.

이 책을 옮긴 법정 스님은 "그 사람을 모르고 그의 사상이나 가르침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불타 석가모니의 경우처럼 그의 삶이 곧 그의 사상을 나타낸다면 더욱 그렇다. 그가 한평생을 어떻게 살았으며, 그 시대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가 곧 그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말한다. 결국 불교를 안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바를 안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따라서 불교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석가모니 부처님이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한다.

부처님 일대기를 다룬 책들은 아주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와타나베 쇼코의 〈불타 석가모니〉는 삶의 고통을 체험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인간 석가모니의 삶뿐만 아니라 석가모니가 살았던 당시의 시대상과 사회상, 다른 종교와 사상계의 움직임 그리고 석가모니를 따르게 된 출가 승단과 재가 신도들의 생활규범까지도 폭넓게 조명하고 있다. 값 1만2천원.

당시 시대상 · 사상계 동향도 조명

행복한 기(단전)수련

이규행 지음



원로언론인 이규행이 기(氣)수련에 관한 내용을 담은 〈행복한 기(단전) 수련〉(도서출판 백암)을 내놓았다. 기 수련의 수행원리 및 기 수련에서 구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또한 책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참고 자료에 불과하지만, 책을 바르게 읽지 않고 믿음으로만 수련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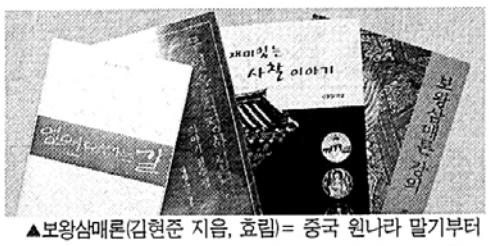
1장에서는 배달선도의 맥과 수행원리를, 2장에서는 기 수련의 세 가지 원칙, 호흡법의 비결, 좌선의 원리 등 구체적인 기 수련 방법을 소개한다. 사진과 삽화를 통해 올바른 수련 자세를 설명하고 있다. 3장 '기 수련의 행복지표 Q&A'에서는 운동선수에 적당한 수련법, 고혈압 환자의 호흡법, 기를 흐르게 하는 바른 방법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책 끝에 부록으로 달마선법을 수록했다. 값 1만2천원.

자세 · 호흡법 등 궁금증 풀어줘

의 A부터 Z까지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 주며 자세와 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서 담고 있다.

지은이는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단시일 안에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거나, 기수련자가 기를 밖

새로나온 책



▲보왕삼매론(김현준 지음, 효림)= 중국 원나라 말기부터 명나라 초기에 걸쳐 중생을 교화했던 묘협 스님의 저서《보왕삼매염불직지》중 제17편 〈십대애행(十代碍行)〉에 나오는 구절을 가려 뽑아 해설한 책이다. 〈십대애행〉은 삼매를 닦음에 있어 방해가 되는 열 가지 큰 걸림돌을 수행의 디딤돌로 바꾸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십대애행〉의 원문을 싣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등을 지은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월간 「법공양」에 연재한 글을 보충해 묶은 것이다. 값 5천원.

▲무엇을 걱정하십니까(대명스님 엮음, 우리출판사)=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상임이사와 미타불교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대명 스님이 불교대학에서 틈틈이 강의해 오던 〈천수경〉을 쉽게 풀이해 책으로 펴냈다. 부제 '이야기 천수경'에서 알 수 있듯이 〈천수경〉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듯 풀어쓴 책이다. 과장이 없는 자연의 섭리, 법계의 도리 내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이야기형식으로 해설했다. 값 7천원.

▲재미있는 사찰이야기(한정갑 지음, 도서출판 여래)=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임원들과 포교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찰문화재에 대한 강의를 중심으로 사찰의 조형물들에 담긴 불교적 이상과 의미를 직접 찍은 사진들을 곁들여 쉽게 설명하고 있다.

1장에서는 사찰의 의미와 부처님이 계신 곳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장에서는 지옥 중생의 세계에서부터 부처님의 세계까지를, 3장에서는 탑과 석등, 부도 등 석조 조형물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사찰의 목조건축물의 이름과 종류, 불전 안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값 7천원.

▲영원으로 가는 길(레너드 제이콥슨 지음, 김윤 옮김, 침묵의 향기)= 레너드 제이콥슨이 들려주는 깨달음의 길과 삶의 지혜를 묶은 책이다. 지은이의 일관된 메시지는 '마음에서 나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기'이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사랑과 진리,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며 마음의 속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충분히 머무를 때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고 말한다. 값 9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	대 우	현 암 사
2	참선교육1	현 담	도서출판 선
3	회색고무신	윤 청 광	시 공 사
4	빠띠삼비다막가역주	임승택 역주	가산문고
5	법구경 외	역경위원회	동국역경원
6	극락은 있다	관 정	붓다의 마음
7	미타신앙 미타기도법	김 현 준	효 림
8	근본불교	이 중 표	민 족 사
9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1	원 택	김 영 사
10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	전 재 성	한국대학불교연합회

도서 안내:(02)737-0695

깨달음으로 가는 외길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
물리학 원리와 화엄경, 철장 柳詩와 선문답을 아울러 깨닫지 못한 누구라도 절대 경지를 엿보게 하는 책.
大悲 지음 | 값 15,000원 현암사 전화 : 365-5051~6, 팩스 : 313-2729

연꽃의 향기로움이...
지묵 스님이 새롭게 강설한
初發心自警文
법보신문에 약 1년 반 연재하였던
지묵 스님의 《초발심자경문》 강설
知默講說 初發心自警文
부처님은 사바 중생을 깨우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이와 같은 인연으로 우리도
이 사바 세계에 온 뜻이 분명하면 할수록
삶의 의미가 진지해질 것이다.
그냥 부모가 낳아준 것으로 그냥 사는 사람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부처님과 같은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을 마음속에 담고 사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강설자인 지묵 스님은
이와 같은 인연을 자각을 통해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랐으며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선지식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초발심자경문》은 바로 이런 뜻에서
깊은 가르침이 있다고 하였다.
지묵 스님 / 신국판 / 296쪽 / 값 8,000원
우리출판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 : 02) 313-5047, 5056 팩스 : 02) 393-9696
E-mail : woribook@chollian.net

전국 사찰을 돌면서 채록하고
노스님들의 구전을
기록하여 재현한
눈으로 먹는 절음식
몸을 따뜻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는 음식 - 뉴욕타임즈 -
이 책은 미각을 더욱 돋워주는 시각적인 감각을 잘 살린 훌륭한 것으로
이에 자신있게 추천하는 바이다.
- 곡천건강장수연구소 소장 농학박사 유태종 -
점차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사찰음식을 연구한
김연식 거사의 열과 성을기울인 30여 년 동안의
노력이 오롯이 튓받침된 책.
- 수덕사 주지 법장 스님 -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절마다 전해지는
독특한 음식과 그 음식에 얽힌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찾아내고 기록하여 직접 눈으로 보듯 생생하게 전달해 준다.
- 단국대학교예술대학 교수 이영수 -
신간


김연식 / 4×6배판 변형판 / 올컬러 / 200쪽 / 값 14,000원
우리출판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 : 02) 313-5047, 5056 팩스 : 02) 393-9696

사라져 가는 전통 문양 현대 디자인 감각으로 되살린다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전통문양집 3집 -기와 · 전돌' 발간



◇통일신라시대에 크게 유행했던 탑상문 전돌(25.6×28.4×6.3cm).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지건길)이 소장 유물 가운데 예술적 표현이 뛰어난 기와와 전돌 문양 자료만을 모은 〈한국전통문양집 3~기와 · 전돌〉(5만원, CD 포함)을 최근 발간했다.

고유문화에 바탕을 둔 문화콘텐츠 개발 및 문화 DB 구축 사업의 하나로 간행된 것으로, 사라져 가는 전통 문양을 오늘의 디지인 감각으로 되살리자는 취지다. 눈으로 보고서도 의미를 쉽게 포착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 전통 문양이 지닌 아름다움의 구체적 의미를 밝혀준다는 데에도 그 의의가 있다.

1934년 경주 홍륜사터에서 발견돼 그 꾸밈없는 담백한 미소로 '신라인의 미소'라 불리게 된 '얼굴무늬 수막새'를 비롯해 200여 점의 실물 사진과 문양 도판, 그 문양을 기하학적으로 단순화시켜 실제 디자인에 응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했다.

기와 굽는 기술이 처음으로 한반도에 들어온 것은 한 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한반도 북부에 한사군을 설치했던 기원전 1~2세기경이다. 그래서 기와는 중국과 가까웠던 고구려에서 먼저 발전했다. 이어 백제와 신라에도 전해졌지만 동아시아에서 가장 화려하고 세련된 기와 문화를 꽃 피운 것은 통일신라시대다.

기와는 지붕을 덮는 평기와와 처마 끝을 마무리하는 막새 기와, 장식기와로 나눌 수 있는데,

'신라인의 미소' 등 200점 단순 · 체계화
"자료 · 문화 콘텐츠로 활용 됐으면…"

문양을 새겨 넣는 기와는 바로 이 막새 기와다. 막새 기와는 일반 가정집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고 궁궐이나 사찰 등에서만 사용됐다.

현존하는 기와나 전돌이 대부분 경주 일대에서 발견된 통일신라 시대 사찰 관련 유물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양집에도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이 주류를 이룬다.

문양은 종류에 따라 문자 문양(명문기와), 사람얼굴 문양(인면와), 귀신얼굴 문양(귀면와), 식물 문양, 동물 문양 등으로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화려한 연꽃무늬와 불경 속에 나오는 상상의 새 가릉빈가, 천계에 살면서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상상의 선인 비천(飛天) 등 불교 관련 문양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종교적 이상과 미적 감수성이 만나기에 가장 적당한 조형물이 사찰 건축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박현택 디지안실장은 "학술적 자료로서는 물론 문화 콘텐츠로 다양하게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학술담당=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a.com

"도신禪 천태사상 영향 받아"

최동순 씨 한국선학회 월례 발표회서 주장



20일 열린 한국선학회 월례 발표회에서 '도신선(道信禪)에 미친 천태 사상 일고찰'을 발표한 최동순(동국대 선학과 강사 · 사진) 씨는 "선종의 제4조인 도신의 선사상이 천태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저술중 서로 일치 · 비슷한 구절 많아
좌선작법 천태지관 행법서 따와

도신의 선사상이 천태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은 이전에도 제기된 적이 있다. 하지만 도신이 천태종을 개창한 지의(智顗)의 제자 지개(智鎧)로부터 직접 천태교학을 배웠는지 여부가 기존의 논의 대상이었다면, 최 씨는 돈황에서 발견된 도신의 저서와 천태종 관련 문헌을 직접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최 씨는 도신의 저술인 〈능가사자기(楞伽師資記)〉의 '입도안심요방편법문(入道安心方便法門)'과 천태지의가 강설한 〈천태소지관(天台小止觀)〉 등과 그의 제자의 저술을 비교해 본 결과 일치하는 문구가 10구절임을 밝혔다. 비슷한 구절은 이보다 훨씬 많다. 특히 좌선작법(坐禪作法)의 형태는 천태지관(天台止觀)의 행법을 그대로 따 온 것이고 선종의 밑바탕이 된 '일심삼매(一心三昧)'도 지의가 설한 〈마하지관〉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최 씨는 "천태지의가 방대한 분류작업과 세밀한 조직, 체계화를 이루고 있다면 도신은 일행삼매, 안심, 방편 등에 대한 내용을 보다 간명한 방법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수호 연구원 주장

"불교계 정보화 인식 낮다"

"시대 흐름 따라 피동 · 소극적 자세 마인드 확산위해 발상전환 등 시급"

정보화 사회를 맞아 인터넷을 새로운 포교 매체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일고 있지만 막상 정보화 사회에 대한 불교계의 인식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현대불교사회문화원(원장 증원)이 '정보화 사회에 대한 불교계의 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불교계의 정보화 실태 및 인식'을 발표한 박수호 중앙승가대 불교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불교계 정보화의 문제점은 컴퓨터 이용이나 정보화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정보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끌려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불교계 최초의 일간 인터넷 신문인 붓다뉴스 초기화면.

이날 박 연구원이 전국의 승가대학 혹은 강원에 소속된 승려 469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실태와 인식을 조사한 보경 스님의 조사결과(2001년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를 인용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56.5%가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고, 전체 응답자의 38.7% 컴퓨터 이용자의 68.7%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9.9%가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를 들었다. 다음으로 29.9%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 9.4%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한국정보문화센터가 2000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응답조사 결과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28.1%),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24.8%),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20.2%) 순으로 나온 것과 비교된다.

정보화 사회에 대한 대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0%만이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고,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없어서'(48%) '방법을 몰라서'(30.7%) '시간이 없어서'(13.4%)를 들었다. 박 연구원은 "구체적인 계획이나 전망 없이 정보사회에 대한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며 "불교계 정보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교단 내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과 발상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한편 응답자들은 '불교 교리의 정보화'(43.5%)를 가장 시급한 정보화 사업으로 꼽았으며, 이밖에 종무행정체계(21.2%) 신행관련 정보(18.5%) 불교문화재(11.4%)의 정보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승 · 초기불교 융합 달마 삼학관 수립

권탄준 동국대 교수 발표

초기불교는 불교 수행의 근본 체계인 계(戒), 정(定), 혜(慧) 삼학(三學) 가운데서 지혜(慧, 혜)에 비중을 둔다. 그러면서도 지혜를 얻기 위한 과정 속에서 선정과 수계를 함께 중시했다. 반면 조사선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선종은 초기불교와는 달리 선정(定, 정) 자체를 매우 중요하게 위급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그렇다면 선종의 초조(初祖)인 달마는 삼학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었을까?

동국대 불교대학원 권탄준 겸임교수는 〈한국불교학〉(한국불교학회, 반년간) 31집에 발표한 논문 '보리달마의 삼학관(三學觀) 고찰'에서 "달마의 삼학관에는 대승불교의 입장과 초기불교의 시각이 융합해 새로운 사상체계를 수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달마론〉 등 달마의 것으로 인정받는 저술의 분석을 통해 "달마는 번뇌는 실재하는 것이 아니며 자성은 본래 청정하고 구족되어 있으므로 닦을 것도 증득할 것도 없다는 대승반야사상의 삼학관을 철저히 견지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동시에 초기불교의 삼학관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달마의 삼학관은 정(定)과 혜(慧)의 가치만 아니라 계(戒)의 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초기불교의 삼학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선과 악을 초월하여 어디에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집착함이 없이 살아갈 것을 강조함으로써 전통적인 삼학관과는 분명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론 현학(玄學)의 영향까지 엿볼 수 있다.

권 교수는 "이러한 융합은 모순된 것이 아니라 불교 전통의 삼학관에 따르면서도 대중의 근기에 맞추기 위한 방편 내지는 토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필연적인 문화적 융합의 일환이다"고 말했다.



◇해인사 고려각판(국보 206호).

"고려대장경 남해서 판각"

경판 종착지 등 문헌적 자료 제시 "부식막게 해초사용 가능성 연구"

향토사학자 정운 씨 주장

경남 남해군이 고려대장경 판각의 성지임을 문헌적인 요소와 유물적 요소를 제시하며 밝혀낸 책이 출간돼 관심을 모은다.

지명 연구가인 정상운 씨는 〈지명 연구로 찾아낸 고려대장경 판각 흔적〉이라는 책을 통해 "대장경 판각 장소와 관련된 지명이나 관각 공사 중 업무의 성과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등의 장소와 관련된 지명이 남해 전 지역에 걸쳐 방대하게 분산,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지명은 그곳에 위치해야 할 이유와 의미를 지닌다"며 기록된 지명의 변화과정과 부여된 의미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지명과 고려대장경 판각의 관계를 밝혀 나가고 있다.

이 책 중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고려대장경과 관련된 단계별 흔적을 살피고 있는 제3장. 정 씨는 대장경 판각 목재의 운송과정에서 생겨난 지명, 경판 목재의 종착지 등 10단계로 나눠 지명과 자연환경, 문헌적인 자료 등을 통해 남해가 고려대장경 판각장소일 개연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정 씨는 "앞으로 경판이 썩지 않고 보존되는 데 해초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추가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천미희 기자

전국적인 정보화 실태조사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불교계의 정보화 수준이 타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져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등은 KT(한국통신)의 협찬**과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의 후원을 받아
전국의 모든 사찰 포교당 및 관련 단체와 시설을 대상으로
정보화 이용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불교계의 정보화 촉진 대책을 공동의 불사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국 사찰 포교당의 주지스님들과 단체장님들께서는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조사요원의 방문 또는 전화, 우편,
설문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조사대상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등록 종단의 모든 단위사찰 · 포교당
- 현재 활동중인 불교관련 단체

조사기간
- 2002년 4월 1일 ~ 30일

조사결과 발표
- 2002년 5월 중 (지상 공개 및 백서 발간)

당부 사항
- 전의 설문 조사에 응대해 주십시오.
- 우편 조사 시 설문지 작성을 성심껏 해 주시고, 반송봉투에 담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조사 시 조사 요원의 활동에 협조해 주십시오.

실태 조사의 의의
- 불교계 최대규모로 실시(전수 조사)
- 불교계의 정보화 현주소 파악
- 불교계의 정보화 비전 제시할 수치적 근거 마련
- 불교계의 정보 인프라 구축의 장점과 사각지대 탐구
- 불교 관련 IT 산업의 활성화 부추길 촉매 역할 기대

설문 주요 내용
- 전산 장비 관련 : PC/모니터 보유 여부, PC/모니터 보유 수량, PC/모니터 사양, 주 사용목적 및 만족도, 전담 전산 사무원 유무 등
- 인터넷 관련 : 인터넷 사용 여부, 주 이용 목적 및 만족도, 주 접속 목적 및 사이트 등
- 초고속 인터넷 관련 : 초고속 인터넷 설치 여부, 설치 계획 여부, 미 도입 이유 등
- 무선 기기(모바일) 관련 : 핸드폰 보유 및 사용 여부, PDA 사용 여부, 위성 방송 설치 의향 여부
- 정보화 의식 관련 : 정보화 필요성의 인식 정도, 불교계 정보화 수준 평가, 전산 관련 지식 정도, 정보 인프라 구축의 범위에 대한 의견 등

■ 공동주최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불교방송, 불교TV, 현대불교신문사 ■ 주관 : 현대불교신문사 ■ 협찬 : KT(한국통신) ■ 후원 : 문화관광부 · 정보통신부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법당 부처·내 형상 둘 아니게 봐야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는 기필코 나의 뿌리를 발견하리라 생명을 걸고 원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깨달아야 일체 만물이 둘이 아님을 알면서 일체 만물이 다 내 스승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식 아님이 없다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말로만 간접적으로 듣고 그냥 그렇더라 하면 실감이 나지를 않아요. 가면으로 살지 말고 진짜로 실행을 하면서 사람으로서 우주의 근본 자체가 우리 마음에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세상만사 찰나찰나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 마음에 가설이 됐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서 모든 일체 만물이 스승인 줄 알아야 돌 하나를 봐도 은혜를 갚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정법으로서 정의를 바탕으로 삼아서 행해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만물의, 아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조상들은 물론 곤충에 이르기까지 만물에게 은혜를 갚게 됩니다. 이게 극치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근본 본분입니다.

곤충에 이르기까지 직접 주고받는 것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연결돼서 주고받고 서로 도우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어지럽게 이 말 저 말 넣어서 말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부처님께서도 그렇지만 벽을 치면 봇장이 울리듯이 여러분이 마음의 지혜가 생기고 물리가 터져서 잘 해 나갈 수 있는 진실한 행이 꼭 성취돼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하나 은혜로운 모습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농사 짓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옷감을 만드는 노동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습니까? 그래서 곤충에 이르기까지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조그만 거로 방편을 세웠지만 큰 거나 적은 거나 똑 같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서 스스로 나와야지 억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맛있는 거를 먹으려고 상대방에게는 아무거나 준다면, 한데 포함해서 만물이 내 아님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물질로서 모든 역할을 하고 잘못됐다 잘됐다 따지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전자 '부(父)'와 현재 '자(子)'가 둘이 아니게 상봉을 한다면, 일차적으로 나를 발견하면 바로 '견성(見性)'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그건 형식이지 진짜가 못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진짜 할 수 있는 거를 못 합니다.

여러 말 하기 싫어서 주인공에 모든 걸 맡기고 부모지간에 잘못 됐다 하더라도 바깥으로 정색을 하고 잘못했느니 잘했느니 왈가왈부 하지 말고 안에다 맡겨 놓고 부드러운 말 해주고 ,부드러운 행동 해주고, 여름이면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이면 따뜻하게 해주면서 내 탓으로 돌린다면, 그냥 돌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내 탓이지 내가 없었다면 왈가왈부 할 것도 없는 거죠.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잘했든 못했든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해 나간다면 가정에 화목을 가져 올 수 있고, 질서를 지킬 수 있고 즉 말하자면 도의와 의리를 지키면서 자유스럽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즉 자비라는 것은 남을 이익하게 해주는 것이며, 고통 속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여러 말 안해도 능히 주인공을 잘 아시겠죠. 주인공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나 하나가 아닙니다. 안에도 포함됐고, 바깥에도 포함됐고, 쉴 사이 없이 끊이지 않고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자체의 삼라만상 대천 세계를 그대로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홀히 보지도 말고 높이 보지도 말라 이 겁니다. 높이 봐도 어그러지고 내려봐도 어그러지니까 나와 똑 같이만 봐라, 이겁니다. 법당에 들어 와서도 형상적인 부처로 보지 마시고 내 형상과 둘이 아니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데서 50%가 확산되니까 말입니다. 부처님은 보이지 않는데서 모든 행을 하십니다. 천백억 화신이라고 했지만 그건 수효가 없는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 속에 있는 자생중생들이 화하게 되면 지금 시쳇말로 원자에서 입자가 나가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자로 인해서 입자가 되고, 입자로 인해서 소립자도 되고 또 원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전하고 개발하는데도 지·수·화·풍의 근본 자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전체가 있는 거죠. 그러니 보이지 않는데서 보이는 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생산이 돼서 나오는 거죠. 생산이 돼서 나오면은 나왔다가 또 꺼지면서 보이지 않는데 원자로서 또 다시 화해서 진화돼 가지고 생산이 돼서 나오고 하죠.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곤충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바다의 물도 그렇고 말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뒤집어지고 제껴지고 파도가 일고 소용돌이 치고 그러느냐. 모두 같이 살기 위해서 입니다.

> "내 뿌리 기필코 발견" 목숨걸고 공부해야
>
> 함이 없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가운데 체험하고 깨닫게 돼

▲질문자1: 오늘 저에게 이와 같은 복된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쭙고 싶은 질문이 수없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그동안 제가 공부한 것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저는 2년 전부터 주인공 공부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참말로 신비스럽고 오묘한 도리였습니다.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에 다 있다는 주인공, 아주 쉬운 말 같으면서도 너무나 큰 진리가 담긴, 눈에 보이는 물건이라면 한번 보았으면 좋겠고, 손에 잡히는 물건이라면 한번 잡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늘 여여하게 있다는 주인공, 그 주인공을 스님께서 늘상 하시는 말씀대로, 그냥 있다고 철석같이 믿어 버리면 될 터인데 어리석은 것이 중생이고 따지는 것이 중생인지라 주인공을 믿는 척 하고 이해하는 척 하면서도 몰락 믿고 맡기지 못하고 수시로 의정(疑情)을 내고, 그래서 그 의정(疑情)때문에 저는 주인공 공부를 하면서도 한 발자욱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엉거주춤 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23년 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우리의 육체 속에 마음이 따로 존재한다고 배운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제가 이해 할 수 없는 의문은 주인공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거짓말 탐지기를 갖다 대어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씀과, 마음을 내시면 어떤 이치로 해서 우리 몸에 있는 암 덩어리가 없어져서 결국 병이 낫게 되는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주인공의 정체가 무엇이며 마음의 근본을 이루는 알갱이는 무엇이며, 물질의 근본을 이루는 알갱이는 무엇인가를 혼자서 책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근본 알갱이와 물질의 근본 알갱이가 무엇인가를 알면 자연히 이러한 의문들이 풀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근본 알갱이에 관해서 양자 물리학 서적을 통해서 공부한 바에 의하면 육질이든 물질이든 쪼개고 쪼개면 마지막 단계는 분자이고 분자는 다시 원자로, 원자는 다시 원자핵과 전자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 양자물리학자들은 중성자며 양성자며 전자가 모두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의 성질을 갖는, 즉 입자로서 제자리에 있는가 하면 금방 파동이 되어 빛처럼 어디론가 뻗어나가는 매우 괴상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하였으며, 결국 입자인 동시에 파동의 성질을 갖는 양성자, 중성자 및 전자 등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설명이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토마스영이나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헬리스 탭이나 이반쿠크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원자 물리 학을 공동 연구하였으며, 현재 런던 대학의 원자물리학 교수인 데이빗드 봄 등은 양성자, 중성자 및 전자가 마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도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으며, 그래서 우주의 마음이 결국 양성자, 중성자 및 전자의 마음을 구성하는 기본 알갱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마음의 근본 알갱이에 대해서 뇌신경학 및 정신의학의 서적을 통해서 공부한 바에 의하면 캐나다의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인 웬 필드는, 마음을 뇌조직에서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뇌조직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하였으며, 결국 마음은 뇌와는 전연 별개의 것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혼도 불멸하는 것이라고 했고 따라서 앞으로 마음을 더 연구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과도 교신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방법의 개발이 가능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하였습니다. 유명한 뇌생리학자이며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죤 엑클스는 우주의 삼라만상은 물질, 마음 그리고 정보 등 세 가지로 떠 있다고 말하면서 물질과 마음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엘레스티라는 환각제를 사용하여 마음을 연구하여 노벨 수상자로 거론될 정도로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 미국의 스탄리스 라프크로프는, 마음은 사람의 몸에 별도로 존재하는 하나의 실체이며 그 마음을 구성하는 근본 알갱이는 물질을 구성하는 근본 알갱이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신과학 운동의 선구자이면서 양자물리학자이기도 한 프리쵸프 카프라는, 인간의 마음은 물론 실존하는 것이며 마음의 근본 알갱이와 물질의 근본 알갱이는 동일한 것이며, 우주의 본질 자체가 마음 알갱이이기 때문에 결국 우주는 마음 알갱이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바람·세균·식물·짐승 그리고 사람은 모두 그 근본은 동일한 마음 알갱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형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허망된 망상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눈이 사물을 보기는 하되 눈이 눈을 볼 수 없고, 귀가 듣기는 하되 귀가 귀를 들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마음을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체험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주인공이 있으나 주인공이 주인공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의 근본을 연구하는 양자물리학의 세계적인 과학자나 마음의 근본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뇌생리학자는 이구동성으로, 마음은 사람의 몸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은 물질의 근본 알갱이와 동일한 것이며, 또한 우주의 알갱이와도 동일한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님께서 저희들에게 일러 주시는 주인공이 바로 그 근본 알갱이인 것입니다. 즉 우주의 근본 알갱이가 주인공이요, 마음의 근본 알갱이도 주인공이요, 육체의 근본 알갱이도 주인공이요, 물질의 근본 알갱이도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내면 어찌 육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퍼져 나가듯이 마음을 내면 그 파문이 암 덩어리가 아니라 육체의 어디까지라도, 아니 우주 법계의 어디까지라도 파문이 아니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보고 이와 같이 공부한 것을 한마음선원 대전지원에 새로 오셨으나 저와 같이 의정이 많아 주인공 공부가 잘 안되는 도반들에게 전달하고자 내 나름대로 조그마한 책자를 만들어 도반들에게 책 보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가 공부한 것이 스님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순 엉터리 지식을 도반들에게 전달해서는 큰일난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둘째는, 비록 제가 공부한 것이 순 엉터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스님께서 주인공 공부를 가르치실 때 한 절반만 가르치시고 나머지는 본인 스스로가 맛을 보도록 가르치시는 의도를 제가 눈치코치도 없이 까발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 조그마한 책자를 스님께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쓸데없는 것을 만들었다고 야단을 치시든지 해 주십사 하고 들고 나왔습니다. 장시간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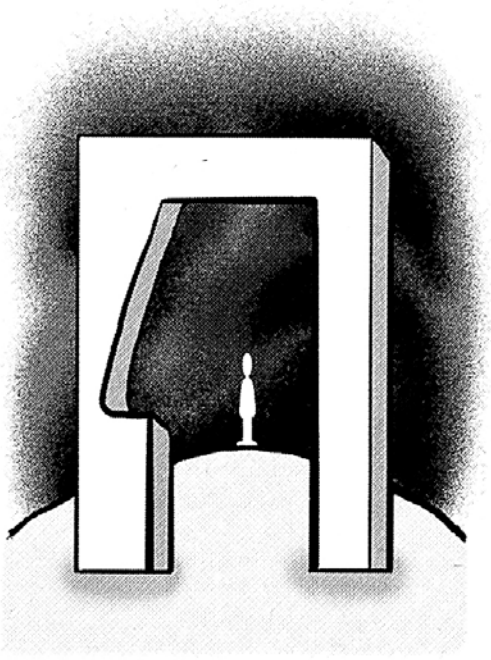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스님: 첫째에 우리가 물질로서 현재의 자기는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부(父)'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시쳇말로 전자라고 해도 되는데 거기 사람이 끼어 있으니까 전자 '부(父)'라고 합시다. 전자와 현자(現子)가 한데 합쳐지는 반면에 그 가운데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바로 '마음'이예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가 한데 합쳐 가지고 나오는 것은 어떠한 문제의 용도에 따라서 방출이 되죠. 많은 방출이 됐다가 제자리에 올 수도 있고 또 제자리에서 적게 될 수도 있고, 많이 배출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계도 없고 더한다 덜한다고 말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에서 어떠한 물체가 적으면 적은 대로 바로 합쳐지고, 크면 큰 대로 합쳐지고, 크면 큰 대로 발산이 되고 적으면 적은 대로 발산이 되니까, 그것이 얼른 쉽게 말해서 생산이죠. 이건 발산이라고 할 수가 없죠, 생산이죠. 모든 게 생산을 해서 또는 더 앞으로, 즉 말하자면 발전이 되고 능숙해지면 앞서 발전돼서 행했던 그 작용은 그냥 한데 합쳐서 없어지고 다시금 또 일어나죠. 이렇게 해서 일체 만물만생이 살고 있죠. 그것 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극치적인 문제는 지금 나를 어떻게 발견하느냐의 문제죠. 과학자들이 지금 이것은 어떻게 생기고 요거는 몇 자고, 둘레가 얼마고 요건 뭘 하고 있고 어디서 나오고 요런 것만 가지고 그러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신통도 도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오신통이 바로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잘 안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과학자들이 오신통 안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오신통을 자유스럽게 굴릴 수가 없고 '나'라는 존재를 알 길이 없죠. 오신통 바깥으로 벗어나야 오신통을 굴릴 수 있죠. 과거·현재·미래심을 다 알아서 쳐리할 수가 있는 그런 배역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지혜롭게 어디 걸림이 없이 여여할텐데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내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어항 속에서 고기가 나오지 못하는 것과 같다. 고기들이 바다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죽듯이 우리도 공기통 안에서 한 발짝도 떼 놓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공기 바깥으로 벗어나도 아주 광대하고 여여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을 길러야 한다. 첫째는 마음을 찾아야 한다. 그것도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있는 자리에서 찾아야 한다. 내가 움죽거리고 보고 듣고 하는 행하는 그 모두 전체를 바로 내 알갱이가 하는 거니까, 영원한 뿌리가 하는 거니까, 이런 말을 하려면 어디서부터 해야 하느냐면, 자기가 이 물질을 형성시켰거든요. 형성시킬 때에 정자 난자를 빌어서 같이 해야만이 형성이 되거든. 그러기 때문에 정자 난자를 빌어서 자기가 형성을 시켜 놓고 자기가 이끌어 가는 거죠. 자기가 이끌어 가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자생중생들은 전자에 살 때에 악업 선업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오신통이, 그냥 자동적인 컴퓨터예요.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사는 것이 전부 거기에 입력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자에 살던 입력이 현실에 자꾸 나오는 거죠. 나오니까 입력된 그 자리에다 다 맡겨라, 몰락 맡겨라. 거기서 지금 운행을 하는 거니까, 행을 하게 하는 거니까, 말을 하게 하는 거니까, 보게 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몰락 다 놔라. 놓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왜냐하면 안에도 자생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에 내가 혼자 먹은 것도 없고, 내가 혼자 한 것도 없고, 내가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뭘 가지고 내가 혼자 산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놔라 이거죠. 여러분이 놓으래도 뭐가 있고 뭐가 걸리고, 조그만 일은 놓을 수 있는데 큰일이 생기니까 못 놓겠습니다. 못 놓긴 뭘 못 놓아요? 자기가 그대로 놓고 가는 건데. 자기가 혼자 먹고 가는 겁니까. 혼자 다닙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덩어리가 지금 다니는데 뭐가 혼자입니까? 놓을 수 있고 놓을 수 없고 그게 거른이, 진짜 놓을 수만 있다면, 그게 양자가 바로 전자라는 걸 안다면 그냥 그대로 여여한 겁니다.

그래 부처님이 응신이 된다 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만 들어가면, 돼지 속에 들어가면 돼지가 될 거고, 마음은 무한이에요.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되고, 곤충 속에 들어가면 곤충이 되기 때문에 아니 되는 게 없으니 내 아님이 없다는 거죠. 어떤 거 될 때에 나라고 할 수 없으니 부처라는 겁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말 할 때는 원자에서 입자로 인해서 소립자도 되고, 분자도 되고 원자도 다시 되고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하고 지금 용어를 변경해서 말하는 거 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한다면 그 병자 속에 들어가서 병자와 하나가 되니까, 정말 저 분 말마따나 모든 의식들이 한데 합친 그 능력이, 즉 말하자면 불입니다. 불이라면 그냥 없어지죠. 태워서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아래로 배출시켜서 없애는 것도 있고, 갖은 각색으로 인체에 해롭지만 않고 유익하다면 어떤 거를 가리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따지고 본다면 지·수·화·풍 자체가 아주 거대한 겁니다. 지·수·풍이 한데 합쳐서 비벼대니까 한데 합쳐 돌아가다가 보니까 원기가 생기고 뜨거운 볼이 생기고 이런 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라고 표현해도 되죠? 그래서 검은, 즉 말하자면 볼이 없으니까 검죠? 검은 지평선 자체가 바로 지·수·화·풍이 뭉쳐진 에너지입니다. 과학자들은 그 에너지가 스스로서 폭발이 됐느니 뭐니 이러는데, 그게 그냥 우연히 폭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연히 폭발되는 것 봤습니까? 우연히 과학자가 되는 것 봤습니까? 우연히 연구하는 거 봤습니까? 우연히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주를 형성하고 또는 별성을 형성시키고, 별이 형성됨으로써 불덩어리도 크게 이루는 별이 되고, 생명이 생기

☞ 18면으로 계속

시대 발전따라 용도·방편도 변화

우주근본 우리 마음과 직결 · 가설

☞ 17면에서 계속

게 하려니까 태양계도 생겨야 하고, 행성도 있어야 하고 우리가 지금 사는 생활 속이나 그 속이나 똑 같습니다. 그런데 직결이 됐다는 이유는 뭔가. 지금 우리가 마음먹고 하는 것이 컴퓨터에 입력되면서 그냥 직결 돼 있습니다. 같이 돌아갑니다. 거기에서는 벌써 한 계단을 거쳐서 우리가 마음 쓰는 거를 알기 때문에, 계발시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 과학이 발전이 되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 아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대로 거기서 받아서 또 발전을 시킨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상하게 되는 것도 마음을 잘 못 쓰기 때문에 그 못 쓴 마음이 올라가 입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 이건 말로다가 이름을 지어서 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마음을 잘 쓰십시오. 꿈을 꾸더라도 한생각 잘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또는 중생이니까 모자라니까 힘이 없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모두 우주와 직결 돼 있고, 가설이 돼 있고 용도에 따라서 끌어 쓸 수 있는 자본이 모두 나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지수화풍이 바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도 꺼내서 끌어 쓸 수가 있는 용도가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지수화풍이 없으면 에너지를 방출시킬 수도 없어요. 허나, 내가 지수화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지수화풍으로 살고 있고, 지수화풍이 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모두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체 만물만생이 자동적으로 통신이 되고 뜻으로 통신이 돼서 만물이 전부 짹짹짹만 해도 무슨 소리구나 하고서 전부 따라 옵니다. 모이자 하면 모이고 흩어지자 하면 흩어지고, 먹을 것이 저기 있으니 가자 하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말로만 우리가, 우리 생각, 우리 차원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잣대에 재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모두 정말 풍부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깔보지 말고 뭐든지 네 스승으로 알라고 했습니다. 알려라도 물어가면서 가거라, 이런 겁니다. 배우는 사람으로서는 모두 스승, 은인이라는 거를 알아야 한다. 내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한치도 어긋나게 해서는 안된다. 내가 모든 만물이 아니었더라면 보고 듣고 배울 수가 없고 배울 수가 없었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모두 은혜로운 사람들이고 은혜로운 생물들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정말이지 모두 은혜를 갚는 게 되고 정법으로 꼭 나갈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법을 배우는 것이 대승이다 한다면 큰마음을 가진 사람의 행이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승법이라는 것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항상 놓으려고 하고 넓혀 가는 마음은 한계가 없으로 나온 이 자체, 몸은 바로 공기력과 태양력을 흡수하니까 또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즉 말하자면 정맥과 동맥이 서로 돌아가면서 살고 있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자기 뿌리를 믿어야만 되는데, 그래서 '뿌리야 에너지를 이만큼 좀 흡수해서 올려 보내다오.' 하는 거나 진배없는 겁니다. 용도를 너무 잘 아니까 말입니다. 싹이 생각하는 거를 뿌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직결돼 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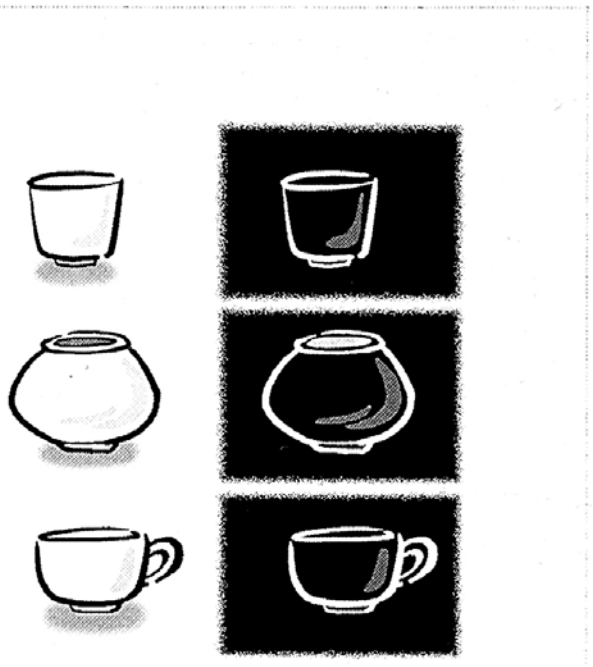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다가 금방 이거 어떡하나? 누구 부르고 누구 찾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있다면 지켜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테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변호사한테 가서 청하지 않는데 일이 되는 겁니까? 청하지 않고도 됩니까? 안 그래요? 그러고 잘못됨과 잘됨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고 되는 일입니까? 밥을 짓지 않고 생쌀 놓고 그냥 밥이 됩니까? 이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쌀을 넣고 코-드 꽂지 않으면 그냥 밥통은 지키고 있는 거죠. 허허허…. 그거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는 건수가 와야 할텐데 건수가 안 오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거와 같아요. 생각없는 일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송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가 첫째 일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토론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나와서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면서도 안했지 않습니까? 하하하. 그러니까 여러분도 함이 없이 질문하고, 또 함이 없이 대답하고 해서 그 가운데서 느끼고 체험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책이라는 거는 누가 썼든, 길잡이일 뿐 책이 아닌 바로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한 구녘에서 나오는 거 한 구녘에다 틀어넣으면서 입력을 시키면서 모든 거를 거기다 전제하고 부지런히 된다면 뛰는 자체도 바로 거기니까. 어떤 때는 때로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 하필이면 이런 걸 보고 살게끔 했나….' 하면서 아주 비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럴 때 '야, 이왕이면 왜 비참한 생각이 들게 하냐?' 합니다. 그러면 다시 바꿔지죠. 이 마음이라는 게 체가 없는 거라 그렇게 순간순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공부 하는 데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몽땅 다 가르쳐 놓는다면 오히려 안에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전자에 살던 나를 발견해내지 못하거든요. 즉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마음대로 들이고 내고 할 수가 있어야만 이 심성과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물질과학이지 심성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질과학을 발전을 시킨다면 바로 먼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전자에 살던 너부터 발견해라. 그러면 모두 찰나찰나 들고 나는 거를 알 수 있느니라. 생명이 없는 거든지 있는 거든지, 보이는 거든지 보이지 않는 거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해 놓고 모두를 둘 아니게 할 수 있다. 둘 아니게 볼 수 있고, 둘 아니게 작용할 수 있고, 이래야 우주하고도 직결이 된 줄 알고,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이 위대하게 띄워 보냈다 할지라도 그 어느 고장이고 마음 하나만 딱 잘못해 놓으면

>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 그것도 밖에서가 아니라
> 바로 내가 있는 자리서
>
> 한 생각 잘 하세요
> 중생이라 모자라니까
> 힘없다 생각 마세요

그거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없어지겠지마는 미리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 좋은 방향으로 나가죠, 즉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행성이 지구에 부딪쳐서 지구가 망가지게 생겼다, 인명이 많이 상하게 생겼다, 지구가 파워를 일으켜서 모두 부서져 버린다든가 타버리는 문제가 생길 때도 내가 위성이 된다면 절대로 지구를 망가지게 안할 겁니다. 내가 지구를 알고 있는데 부딪치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위성이 돼 가지고 저 먼 데 놓고 옵니다. 이렇게 아주 광대한 법이며, 부처님법이라기 보다도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 법이고, 우리들 법이자 부처님 법입니다. 이 광대한 법을 부처님이 먼저 깨달아서 세세생생에 이 도리를 모르면은 자유인이 될 수 없고 평등공법을 행하지 못한다고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처님 말씀 그대로 하지 않고 용어를 달리 말한다고 해서 부처님 법하고는 딴 세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옛날에 달구지라고 했다고 지금 달구지라고 해야 옳겠습니까? 부처님께서도 시대가 변천하는 대로 계율을 바꾸고 방편도 바꾸라고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돌 하나 버릴 게 있습니까? 전체가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입니다. 그러니 부처님 법 따로 있고 우리들 법 따로 있고, 현재 법 따로 있고 과거 법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뚝배기를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은 좋게 꽃을 만들어서 찻잔으로 이름을 지어 놨죠. 지금은 찻잔이 필요한 시절이지 전자에 뚝배기로 썼다고 해서 지금도 뚝배기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뜻은 다 똑같애요. 과거나 현실이나 미래나 똑 같은데 발전하는 대로 용도와 방편이 자꾸 변하죠. 그래서 갓 낳아놓으면 애기라 그러고, 조금 자라면 학생이라 그러고 조금 또 더 자라면 청년이라고 하고 조금 더 자라면 어른이라고 하고, 더 자라면 늙었다고 합니다. 물질이 생긴 대로 이름을 붙이는 거지 처음에 애기더러 어떻게 늙었다고 이름을 바꿉니까? 변천하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이름도 정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이며, 발전이며, 물질과학 보다도 심성과학으로서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의 체험을 한번 해 보시면 알 바가 있을 겁니다. 대답이 나오니까요.

※위 법문은 1994년 5월 1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물이 스승, 돌 하나에도 은혜를…

어요. 무슨 우주가 한계가 있다, 삼천대천세계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없고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넘어가고, 넘어간다는 소리조차도 붙일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리를 즉흥적으로, 항아리가 뿌리라면 싹은 몸입니다. 이 싹은 뿌리로 인해서 삽니다. 그런데 뿌리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분이나 수분이나 철분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올려 보내게 돼 있습니다. 이건 자동적입니다. 그래서 바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게 아니고 그저, 예를 들어서 몸이 턱 쓰러졌다면 그냥 야단을 합니다. 침착하게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려! 애나 어른이나 다 죽는 거지마는 '죽게 하는 것도 너고 살리게 하는 것도 너니까 알아서 해!' 하고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빈 손과 빈 발이 그냥, 송두리째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그래서 온 몸의 의식들을 작용케 해서 낫게 하는데, 뭐 그냥 금방 주인공, 이랬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분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레이키(Reiki 靈氣)가 왜 화제인가!

모든 대체요법가가 갖춰야 할 기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3일만 배우면 되기 때문입니다.

워니 워니 해도 레이키야 말로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르게 우주생명 에너지 요법가(氣치료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레이키에는 어튜먼트 라는 비법이 있어서 여러해씩 기공수련을 해야 하는 기공과는 달리 즉각 누구나 우주 생명에너지 요법가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 인류의 가장 과학성 높은 氣문화 체계로 자리잡혀 있는 레이키는 모든 대체요법가(침뜸 전문가, 지압사, 맛사지사, 피부관리사, 아로마 요법가, 활법사, 골격조정가, 발반사 요법가, 단식원 운영자, 기공 치료가, 생식 요법가, 심령 상담가, 최면 요법가 등)가 갖춰야할 기본 능력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대체 요법가들이 기본적으로 함께 쓸 수 있는 생명에너지 바로 레이키입니다. 레이키는 일본의 우스이 미카오(1865~1926)씨가 발견하고 체계세운 방법이 미국, 일본 등의 레이키 관계자들에 의해 발전된 氣의 과학입니다.
레이키는 건강전체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생명에너지입니다.

1. 우스이 레이키(교육기간 3일, 교육비 70만원)
2. 카루나 레이키(교육기간 2일, 교육비 50만원)
   카루나 레이키는 우스이 레이키를 배운 분이 다음 단계로서 배우는 새로운 레이키 입니다.
3. 저(박희준)는 이런 사람입니다.
   지난 20년간 건강분야, 정신세계 분야의 번역가 · 저술가로 활동해 오다가 1996년 부터 일본 등에서 레이키를 만나 여러 갈래의 레이키를 폭 넓게 배워 우스이 레이키 마스터(선생)와 카루나 레이키 마스터가 되었고 1997년 부터 「현대 생활 레이키 연구회」를 개업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정신과학학회 이사.

현대 생활 레이키
연구회 대표 박희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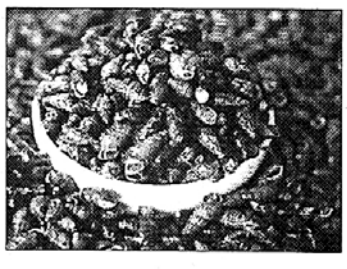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 전화 : 02)720-5682, 720-5719, 팩스 : 02)720-5720
◇ 핸드폰 : 019-392-2557, 018-850-1680

지리산자락 무주구천동 신비의

다슬기

당신의 "간·간·간"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걱정되시죠?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아부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무주 구천동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왈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씻고 헹굼 시킨다. 다음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숙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프 단위로 포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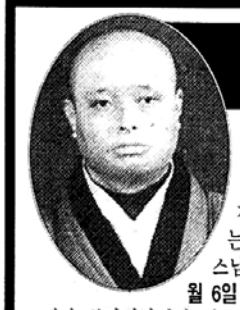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됨」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자료신청 : 055) 963-9583 상담문의 : 055) 355-5626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엣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래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석지수 입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구인 · 구직 규격 5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수산스님의 기체험,기치료 역학상담
02)3444-4376
매일 오후 7시~9시 수련중
회원모집(지방에 계신분 주 1회 강좌)
매주 금 · 토 역학강좌 회원모집
www.bulljichon.com

천안 부처님 마을 공양주 구함
▷월 보시 100만원
57세 미만
041)523-002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급히 모십니다
▷ 청강사
055)932-5706

각종의식, 불공 기타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바랍니다
051) 462-7374
018) 523-7374

오참법수행
업장소멸로 청정한 자성을 봄
영가로 인해 난치병 정신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구병시식 영가(천도로 완치 자신 함.
※ 바른 수행 설법강좌
- 진정한 수행자의 길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120
호동골토굴 017) 859-138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3217-8858
017)206-0789

동성불교사
개금 · 천불 · 범종 · 동불전문
代表 李相萬 법명:보환
TEL : 031)575-2532
FAX : 031)575-2647
자 택 : 031)563-8733
031)563-8771
H·P : 011)255-3286

◇ 구운 마늘환 ◇
- 100% 토종 육쪽 마늘 -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효능
▷ 심한피로 / 정력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세
02)2234-3310
관 음 사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02)992-7064
02)903-3065

원주 보살 구함
· 여행자님 상담 환영
· 사무 및 관리 경력자 우대
· 공부 책임지고 시켜드림
02)395-1222

◇ 판매합니다 ◇
-염 주-
직거래를 통하여 각종 염주를 저렴하게 공급해드리겠습니다
011)610-4879
061)337-4879
061)337-634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3491-4848
019)254-4883

비구니 기도하실 스님 모십니다
041)952-6966
011)438-013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
042)841-608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이상 노보살님 원합니다 (정릉)
02)917-3363

녹 차 판 매
※ 지리산 화개 야생수제차
※ 사찰 보시 가격 공급
차만들기 교실
■ 차만들기 실습 견학
■ 차를 만들어 갈 수 있음
Tel : 055)883-9321
영목다전(지리산 하동 쌍계사 근처)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인연을 바랍니다
▷ 경기도 가평
031)585-1502

대전에서 포교당을 운영하는 비구니 스님입니다.
포교당을 함께 운영하실 비구니 스님이나 예비스님을 모십니다
※ 예불 의식 역학을 지도해 드립니다
042)527-4268
016)294-5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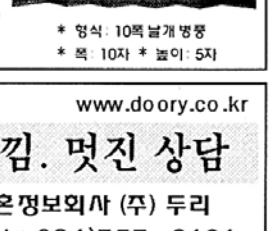
◇ 붓다쇼핑닷컴 ◇
BuddhaShopping.com
실크 마야만다라 족자 십만원
유명작가 진품달마도가 만원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에서)
※ 불교용품 도소매 및 쇼핑몰
※ 불교정보 및 도예 광고 방송
http://www.budda.ne.kr
연락처 016)624-7939
붓다넷코리아

공양간 보살님과 처사님 구합니다
· 보살님 : 공양주 보살님 보조 하시는 일
· 처사님 : 농사외 사찰 잡무를 같이 하실 분
※ 보시금 등의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38-2 성관사
☎ 종무소 063) 353-0396
대한불교 조계종 성관사

모십니다
섬진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절경 아름다운 무등암에서는 기도스님, 행자, 사찰 운영하실 화주보살 및 공양주를 모십니다.
061)772-4109
061)772-5401
011)9302-1618

산중 조용한 암자에 스님이 꼭 필요한 곳은 연락주십시요
011)9825-0108

49재 천도재 시다림 안택 각종 의식에 청하시면 전국 어디든 가겠습니다.
무형문화재 50호 이수자 스님 합장
천도재의 효험 육친의 산소 중에 어느 산소의 탈인지 알아야지요.
무엇이든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053)751-1176
016)587-4500

금강경 병풍보급안내
기도많이 하신 스님께서 쓰신
※ 순수 경면주사 인인본 10폭
※ 원하시는 분께는 표구전의 글씨상태로 보급합니다.
문의전화
031)257-3565
011)213-1514

※ 형식 : 10폭 날개병풍
※ 폭 : 10자 ※ 높이 : 5자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 위치 : 부산 • 위치 : 충남
• 법 당 : 15평 • 법 당 : 20평 • 법 당 : 15평
• 요 사 : 25평 • 요 사 : 50평 • 요 사 : 42평
• 부 지 : 200평 • 부 지 : 300평 • 부 지 : 735평
• 가 액 : 1억 • 가 액 : 3억 5천 • 가 액 : 1억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양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부처님(불상) 모실분
1. 석가모니불 (1) 2. 비로자나불 (1)
3. 노사나불 (1) 4. 관음보살 (1)
5. 지장보살 (1)
성분 : 청동 규격 3자×4자
보시금 총액 5000만원(시세반액)
6. 탱화 4점 2000만원
보시방법, 부동산, 동산도 가능함
▷28~35세 기도스님 모십니다
011)593-6067/051)643-2228

절터 안내
• 충남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
• 준농림지 1700평
• 계곡 좋고, 산새 수려
• 평당 5만원, 절충가능
011)423-3232

건물만 안내 (시골흙집)
• 위치 : 마곡사 근처
• 평수 : 20평
• 3년 임대 700만원
018)330-024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읍내
• 건물 : 법당 10평, 요사채 20평, 정남향, 목재 기화, 종교시설, 등기, 방 2개, 입식 부엌
• 대지 : 88평
• 연혁 및 특징 : 40년 교통, 주차편리, 인적 부지 매입가능, 중창불사 원력 있으신 분 적합
• 가액 : 9천만원
011)879-4791/055)852-4130

www.doory.co.kr
좋은 느낌. 멋진 상담

결혼정보회사 (주) 두리
Tel : 031)757-3121
031)722-5960
H·P : 017)341-4419
초혼 / 재혼 / 국제결혼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내 (지하철역 5분거리)
• 부지 : 5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양도가 : 3억
• 위치 : 수원시내
• 대지 : 94평
• 법당 : 45평
• 요사 : 70평
• 양도가 : 3억 2천
※ 뒤는 산세 좋으며 앞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 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터)안내
• 남원시 (시내에서 8분거리)
• 사찰터까지 차량 진입
• 도로 포장 완료
• 평수 : 약 500평
• 부처님 필요하신 분 지원 해드림
• 가액 : 2천만원(전세도 가능함)
016)441-0097

사찰 안내
• 대지 192평
• 요사채 70평, 법당 20평
• 방 6개, 욕실 2개
• 주방 3개, 거실 3개
• 법당단청 했음, 미륵부처님 모셨음 산새 수려함 큰스님 병환으로 급매
• 임진강 앞이 보이고 자유로 앞에 있음
• 가액 3억 2천 답사후 결정
031)952-7905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 대지 : 270평
• 특징 : 좌청룡 우백호 금괴 포란형 기장 기도 도량
• 가액 : 답사 후 추후 결정
011)526-1824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 대지 : 48평
• 법당 : 23평
• 요사 : 23평
• 가액 : 1억 9천
02)723-4083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근교 산사 • 부지 : 45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가액 : 1억 2천 만원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안내
• 위치 : 마산근교
• 면적 : 330평
• 법당 30평 요사 30평 주지실(유명관광지 옆)
• 양도가 : 3억 5천 (불교신협 융자가능)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함안 (큰마을 옆)
• 면접 : 350평
• 법당 : (2층) 15평 요사 50평 (비구니스님 적격)
• 양도가 : 1억 5천 (능협융자 5천 가능)

사찰안내
• 위치 : 진주에서 차로 10분
• 면적 : 8,000평
• 대웅전 30평 삼성각 10평
• 요사 40평 주지실 15평 (잘 지은 절, 풍수만점)
• 양도가 : 4억 2천

영남지방 전문 사찰 컨설팅 (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18-563-9575 (홈페이지 www.pungsu-serve.com)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의성
• 부지 : 1,100여평
• 법당 : 10평
• 요사 : 22평
• 주차장 완비
• 가액 : 9천만원
016)635-4569

암자 운영하실 분
• 월세 1년 2백 오십만원
• 임법당 신축
• 경북 구미 대구 김천 왜간 중간지점
• 약목면 소재지
017)813-9126
(비구니스님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양정
• 평수 : 25평
• 가액 : 보증금 시설비 포함 1,700만원 월 15만원
• 역사가 된 포교당, 위치 최고 적지 보살, 처사들도 가능함 4월 초파일 준비 완료
011)550-4425
011)553-1006

사찰안내
• 부산 양정동 황령산 자락
산수가 수려하고 경내에 소나무가 수려함
• 평수 : 500평
• 전세 3,500만원 월세 없음
• 요사채방 : 4개
대웅전 산신각 용왕전 천황당
055)385-0066

사찰 급 안내
• 위치 : 노원구 당고개역 3분거리
• 부지 : 약 300평
•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 주차 5대
• 가액 : 1억 7천
011)9756-4845

사찰 안내
• 부지 : 일만평, 오천평, 삼천평등
• 용도 : 사찰, 납골당, 사회복지시설
• 위치 : 경북 포항시 근교(장기면)
• 특징 : 매봉산하 봉황자리 봉황과 맹호 출립형 사계절 맑은 계곡과 좋은 경관
• 용도지역 : 주거지역 및 자연 녹지
• 가액 : 평당 5만~10만(답사 후 절충가능)
054)283-7551~2
011)854-4675

귀 대창불교건축
• 사찰대웅전 건축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불사하실 스님 상담환영
본사 02)595-1573
공장 054)781-4989
HP 016)768-4324 / 011)246-2210

귀 대 창 목 재
• 태백산(울진, 봉화)지역의 적송 춘양목
▲연목 : 12자~24자까지 5치~8치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치
▲기둥 : 18자 : 1자 - 1자 8치
▲도리 : 20자 : 1자 - 1자 8치,
24자 : 1자 - 7치
▲보감 : 24자, 30자, 36자,
42자 : 1자 ~ 2자까지
(주)대창종합개발 이종봉 합장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소재
• 대지 : 347평(20년 전통)
• 건물 : 법당 40평 방3개 사무실 산신각 주차장 20평
• 특징 : 팔공산 갓바위 대불 모셔져 있음. 바다가 내려다 보임
• 가액 : 3억 5천만원
011)9524-8080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진주 20분거리)
• 임야 : 5,000평, 종교부지 800평
• 대웅전 25평, 요사채 40평, 주지실(황토방 30평)
• 가액 : 3억 2천만원
• 특징 : 경치수려, 기도도량 적합
011)804-8561

사찰 터 안내
• 주위 경관 수려하며 절터로서 최상급 임
• 경북 영주시 소재(시내에서 10분 거리)
• 전 : 약 730평 (실평수 1천평 내외) 현재 1차공사로 터 조성과 전기+지하수관정, 시공한 상태 임
• 가액 5300만원(절충가능)
011)9770-1581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반성면
• 대지 : 204평 • 밭 : 110평
• 건물 : 법당, 용왕, 산신, 요사 2채
• 가액 : 1억 3천
011-9526-9693

탈 종 공 고
• 주 소 : 강원도 영월군 영흥 13리 산 68번지
• 사찰명 : 송산사 • 창건주 : 이우성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수행할 수 없어 탈종함을 공고함
불기 2546년 4월
근본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육모정 근처 • 대지 : 1200평 중 종교부지 : 300평
• 전 : 700평 [하천부지 : 300평, 주택지 : 283평 사용가능]
• 대웅전 : 20평 • 산신각 : 4평 • 독성각 : 2평
• 요사채 2동 방 4개 조립식 건물 • 회의실 : 13평 1동
• 현시세 신축건물 매매가격 3억만원(절충가능)
• 불사 할 수 있는 도량. 스님 및 법사님 환영
063)625-9992 011)9642-8833 011)9642-1202

용도 마음수련원, 별장, 토굴, 기타
• 소재지 : 경남 거창군 내, 대구에서 50분~1시간
• 부지 : 600평 • 건물 : 3동
• 건물 : 1동 통나무집, 1층 50평, 2층 30평, 3층 30평(심이보일러) 2동 벽돌, 25평 방4, 거실, 주방, 욕실(심이보일러) 3동 욕각정
• 특징 : 산세가 수려하고 이랑에는 흐르는 생수 연못과 정자가 있고, 잔디와 소나무 조경이 절묘어 있음 정원 앞에는 마르지 않는 계곡이 있어 항상 시원한 물소리를 들을 수 있음 채소밭 텃밭이 있고, 과일나무가 있음. 마당까지 대형차 진입
• 양도가 : 3억 3천(절반가격)
011)9374-0126

사찰 터 안내
• 위치 : 충남 금산 진산면 (대전에 20분거리)
• 대지 : 전, 밭, 임야 합 8746평 도로 전기 공사 완료
• 육각정(목조) 한동 주거용 컨테이너 1동 약수터(옹달샘) 및 연못
가액 : 평당 3만오천원
011)826-6888

포교원 (급)안내
• 위치 : 양천구 신정동 2층
• 평수 : 40평
• 시설비 : 1,500만원
• 보증금 : 천만원 월 50만원
018)710-8798
02)696-3012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문에서 근접
• 건물 : 조립식 건물 법당 30평, 요사채 2, 산신각 10평, 탱화 (부처님, 신장님, 지장님, 산신) 삼존불 모시고 있음 (석가모니불 석불) 증 20관 인등
• 액수 : 7천 5백만원(부지 2만평 포함)
016)422-5328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 통영간
• 부지 : 약 800평(준농림지) 안정 공단 부근, 인구 30만 신도시 개발지
• 특징 : 지산이 높고 좌측에 계곡이 깊어 사철물이 철철 흐름 앞에 삼면이 바다로 확터어 아주 좋음
• 가액 : 4천 5백(절터로 명당)
017)844-9448
016)207-5600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괴산
• 부지 : 580평 법당 : 15평
• 삼성각 : 4평(조립식)
• 요사채 : 35평(현대식)
• 가액 : 9천 5백만원
011)9704-2558
043)832-4785

토굴 안내
• 충북 단양읍 소재 유진 빌라 6동 306호 14평 3층
개인적인 학문연구나 건강휴양처로써 나만의 공간이되어 걸맞 풀어놓고 편히 쉴 수 있는 토굴이라 생각하고 마련할 스님이나 불자님은 연락바랍니다. 투자의 가치가 있는 곳 입니다.
• 가액 2100만원
011)9770-1581

지리산 토굴 안내
• 위치 : 지리산 물좋고 산세 좋은 기도 암자로 적절
• 꼭 인연 있는 스님이나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가액 : 천 3백만원
011)577-2251

신축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113-1
• 부지 : 약 10000평 이상
• 신축 대웅전 20평, 요사채 1
• 실 2억 7천, 가액 1억 7천 전세도 가함
亂世最吉詳之地
061)867-2878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남산동 80번증점
• 평수 : 45평
• 가격 : 보증금 4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 일천만원(최상급)
016)296-5833
017)551-1480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근교
• 용도 : 사찰 및 토굴 등 용도
• 대지 : 밭 합 600평 이상 신축한옥 30평 외 큰 창고 1동 임반지하수 및 농사용전기
• 사찰 맑은 청정계곡과 좋은 교통 및 경관
• 가액 : 8500만원(약간 절충가능)
054)337-5156
011)9857-5156

포교원 (급)안내
• 위치 : 김해 내동
• 법당 : 방 총 60평 (신축건물)
• 보증금 : 3000만원 월세 45만원
017)845-7090

신설 사찰(급)전세안내
• 대구시 수성구 대흥동 447 • 평수 : 600평
• 시설 : 대웅전 1동, 요사채 방 6개 주방 대형 1개, 욕실, 화장실
• 기(氣) 찜질방(방비석) 40평 수용
• 가액 : 2,000만원 보증금 월 45만원 (계약기간 5~10년 까지)
• 시설비 : 5,900만원(모든 비품 포함) (현장 답사 후 가액 절충) 월드컵 경기장 바로 옆 도보로 정문 5분거리 주차장 완비, 대덕산 명당자리
※ 주지스님 건강문제 때문에 급 전세
미 륵 사
053)793-5808/017)588-1656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백두대간
• 상태 블럭조 17평 집 1동(재래식) 1991평(실사용평수 4000평) 불사할 수 있도록 터 잘 되있음 전망좋고 좋은터
• 가액 : 5천 5백만원(시세보다 쌈)
011)9542-2537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에서 관리 운영하는
노인을 위한 아름다운집 평생기도처 개원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 정진으로 마음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 요양원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건물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 하신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복지 이념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복지전문가로 구성된 노인복지의 전문화와 선진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입방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전화 또는 방문을 하여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자광원 조감도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70세이상
부부 또는 개인방 거처하시고 싶은
모든불자(남녀불문)
노환스님. 개인방 거처하시고 싶으신분
◆ 정 원 : 약 30명
◆ 부대시설 : 상담실, 진료실,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목욕탕, 미용실, 법당, 식당, 일광욕실, 정원, 산책로등
◆ 연 락 처 : 전화 031) 759-5310, 5320
FAX 031) 759-4209
E-mail : jkwkey@kornet.net

개원예정일 2002년 4월 (일자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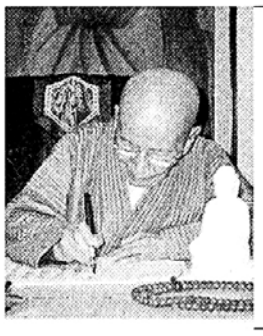
사회복지법인 "부처님마을 자광원" (노인요양시설)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雪山白玉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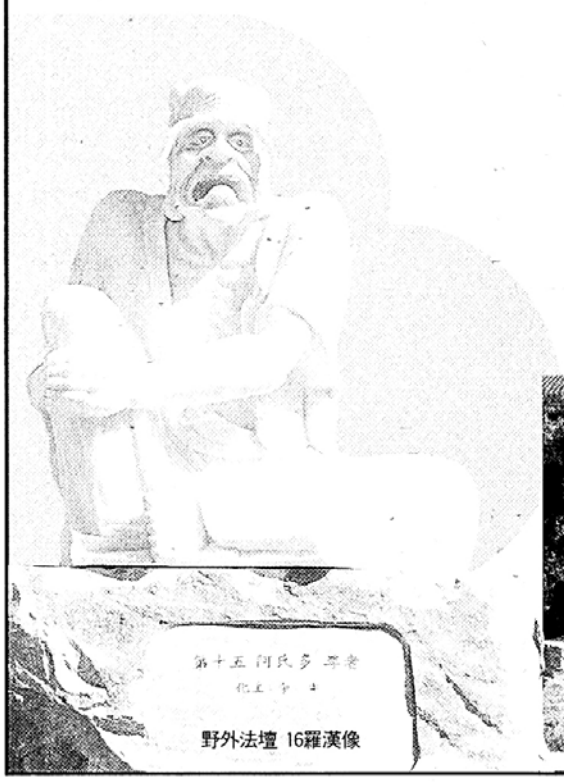
우리부처님
코리아붓다
KOREA BUDDHA
http www korea buddha co.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서울(02) 864-8834 부산 (051) 637-2333
FAX 서울(02) 839-2185 부산 (051) 637-6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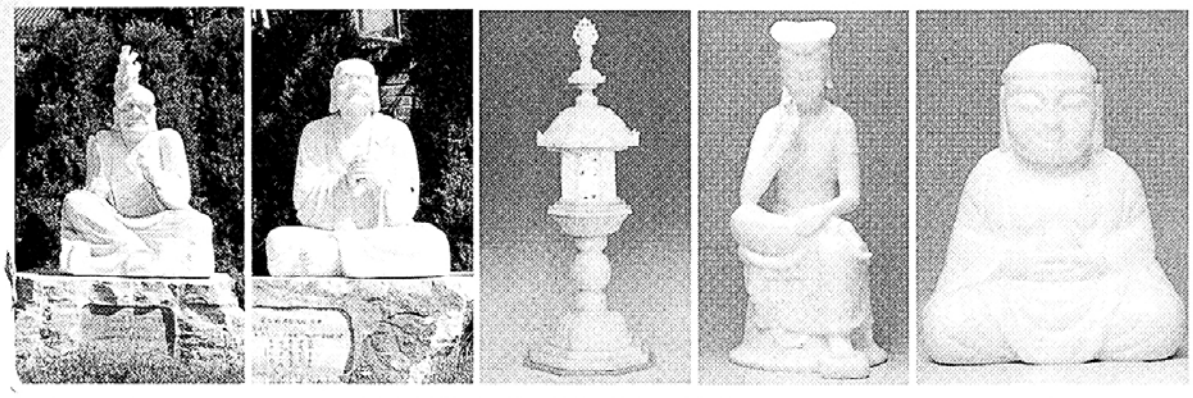


雪山玉佛
釋迦世尊께서成道하신
雪山玉石으로造成한圓滿
慈悲하시고 透徹智慧가
具足하신 無上圓滿聖像
이시다
二五四五年 二月 二十一日
小林 西翁謹書

고불총림방장 서옹 큰 스님 / 추천서



野外法壇 16羅漢像





불자님들이 꼭 읽어야 할 불교 신행의 지침서

신간

우룡 큰스님의 금강경 강설집!

생활 속의 금강경

지금 이 순간의 고난과 그릇된 마음을
항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깨달음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음공부를 잘 성취하고자 하십니까?



이제 금강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시대와 종파를 초월하여 불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금강경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생활 속의 금강경』은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 큰스님께서 그토록 어렵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 접목시켜 쉽고도 재미있게 풀이한 책입니다.
이제 『생활 속의 금강경』을 통해 마음 다스리는 법을 터득하시어 우주에 가득찬 지혜와 영광과 행복을 가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무욕과 무소유의 가르침을 오롯이 담아낸 핵심 경전 금강경!

《이 책의 특징》
· 한글 번역의 문체가 아름답습니다.
· 심오한 금강경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하였습니다.
· 일상생활과 접목시켜 강설함으로써, 삶의 현장에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능히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감동을 주는 일화들을 많이 삽입하여 재미를 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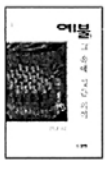
신국판 / 304면 / 값 6,000원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하는가?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우룡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5,000

천수경 천수신앙

불자라면 누구나 독송하는 천수경에 대한 강설집. 경에 숨겨져 있는 참뜻, '천수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 준제진언, 여래 십대발원문까지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을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어, 불자들을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혜국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꼭 새겨야 할 마음가짐과 가르침을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엮은 오분향 예불문의 해설서. 불자들이 궁금해 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타큰스님의 마지막 법문집. 불자의 근본 마음가짐에서부터 불교의 4대수행법인 참선·염불·간경·주력에 대해 자세히 설하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5,000

시작하는 마음

보조국사의 《초심》을 일타 큰스님의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책. 누구나 쉽게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7,000원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제 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법당, 사물(四物), 석등, 탑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번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값 7,000원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타큰스님의 대표법문집. 고뇌 삶 속에서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맑고 주옥 같은 법문으로 행복의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 큰스님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해설해 놓았다. 이 책을 읽다보면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6,000원

육바라밀 수행법

특별한 수행자만이 아니라 일체 중생 모두의 성불을 보장하는 육바라밀 수행법!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의 여섯 가지 바라밀에 대해 그 정신과 실천 방법을 중심으로 쉽고도 재미있게 서술하였습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과연 인간은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 큰스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읽다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자경문(自警文)》은 야운스님이 자기를 돌아보고 깨우쳐 가는 속에 참된 자유와 행복이 발현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지은 것이다. 구구절절 게으름과 방종을 막는 따끔한 말씀으로 빛을 돌이켜 스스로를 비춰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6,000원

지장보살본원경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책.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과 지장염불을 할 때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방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틈림없이 앙가천도 업장소멸 소원성취 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 · 팩스 : (02) 586-9078

불교 이래서 좋다

한재련 이화여대 조소과 3년

"불법 예술승화 가슴 설레"



불교와 친해지고 절과 가까워지면서 나는 스스로 불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는 불제자가 원망과 질시의 감정에 나를 맡기기도 하고, 때로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타인과 나 모두를 속이기도 하니 말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만큼 자책감에 많이 힘들어했고, 어떤 것이 나의 진실된 모습인지를 알 수 없었기에 한참을 방황했다. 부처님께서는 오직 자신을 등불로 삼고 정진하라 하셨건만 흔들리는 등불을 부여잡고 그것에 의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더욱 불교에 심취할 수밖에 없었고 여전히 헤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지난 한해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얻은 것도 잃은 것도 많았다. 미션스쿨을 다니며 종교 간의 넘어야할 장벽 앞에 많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치기어린 도전정신으로 현각 스님 강연회를 주진했었고, 틈만 나면 동아리 회원들과 조선팔도 어디랄 것 없이 사찰답사를 떠나곤 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어찌 해냈나 싶지만 당시에는 내 열정을 모두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불교가 나에게 미친 영향은 대단했던 것이 확실하다. 학과공부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운 일이지만, 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인연은 소중한 내 부분이 되었고 금세 그리워지곤 하는 추억으로 남은 것 같다.

그리고 그 많았던 경험의 연장선상에서 나는 조각 작업을 통해 내 나름의 표현방식을 찾은 기분이다. 불교라는 기반위에서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한 것을 작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설레는 일이며, 그것이 나의 또 다른 분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에 나에겐 더없이 값지다. 이제는 작업을 통해서 나로 인해 불교 예술이, 부처님 법이 여러 대중들에게 친근히 다가갔으면 좋겠고, 이것 또한 작가로서의 길이며 나만의 전법 수단이라 생각하고 싶다.

담배를 끊읍시다

D-Day 정해 절연

가. D 마이너스 5일
필요한 소도구 준비
① 가족 친구 지인에게 D-DAY 공표
② 피우던 담배의 종류를 바꾼다
③ 금연 동기표(動機表) 작성
④ 가능하면 자기암시문(自己暗示文) 녹음한다.

나. D 마이너스 4~3일
금연 동기표 되풀이해 읽기
① 알맞은 시간에 자기 암시문 청취 혹은 금연을 명상한다.

다. D 마이너스 2일
① 금연 동기표 되풀이해 읽기
② 담배 종류를 바꾸고 (기호가 아닌 것) 두 갑으로 흡연량 증가

라. D 마이너스 1일
① 금연 동기표 되풀이해 읽기
② 흡연량 2배 증가, 싫더라도 담배 혐오감 극대화 유도한다

마. D DAY
확실한 자신감을 갖는다.
① 기상 직후 쥬스 한 컵, 양치질
② 잘 씹어서 천천히 식사 후 또 한번 양치질
③ 금연껌 신경안정제 등 기호품도 휴대
④ 금연동기문 읽기
⑤ 자기암시문 녹음 청취

가족 · 친구에 공표 … 동기표 작성

'부처님 오신날' 한달 앞 종립학교 봉축준비 분주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온 부처님오신날. 종립학교들은 봉축 행사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4월 1일부터 동대부고(교장 한성규)가 예쁜 연등을 만들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전국 종립학교들이 '사경대회', '부처님께 편지쓰기',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이 함께하는 연등제작 경연대회, 댄스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봉축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우리요? 연꽃소녀랍니다.' 서울 진선여고 연화회 학생들이 교내 심인실(법당)에서 연꽃잎을 말고 있다.

동대부중(교장 주정식)은 5월 15일에 '선생님과 부모님이 함께 하는 교내 연등제작 경연대회'를 갖는다. 이번 대회는 제한 시간 내에 선생님, 학부모, 학생 등 10명이 한 팀이 되어 하는 등만들기 경연. 18일에는 연등축제 비디오감상과 자신의 소망을 담은 사연을 부처님께 띄우는 '부처님께 편지쓰기' 행사도 벌어진다.

진선여고(교장 이종원)는 지난 10일부터 교내 심인실(법당)에 법등원을 개원하고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교정을 장엄할 연등을 제작하고 있다. 단순한 연등, 컵등이 아닌, '죽비등', '교복입은 진선여고등' 등 창작등을 제작하는데, 이 작품들은 진각종이 주최하는 등경연대회에 출품할 예정이다. 또한 진선여중(교장 한기수)은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은혜경〉사경대회'를 벌인다. 5월 19일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리OX퀴즈대회'도 연다.

대구 심인고등학교(교장 박노선)는 5월 19일 오후 2시부터 국채보상공원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댄스페스티벌'을 갖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총 20여 팀이 참가해 역동적인 춤사위를 선보일 전망이다. 능인고등학교(교장 손기완)는 5월 11~19일 '봉축대설법회 교리퀴즈대회', 찬불가 부르기, 글자 모자이크 만들기 등을, 대전 보문중학교(교장 윤여진)와 보문고등학교(교장 사세희)는 26일 '봉축 기념 포스터 및 만화그리기 경연대회'를, 의정부 광동여고(교장 윤종희)는 5월 17일에 마야부인선발대회, 사경대회, 봉축수계식, 반야심경 암송대회 등을 각각 연다.

'자비의 쌀 모으기', '자비의 헌혈', 독거노인 방문 등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도 펼쳐진다. 광주 정광고등학교(교장 정인영)는 5월 18일 '자비의 헌혈' 행사를 열고, 인근 송광종합복지관으로 독거노인을 방문한다. 평택 청담정보통신고(교장 이근우)와 청담중학교(교장 김동명)는 5월 12일부터 26일까지 일년 동안의 학생들 자원봉사활동을 사진으로 보는 '교내자원봉사활동 사진전시회'를 갖는다.

◈전국 종립학교 봉축행사 일정

학 교	일 시	봉 축 행 사
동대부고	4월 26일	자비의 쌀 모으기 운동, 연등제작
	4월 27일	등만들기 시연회
동대부중	5월 15일	교내 연등제작 경연대회
	5월 18일	부처님께 편지쓰기
진선여중	5월 1일~20일	〈은혜경〉사경대회
	5월 19일	교리OX교리퀴즈대회
명성여중	5월 15일	봉축 사경대회
	5월 18일 / 22일 / 24일	백일장 / 합창대회 / 사생대회
대구 심인고	5월 11일	봉축 기념 제2회 댄스페스티벌 경연대회
대구 능인고	5월 11일~19일	봉축대설법대회, 찬불가부르기,만자모자이크 만들기
광주 정광고	4월 28일	무등청소년 백일장
	5월 18일	자비의 헌혈
대전 보문중	4월 26일	봉축 기념 포스터 및 만화그리기 대회
	5월14일	교내 관등법회
부산 해동중	5월 6일	봉축기념음악회
의정부 광동여고	5월 17일	마야부인선발대회, 봉축수계식 반야심경 암송대회
평택 청담정보고	5월 12일~26일	교내자원봉사활동 사진전시회
	5월 6일	사찰참배 봉축 글짓기 사생대회
금산중 · 고	5월 19일	사제합동법회 연등축제 사경대회

연등 경연 · 부처님께 편지쓰기 등 다양
교리 OX퀴즈 · 쌀모으기 · 자비 헌혈도

청소년 담당=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청소년 단신

'한민족 역사문화탐사' 우수 프로그램 선정돼

사단법인 비로자나 청소년협회(회장 혜명, 이하 비로자나)의 '한민족 역사문화탐사' 프로그램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2002년도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또 서울시와 성북구청이 주최하는 'S.A.Y(Sungbuk Area Youth WorldCup Festival) 월드컵 페스티벌' 주관단체로 선정됐다.

지난달 서울시 공모전에서 선정된 비로자나의 '한민족 역사문화탐사' 프로그램은 중국 심양, 연길 일대 고구려 문화유적지를 탐사하는 것으로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6박7일간 실시된다. 또 월드컵을 주제로 한 지역 청소년 문화축제인 'S.A.Y 월드컵 페스티벌'은 5월 11일 성북구민회관에서 열린다. (02)942-0636

네티즌 불교동아리 순례

아제아제 바라아제

신도 · 초심자에 눈높이 맞춰
새법우 소개 · 수행코너 등 다양

"아제아제바라아제는 반야심경의 마지막 후렴구로 만든, '피안으로 가기위한' 불교동호회입니다. 부처님 품안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신나는 동호회를 만듭시다. 어서 오십시오…"

포근한 정이 흐르는 '아제아제바라아제'(http://club.korea.com/bud, 이하 아제동)는 1999년 8월 개설됐다. 3년여의 활동기간동안 정기적인 온라인 모임과 유적지 답사활동을 통해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회원간의 친목도모도 활발히 하고 있다. 현재 회원수는 608명. 규모가 크진 않지만 회원들 간의 친밀도가 높다.

'아제동'에서 운영하는 코너를 보면 회원이면 누구나 불교계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교계뉴스, 동호회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점, 나아갈 방향 등을 수렴하는 공개제안, 비회원이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손님방과 새로 가입한 신입회원이 동호회에 정을 붙일 수 있도록 자신을 소개하는 새 법우 소개, 회원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나 알리고 싶은 이야기를 다루는 세상사는 이야기, 신행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답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등으로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또한 참회와 발원문을 올린 불보(부처님께 발원), 경전의 내용을 올린 법보(팔만대장경), 회원들이 알려주고 싶은 법문을 소개한 승보(들려주고 싶은 법문) 등의 삼보 코너는 '아제동'의 독특한 신행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수행을 위한 계(초심자방), 정(참선방), 혜(경전 공부방)에서는 여러 가지 수행법이 고루 소개된다. 그밖에 경전, 선, 그림/음악, 포교, 기타 등의 다양한 자료들로 가득 찬 자료실이 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초기화면.

초심자나 불교를 잘 아는 사람 모두에게 고루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 '아제동'. 코리아 닷컴 회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이곳, '아제아제바라아제'에는 사람들의 진실한 향기가 흠씬 묻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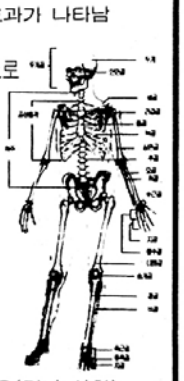
이한길 기자 sunggak@buddhapia.com

관 절 염
↓
자생환(自生丸)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 악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 습 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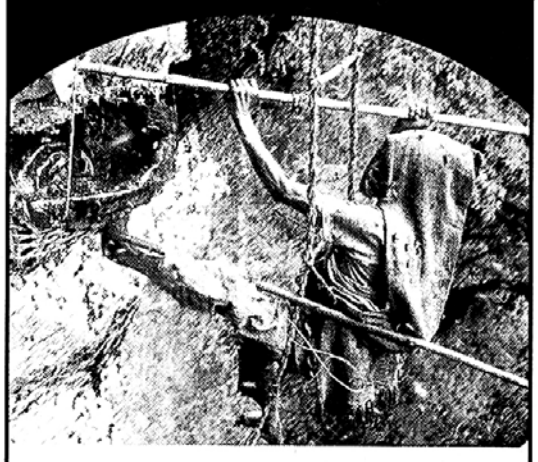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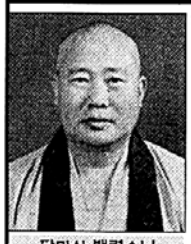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히말라야 석청 탐사 대원 모집



◆일 시 : 2002년 5월 25일 ~ 6월 4일
◆대상지 : 네팔 히말라야 일원
◆모집인원 : 사부대중(약간명)
◆문의처 : 전화 051)442-1814
051)461-0064
◆주 최 : 부산등산연구소
◆후 원 : 네팔 아시안 트랙킹

"코골이, 당뇨, 만성변비, 특효"



달마사 백련스님

KBS 2002. 3. 13 토요아침 방영
MBC 1999. 8. 7 고향은 지금
(코골이 연구 10년)
경양위 제365호
특허 13629출원

오랜 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육학+음양오행+신통력+선도특수법+천지 민간 약초로 수년을 연구하신 백련스님
공기오염 자동차매연 오염된 물 농약에 찌든 채소과일등으로 현대병이 많은 이런 분께 드리겠습니다.

1. 오랜 세월 코골이와, 비염, 축농증 고생하신 분
2. 만성변비 약드실 때만 괜찮고 재발 하신 분
3. 당뇨병으로 수년간 고생하신 분
4. 류마치스 관절염, 신경통 산후병 고생하신 분
5. 위장병 고민하신 분

이 제품은 깊은 산중에 자생하는 약초로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모든 제품에 효능을 직접 느끼십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달마사 불사에 쓰여집니다.

TEL. 055-385-0065~6
H.P. 011-570-3357

코스모피아
빛의 수련
Soul of Light
인류의 영적인 진화 · 발전 그리고 깨달음!
김지호 지음 / 산국판 / 9,000원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수련서

무수한 차원과 시공간으로 이루어진 광대한 우주를, 이제 우리는 단순한 꿈과 이상이 아닌 더 구체적인 정보적 차원에서 우주 존재의 실상에 다가간다.

정보의 바다, 정보의 구성체인 우주는 불가에서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 표현하고 있듯이 고정불변의 정지된 상이 없이 순간순간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우주의 변화는 무질서한 혼돈의 상태가 아니라 보다 더 완전해지려는 고차원적인 우주적 질서를 따라 무한한 진화와 발전을 한다.

축기를 지양하고 사랑과 자비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는다

소우주라 일컬어지는 인간도 이러한 고차원적인 우주적 질서와 하나되어 진화 · 발전하려는, 보다 더 나은 존재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상향적 의지를 갖는다. 이를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는 자아탐구 및 우주의 존재의 법칙 등을 궁구하게 되었다.

이 책은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수행하고, 우주의 실체를 알고 자신의 신성을 찾아 깨달음에 이르도록 체계적으로 정리 · 설명하였다.

삶과꿈 서울시 중구 장교동 1번지 장교빌딩 2608호 ☎ 755-9311~5(영업부) 318-2011(축판기획부)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준공

3년6개월 공사, 5월1일 도량불사 회향 · 부처님 점안법회

법당 · 대강당 · 전시실 · 예식장등 갖춰

나지막한 담장 · 마당 시민공원 조성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지원장 혜계, 대구시 수성구 중동)이 5월 1일, 3년 6개월간 정성을 모아 완공한 법당의 준공법회와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불교적 전통미와 현대적 실용성이 조화를 이룬 대지 753평, 건평 754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은 이날 도량 불사를 회향하며 미래의 정신계를 이끌어 갈 인재불사에 나선다. 대구를 관통하며 흐르는 신천을 낀 도심에 위치한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은 스님들과 불자들의 수행과 신행을 위한 법회공간의 기능과 함께 지역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지역민과 불자들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공간활용도를 최대화한 건물의 각 층은 수행공간과 신행공간으로 나누어 설계됐다. 지하 1층에는 대강당, 공양간, 식당, 휴게실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특히 7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은 오디오, 비디오 시설을 완비하고 영화 감상, 연극, 합창 공연, 전시장, 예식장 등 지역민들의 문화공간, 복지공간으로 개방된다. 또한 지상 1층은 신도들의 정진 공간으로 종무소, 신행회실, 자료실, 소강당을 갖추어 유치부, 학생부, 청년부, 법형제회, 15개의 신행회 등의 각종 신도 모임과 소법회가 열리게 된다. 석가



◇5월1일 준공법회를 갖는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전경. 나지막한 담장과 조화를 이룬 마당은 지역민들의 휴식처인 시민공원으로 조성됐다.

모니 부처님을 주볼로 모신 지상 2층 법당은 실용성을 살린 다른 층과는 다르게 전통건축기법을 도입해 웅장하고 장엄하다. 곳곳에 탱화, 목탱화, 심우도 등으로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길을 열어 보이고 있다.

1990년 20여명의 신도들이 첫모임을 가진 것을 인연으로 91년 개원한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은 여러 차례의 대행스님 대법회를 열며 대구지역의 중심도량이 되어왔다. 현재 각 신행회와 풍물패인 한소리단, 다도회 차우림, 송인 혼성합창단 등이 정진하고 있으며 특히 절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법회 지도교사들로 구성된 자모회는 청소년 문제와 자녀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청소년 포교와 교육의 모델이 되고 있다.

지원장 혜계스님은 "모든 인연들의 정성이 모여 이룩한 불사"라며 "소중한 인연, 소중한 만남을 더 크게 회향하기 위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길을 밝혀주는 수행과 포교의 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1일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원명스님을 증명법사로 열리는 법당 준공법회에는 지역의 대덕 큰스님과 신행단체장, 한마음선원 각 지원 스님과 신도 등 5천 여 사부대중이 동참해 법당 준공을 축하한다. (053)767-3100

대구=천미희 기자

자광원, 노인요양원 개원

물리치료 · 오락실 · 기도정진법당 등 갖춰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원장 김정자)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번지에 치매중풍노인을 위한 노인요양원(사진)을 설립, 22일 개원식을 가졌다.

자광원이 10년 장기사업으로 추진중인 '불교노인복지전문타운' 조성계획에 따라 건립된 이번 노인요양원은 대지 400여 평, 건평 160여 평 규모로 1층에는 물리치료실, 목욕탕, 미용실, 오락실, 일광욕실, 상담실, 식당, 간호사실 등의 부대시설이 들어섰으며, 2층과 3층에는 18개의 방이, 4층에는 법당이 조성됐다.

70세 이상의 노인 3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원은 염불과 기도 정진할 수 있는 법당이 있어 평생 기도처로서 여생을 보낼 수 있다.(031)759-5310

성남=김철우 기자

게시판

▲철야 정진 법회=남원 실상사는 화엄회 철야정진 법회를 27~28일 연다. (063)636-3031

▲'우리소리 한마당'=조계사는 27일 오후 3시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판소리 명창 안숙선 불타전을 개최한다. (02)732-2183

▲불교상담기본교육=불교상담개발원은 16기 자비의 전화 및 2기 사이버상담원 양성 교육을 모집한다. (02)737-8803

▲'가족커플 마라톤 대회'=자양사회복지관은 5월 11일 뚝섬유원지에서 사생대회 겸 '가족커플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 (02)458-1664

▲'좋은 세상 만들기 행사'=목동청소년수련관은 5월 11~12일 수련관 1층 청소년 극장과 목동 파리공원에서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각각 갖는다. (02)2646-6815

▲'미니 올림픽 대회'=안양노인복지센터는 5월 8일 '미니 올림픽' 대회를 연다. (031)455-0551



◇14일 101여단 호국백일사에서 장병들과 함께 법회를 보고있는 포교사들.

새 포교사 군법당 현장교육

즈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스님)이 정한 '군포교의 해' 맞아 포교사단(단장 김대중)이 신규 포교사들에게 군법당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10여명의 신규 포교사들은 현재까지 육군 101여단 호국백일사를 비롯한 경기지역 10개 군법당에서 군포교를 실시했다.

조계종 포교사단 곽명희 홍보위원장은 "신규포교사들에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포교에 대한 사명의식을 심어주고 책임감을 길러주기 위해 현장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진각종, 한중불교교류 활성화

대표단 중국방문 양국문화협력

진각종이 중국불교협회의 초청으로 19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한 · 중 불교교류 활성화에 나섰다.

진각종의 이번 중국방문은 지난해 중국에서 개최된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때 중국불교협회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대표단으로는 효암 통리원장을 비롯해 혜인 총무부장, 혜명 포교부장, 무외 문화사회부장, 의현 교육부장, 상제 사감부장, 일현 부산교구청장, 덕정 진각대 교무처장 등이 참가했다.진각종 대표단은 중국을 방문하는 첫날인 4월 19일 중국 종교사무국 엽소문 국장 및 관계자들과 만나 양국 문화교류 협력에 대한 환담을 나눈데 이어, 도술인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등 관계자들과 한중불교교류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또 20일에는 중국 스님들의 양성기관인 불교학원을 방문하고 옹화궁 등을 둘러보았다.

대표단은 27일까지 중국의 밀교사찰로 유명한 납복릉사, 대안탑, 대흥선사, 청룡사, 법문사, 옥불사 등지를 참배할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신라9산선문 중의 하나인 성주산문이 개창된 보령 성주사지에서 봉행된 봉축법회.

성주사지서 봉축대법회

천 년 세월을 간직한 옛 절터에서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연등이 켜졌다.

성주사복원추진위원회(위원장 이대원)는 13일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2번지 성주사지(사적 307호)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대법회와 점등식을 가졌다.

봉축 대법회는 보령시 사암연합회장 경법 스님, 강화 선원사 주지 성원 스님, 추진위원 오정길 목사, 명영식 전 충남도의원, 이시우 전 충남도의원, 불교TV 육법공양회, 선원사 합창단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집행위원장 성원 스님(강화 선원사 주지)은 "앞으로 해마다 봉축 행사를 통해 지역 불교계의 관심을 모으고, 폐사지 복원이 단순한 관광 상품이 아니라 사찰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주사지는 신라 문성왕 때 낭혜무염선사가 성주산문을 개창한 곳으로 최치원이 왕명을 받아 지은 탑비인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가 국보 8호로 지정돼 있다. 이밖에 석탑 3기가 보물로 지정돼 있다.

권형진 기자

목탁소리

환경훼손 왜 침묵하나

천 미 희 (부산 주재기자)

우리나라의 막무가내식 난개발은 무엇이든 손 끝에 닿기만 해도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권능으로 오히려 모든 것을 잃었던 '미다스의 신화'를 생각나게 한다.

현재 금정산과 천성산의 허리를 자르며 걷잡을 수 없는 자연파괴를 야기하게 될 고속철 건설은 '노선 변경 불가'의 논리로 진행되고 있다. 금정산과 천성산의 파괴는 서울과 부산간 소요 시간을 20분 단축시키기 위한 황금손과 같다. 20분 빨리 가기 위해 맑은 공기와 푸른 숲을 포기해야 하는 선택을 이제 우리는 거부해야 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18일 북한산 관통도로와 관련 임인택 건설교통부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5년 남짓의 세월이 흐르면 다시 도로의 필요성이 제기돼 북한산만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처럼 몇천년의 세월동안 누려왔던 자연의 혜택을 일순간에 잃어버릴 위기에 놓였음에도 어쩐 일인지 많은 시민들과 불자들은 침묵하고 있다.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엄청난 상실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맑은 공기와 숲을 지키는 일은 몇몇 스님들과 시민운동가들에게 맡겨둔 채 무관심하다. 법어사, 내원사, 통도사를 주축으로 결성된 공동대책위와 환경단체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속철 공단이 노선 변경 불가, 공사 강행이라는 배짱을 부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정산과 천성산을 살릴 수 있는 힘은 몇몇 스님이나 환경운동가들에게서만 나오지 않음이 명백해졌다. 불자들을 비롯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만이 민족의 정기를 이어온 금정산과 천성산, 북한산을 살릴 수 있다.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적극 나설 때' 환경은 지켜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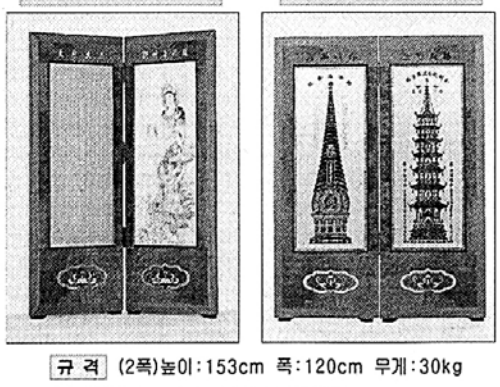
서울 중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집안의 어느장소이든 펼쳐만 놓으시면 그앞이 법력(法力)과 법기(法氣)로 충만된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되는……

관음(觀音)병풍 과 불탑(佛塔)다라니병풍

▣ 관음병풍 ▣ 불탑다라니병풍



규 격 (2폭)높이:153cm 폭:120cm 무게:30kg
보급가 : ₩1,300,000(한품당)
<신용카드할부구입가능>
※카다로그를 원하시면 연락주시는 대로 보내드립니다.

특 징
① 집안내의 어는 장소이든 구애 받음이 없이 펼쳐 놓을수 있으며, 어느 공간이든 본 병품을 펼쳐 놓으면, 그곳이 법력과 법기로 가득찬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됩니다.
② 병풍은 전체가 모두 두꺼운 무늬목 목재로 되어 있어 변형되지 않고, 영구적이며, 백의관세음 보살님은 황동판위에 모시어 훼손 될 염려가 전혀 없으며, 불탑다라니와 관세음보살 보문품경은 황동 판위에 양각으로 새겨서 금도금을 한후 표면에 특수코팅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으며 먼지등이 묻었을 때에는 고운 융걸레로 닦으시면 됩니다.
③ 불자 집안의 가보로서 대대손손 물려주실수 있는 성품(聖品)입니다

⊙ 카다로그를 보실때보다 본 병풍을 직접보신 불자님들은 모든분이 한결같이 환희심을 내시어 집안에 모셔가겠다고 마음을 내실 정도의 성품이므로 본회에서도 직접보여드릴방법을 강구하고 있아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음병풍과 불탑다라니 병풍은 그효험이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연따라 마음에 닿는 한 병풍만 택하시면 됩니다.
⊙ 현재 큰스님방에 펼쳐놓으시도록 시주하시는 신도분들도 계시고 본인의 집과 분가한 자녀들의 집에 한품씩 놔 주시는 불자님도 계십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절 찾는데 불편없게 문턱 낮추자"

대구 불광사 이색 장애인돕기

법당 통하는 계단 없애고 경사로 설치
장애인불자회 창립, 사찰에 사무실



◇대구 불광사는 법당으로 통하는 계단을 없애고 경사로를 설치하는 한편 장애인 전용 화장실과 식당, 사무실을 마련했다. 사진=손법천 대구지사장

'장애인들도 절에 가고 싶어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와 불교계의 무관심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사찰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불자회를 창립하는 등 장애인 포교에 적극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대구 불광사(주지 돈관스님)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도 찾아올 수 있는 절을 만들자'는 목표 아래 절 구석구석에서 '문턱 낮추기' 공사를 시작했다. 그동안 조계종 총무원과 일부 사찰에서 장애인 경사로 등을 설치한 적은 있었지만, 현재 대부분 자취를 감춘 실정이어서 이번 불사는 더욱 관심을 끌었다.

불광사는 장애인들이 혼자서도 법당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물론, 불편없이 예불을 드릴 수 있도록 법당으로 통하는 계단을 없애고 경사로를 설치했다. 휠체어를 타거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식당과 화장실도 바꾸었다. 또 21일 대구경북 장애인불자회(초대회장 박종근)를 창립하고 이들을 위한 사무실을 사찰 내부에 설치했다. 신도회(회장 법공)도 공사를 돕겠다고 나섰고, 60여명의 장애인 신도들과 1대1 자매결연을 맺기로 했다.

"지난해 영천 은해사에서 장애인 문화탐방 행사가 있었는데, 장애인 3천여 명이 참가했어요. 이 때 종각에서부터 법당까지 불과 100m 남짓한 거리를 4시간에 걸쳐 올라가 눈물을 흘리며 참배하는 한 장애인의 모습을 보고 이번 공사를 준비했어요."

불광사 주지 돈관스님은 이 일을 통해 종교시설에서조차 우리 사회의 약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찰부터 바뀌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말했다.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 후원회(회장 돈명스님) 부회장을 맡고 있는 돈관스님은 사내 불교대학에 입학한 10여명의 장애인 불자를 중심으로 한 불교교육을 실시하고 외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차량봉사대를 모집, 직접 '모셔오는' 서비스도 시작할 계획이다. 한시적 장애인이라 할 수 있는 노인, 임산부 등에게도 똑같은 서비스가 적용될 예정.

대구경북 장애인불자회 박종근 회장은 "사찰 내에 장애인전용 경사로와 화장실, 공중전화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이나 점자 및 음성안내문 등을 하나하나 갖추어 나간다면 450만 장애인에 대한 포교가 큰 성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고속철도 금정산 통과반대
6대종단 종교인들도 합세

스님 · 목사 · 수녀 등 50여명 "환경파괴 저지"

금정산 고속철도 통과 반대에 6대 종교인들이 힘을 보탰다.

금정산고속철도 통과반대 시민 · 종교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6대 종단 종교인들은 16일 광장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생명존중과 금정산 고속철도 통과 반대를 위한 종교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정여스님, 도관스님, 원형은 부산교회협의회회장, 이윤구 인제대총장, 주예교회 김상훈 목사, 청원수녀원 솔리나 수녀 등 50여명은 "고속철도 대구-부산간 노선 건설로 수많은 생명과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며 "모든 종교인들이 합심하여 반생명적인 금정산 파괴를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종교인들은 시청을 방문 안상영 부산시장과의 면담에서 이같은 뜻을 전하고 부산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이석영 고속철도 공단 이사장은 16일 범어사를 방문 범어사 주지 성오스님, 내원사 주지 혜등스님,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 등 공동대책위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공동대책위는 "예산을 낭비하고 자연까지 파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노선변경을 요구했으나 이영석 이사장은 노선변경 불가라는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공동대책위는 노선변경이 관철될 때까지 20일 자전거 거리홍보를 비롯, 법적 대응, 서명, 집회, 항의방문 등 지속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부처님 자비광명 북녘 곳곳에… 불기 2546년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17일 서부전선 최전방 애기봉에 남북평화통일과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북녘에도 깃들기를 기원하는 연등이 환하게 밝혀졌다. 김포=고영배 기자

어느불자의 무주상보시
신장이어 간장도 기증

두 차례의 장기기증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실천한 불자가 있어 화제다. 더욱이 한사코 실명을 밝히지 않고, '원명'이라는 법명만 드러내 무주상보시의 보살행 실천에 귀감이 되고 있다.

아내와 두 자녀의 가장이기도 한 원명 거사(48세)는 1995년 당시 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14세 학생에게 신장을 기증해 소중한 생명을 살려냈었고, 7년이 지난 올 4월 2일에 55세 간암환자에까지 간을 기증했다.

올해 초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와 결연한 원명 거사가 간 기증 의사를 밝혔을 때, 의사들조차 부작용 등의 이유로 반대했었다. 그러나 조직검사결과, 이식 가능 진단에 따라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조직의 일부를 이식하는 수술을 했다.

(사)생명나눔실천회의 기증회원이기도 한 원명 불자는 "장기기증은 환자 한 사람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환자 가족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선물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북한산 도로 건설 일시중단

정대 총무원장의 공사재고 요청에
임 건교 "환경피해 최소화 · 충분보상"

건설교통부가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를 6월 월드컵 행사 때까지 일시 중단하고, LG건설 등이 의정부지원에 4월 2일 제기한 철거단행가처분소송도 취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8일 임인택 건설교통부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한건주의적인 국토개발 행정관행을 친환경적 건설교통행정으로의 근본적 전환을 당부한다"며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부고속철도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하여 친환경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인택 건설교통부장관은 "불교계, 환경단체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겠다"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한산 관통노선은 변경이 어려운 만큼 환경 부담을 저감시키고, 충분한 보상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LG건설 등은 철거단행가처분소송에 앞서 의정부지원에 제기했던 정진도량과 부속건물에 대한 철거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9일 판결된 '청정도량 철거명령'은 무효처리 됐다.

김원우 · 강유신 기자

조계종 서울광역신도회
북한산 도로 반대…환경위 구성

조계종 직할교구 신도임원 연수 참가자는 14일 서울 봉은사에서 '정부와 LG는 자연파괴 · 수행환경 훼손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정부 송추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광역신도회(회장 김진관) 환경위원회(위원장 이차환)를 구성했다. 신도회 차원에서 환경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개 신도단체 대표 65명은 설명서를 통해 "북한산국립공원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우회노선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동국불교네트' 6월말까지 구축

동국대 불교자료종합전산화추진위원회는 동국대 소속 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중인 불교관련 학술 정보를 한 곳에서 공유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시스템인 '동국 불교네트'를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동국 불교네트'는 동국역경원, 전자불전연구소, 정각원, 불교문화연구원, 박물관, 도서관 등 교내 6개 기관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불교관련 학술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쉽게 불교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1차적으로 이들 홈페이지를 링크해 한 곳에 모아 놓는 작업을 늦어도 6월까지는 마무리한다. 권형진 기자

'중국 민항기 희생자' 추도법회

정대총무원장 애도성명

불교계가 지난 15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중국 민항기 추락사건 희생자과 유족들을 위한 추도 법회와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6일 "중국 민간항공기 추락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영령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며, 희생자 가족 여러분께 이천만 불자들과 함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는 애도의 성명을 발표했다.

통도사(주지 현문스님)는 17일 대웅전 앞 야외법회장에서 본 · 말사 스님과 신도, 내빈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기 추락사고 희생자 추도 대법회를 열었으며, 김해시불교연합합창단은 김해시청 4층에 마련된 유가족들 대기소에서 유가족 식사,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해시불교연합회는 희생자들을 추도하는 49재를 사고현장에서 지낼 예정이다. 김원우 · 천미희 기자

수련회 운영사찰
소임자 첫 연수

조계종 교육원은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경기 화성 신흥사에서 수련법회나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송광사, 백양사 등 18개 사찰들의 소임자들을 대상으로 '제1회 수련회운영사찰 주지 · 소임자 연수'를 개최했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수련법회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수련회 운영사찰들의 지속적 관리 △주말 단기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방안 확립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수련법회 운영실무 공유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한명우 기자

山蔘의 효력이 없다고요?

만삼蔓蔘(黨蔘)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에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제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약재라 합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천식이 떨어졌다.
◆ 인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낳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黨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읍니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심정으로 염가에 드리고져 합니다.
(시증가 Kg당 3만 5천원을 1만 5천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만삼 10kg(황기, 진대, 삼지구엽초, 생강, 대추, 감초)
■ 1Box × 60포 : 15만원 ■ 2Box × 120포 : 2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8292, 562-2165
● 성 명 : 심 정택 H·P 016-345-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당뇨·고혈압

당뇨병 혈당강하 조절제

국내약초 100%
야생약초 90% 生人정

▶ 혈액이 개선되며, 신체의 이상이 정상이 되며, 비만도 해소됩니다.
▶ 100%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약초이며, 90%는 야생약초로 사용하였습니다.
▶ 생인정은 일부는 달이고 일부는 볶아서 배합하여 생산하였으며 일체의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생인정은 식품으로 먹는 약재만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 없습니다.

복용시 나타나는 현상

• 소변량이 증가하고 소변횟수가 줄어듭니다.
• 신장기능 약화에 의한 불쾌감이 해소됩니다.
• 불면증이 없어집니다.
• 관절의 통증과 붓기가 없어집니다.
• 일반적 무기력감과 피로가 없어지고 원기 회복이 됩니다.
• 거친피부가 고와집니다.
• 고혈압 증상이 개선되고, 어지러움과 부종이 없어집니다.
• 대변이 황금색으로 변하고 대소변을 보고난 후에 시원한 느낌이 나타나고 방귀냄새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 복용초기에 눈꼽이 나오는 느낌이 오거나, 위장이 나쁜 사람은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나타나지만 점차 없어집니다.
• 간혹 체질에 따라 아픈 곳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다가 점차 없어집니다.
• 위의 설명은 체질이 개선되는 현상임으로 안심하고 꾸준히 복용하시면 정력과 활력이 솟아납니다.
• 신약을 복용중인 사람은 생인정을 함께 복용하면서 점차 신약을 줄여 15일 정도 경과후 신약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 생인정 복용시 대부분 2주 이내에 개선현상이 나타나고, 간혹 체질에 따라 늦게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 복용중 개선현상이 의심되면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용분과 박스포장비 5천원을 공제하고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1개월분 ₩150,000

1일 3회, 1회 3~4정씩 섭취(나이와 소화능력에 따라 조절)

생 인 당
주문 및 상담 (054)281-0544

백제불교 최초도래성지

부용루 상량식 및 합동 방생 대법회



오늘 한국불교 최고 성지 조성의 일환으로 마라난타존자상 아래 위치하게 될 부용루의 상량식과 합동 방생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사암 주지스님들과 신도님들께서는 미래 한국불교의 요람이 될 최고의 성지에 봉행되는 대법회에 적극 동참해 주실것을 권청 드리는 바입니다.

※ 부용루 상량식 ※	※ 방생 대법회 ※	오시는 길
• 증 명 : 서옹대종사(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 기념행사 : 오후12시30분	• 서울→정읍IC→고창→법성포
• 법 문 : 천운큰스님(조계종 원로의원, 향림사 조실)	• 방생 대법회 : 오후3시	• 광주→운장→영광→법성포
• 시 간 : 오후 2시	* 비다에 방생할 어종은 행사측에서 마련함. 개별적으로도 가능	• 서해안 고속도로→영광IC→법성포
		• 대구(88고속도로)→광주→영광→법성포
		• 부산(남해고속도로)→광주→영광→법성포

사회자 : 방송인 김 병조
문의전화 : 사무국 (061) 356-6008, 백양사종무소 392-7502, 불갑사종무소 352-8097

일 시 불기 2546 (2002)년 4월 28일 (日) 오후12시30분
장 소 전남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백제불교 최초도래성지
후 원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조계사, 용주사, 신흥사, 월정사, 법주사,마곡사, 수덕사, 직지사, 동화사, 은해사, 불국사, 해인사, 쌍계사, 범어사, 통도사, 고운사,금산사, 백양사, 회엄사, 선암사, 송광사,대흥사, 관음사, 선운사, 봉선사
주 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다 정
주 관 대한불교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연합회 회 장 법 장

사방 30리 절터…천년을 保任 삼매에…

사상 최악의 황사(黃砂)바람 속에서도 여주 고달사(高達寺) 터는 산수유 꽃 축제가 한창이었다. 고달사 터 산수유 꽃 축제는 축제의 오랜 내력을 말해주는 듯 수없이 회갈색 수피(樹皮)를 벗어던진 밑둥 굵은 산수유 나무들이 무너진 절터의 경계를 따라 일문일가(一門一家)를 이루며 번성해 있었다. 깨진 한 점의 도자기와 같은 고달사. 역사의 중심에 완벽한 모습으로 존재했을 때도 고달사에는 산수유 꽃 문양이 화사했을까. 깨달음의 앞과 뒤에는 산수유 꽃이 제격이라는 듯이 무너져 천년을 보림(保任) 삼매에 잠긴 뒤에도 절터는 온통 산수유 꽃에 뒤덮인 채 봄 신명이 지펴 들썩이고 있었다. 공(空)과 색(色)의 조화가 저토록 아름다운 것일까. 샘물처럼 맑아진 청자빛 하늘에 샛노란 가지를 치켜올린 산수유 꽃이 눈부시다 못해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전성기에는 신륵사가 고달사의 입구에 해당할 만큼 사역이 광범했던 여주 고달사터(사적 제380호) 전경. 지난 98년 경기도박물관의 발굴조사에 의해 '고달사' 란 명문이 새겨진 기와 등 통일신라 말기부터 고려 초기 기록에 부합되는 각종 유구와 유물이 발굴되었다.



◇원감국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달사터 부도(국보 제4호). 규모나 조형미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부도로 손꼽힌다.



◇원감국사 부도탑 옥개석에 새겨져 있는 비천상(飛天像).



◇고달사터 중심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잘생겼다는 평을 듣는 석불대좌(보물 제8호).

장지현의 잊혀진 가람 탐험

여주 고달사 터



쌀과 도자기의 고장 여주. 여주에는 이 고장의 대명사인 영릉(英陵)과 신륵사가 자리하고 있지만, 실상 그 안쪽 깊숙한 곳에는 대표적 폐사지 가운데 하나인 고달사터가 옛 영화를 오롯이 간직하고 있다. 도시의 한복판을 남북으로 길게 흐르는 여강(驪江)은 이규보가 칭아가 시심(詩心)을 적시고, 나옹선사가 임종의 인연을 만들만큼 수려한 풍광으로 이 고장의 역사와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었다.

여주 IC에서 내려 명성황후 생가터에 잠시 들러 원혼을 달랜 후, 새로운 여주의 명소인 목아박물관에 들르니 1천2백여 년 전 천하의 명당을 찾아 떠돌다가 이 근처에 이르러 홀홀단신으로 엄청난 불사를 일으켰던 고달(高達)이란 처사가 생각난다. 그도 어쩌면 목아박물관을 일으킨 박천수 선생처럼 그저 미련하게 망치와 끌 하나만을 들고 숙명적인 싸움을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행치고개를 넘어 상교리 마을로 들어서자 벌써부터 산수유 꽃들이 요란하다. 봄에 저리 꽃심지가 환하면 가을엔 또 붉은 열매가 가지마다 타래를 지어 텅 빈 창공을 원색의 만다라로 물들게 하리라.

신라 경덕왕 23년(764)에 개산되어 도봉원 희양원과 함께 고려 3대 선원으로 꼽히기까지 변혁기의 역대 제왕들의 비호를 받으며 큼직한 법등(法燈)을 역사의 시공에 내걸었던 고달사가 언제 향화를 멈추었는지는 분명치가 않다. 그동안 농토로 변신한 채 숱한 역사의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고달사 터의 수수께끼는 1998년도부터 시작된 경기도박물관 등의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궁금증이 풀리기 시작하였다.

전성기에는 신륵사가 고달사의 입구에 해당할만큼 사역이 광범했고, 창건 무렵은 신라가 한강 유역을 장악했던 시기로, 남한강의 수로지 배후에 거대한 사원을 건축했다는 설도 있어 <봉은 본말사지>의 고달사가 혜목산(慧目山) 일대 1만2천평에 걸친 '사방 30리 절터'의 웅대한 가람이었다는 기록은 가감이 없는 것 같다. 고달사터는 폐사 이후에도 그 살림살이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물론 사지 주변을 에워싼 산수유 군락이 고달사터의 큰 자산이지만 절터 입구에 당간지주 인양 홀로 선 가래나무도 새로 편입시켜야할 고달사의 기본자산이다. 그러나 역시 고달사터 자산은 역사의 숱한 흥망성쇠에도 아랑곳 않고 대물림한 세월의 손때묻은 유형 무형의 삼보정재 아니겠는가.

지난번 발굴조사로 사지 중앙에 위용을 드러낸 석불대좌(보물 제8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잘생긴 것으로 그 위에 앉아 있던 불상의 모습은 또 어떠했을지 얼른 상상이 가지 않는다. 거기서 서북쪽으로 2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원종대사(869~958) 부도비(慧眞塔碑 보물제6호)의 귀부(龜趺)와 이수(螭首)는 아직도 강렬한 힘을 분출하며 세월의 중량을 이기지 못해 아예 드러누운 향나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남카로운 용의 발톱, 눈썹을 치켜올린 부엉이 눈, 콧등의 깊은 주름은 금강살타의 화신으로, 자신들의 부귀영달이나 빌던 지도층 인사들에게 일갈하던 원종대사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상기시켜 준다.

여기서 다시 산 능선 쪽으로 10여m 정도 걸음을 옮기면 머리마저 깨져 달아난채 비신도 이수도 잃어버린 작은 귀부 한기가 얌전하게 엎디어 반색을 하는데, 그 몸집이나 표정이 원종대사 부도비와 묘한 대비를 이루는 것이어서 폐사지 답사의 묘미를 만끽하게 한다.

멀리 솔 능선에 숨어있는 고달사터 부도(국보 제4호)와 원종대사 부도(보물 제7호)는 고달사 터 답사의 절정으로, 역사 탐험의 경험이 부족한 체력으로는 환각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것이기에 뒤로 접어놓고, 우선은 암갈색 유구와 유물들의 흡인력에 끌려 역사의 회랑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 '사방 30리 절터' 섬에 걸맞게 13개의 건물지와 탑지, 석등지, 장대석 및 축대 등이 그 흔적을 적나라하게 노출한 웅대한 대 가람의 밑그림을 본다. 마치 깨진 도자기 파편들이 토분(土粉)을 픽어 바르고 여기저기 봄 햇살 속에 나뒹구는 듯 하다. 누구의 발상이었을까. 절 터 위쪽으로 산수유나무 숲 속에 조그맣게 새로 터를 잡은 법당 마당에는 사지에서 나온 돌멩이와 기와조각, 분청사기 조각들을 엮어 맞춰 날가리 같은 돌탑들을 세워놓았다. 산수유 꽃무덤마냥 그 솜씨가 여간 예쁘지가 않다.

13개 건물지·탑지 등 흔적 곳곳에 '고달' '원종' '원감' 등 고승법향 가득

고달사 터는 굵직굵직하게 남은 성보 못지 않게 이 나라 국보급 고승들의 발자취가 즐비하다. 누구보다 먼저 만나야 하는 인물은 '고달'이란 석공이다. 고달사 석조물들은 모두 고달이 조성했다는데, 그는 가족들이 굶어죽는 것도 모르고 불사에 혼신을 받쳤다고 한다. 불사를 모두 끝내고는 스스로 머리를 깎고 출가, 훗날 도를 이루어 큰 스님이 되었으므로 고달사라 불렀다는 것이다.

사지 한가운데서 지금도 그 귀부가 용트림을 하는 원종대사 혜진탑비에 의하면 고달사는 구산선문 중 봉림산파의 선찰로 고달선원으로 불렸다. 경남 창원에서 봉림선문을 개창한 진경대사 심희(854~923)는 30여년 가까이 이 곳에 머물며 선풍을 펼치던 고승 원감국사 현욱(?~869)의 법통을 이어받은 제자였다. 진경대사는 다시 원종대사 찬유에게 법통을 잇게 하였는데, 원종대사는 고달선원의 제3대 정신적 지주로 고려 역대 왕들의 돈독한 귀의를 받으며 고달사를 전국 제일의 사찰로 가꾼 명실상부한 고달사의 중건주이다.

원종대사의 비범한 흔적은 혜진탑비 말고도 오른편 양지바른 산 골짜기에 유려하고 아름다운 부도로 남아 있다. 혜진탑비와 부도는 대사가 입멸한지 20여년이 지난 975년 경에 세워졌는데 하나같이 원종대사의 법력과 덕망이 응축된 진신사리와도 같은 모습이다. 혜진탑비 비신은 1915년 봄에 넘어져 8조각으로 깨진 것을 국립중앙박물관에 옮겨 보존하였다고 한다. 원종대사 부도는 할아버지뻘 되는 스승 원감국사 부도를 빼닮은 것으로 고려시대의 불교는 부도의 시대였음을 말해주는 상징적인 조형물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절 터 맨 위쪽 솔 능선에 자리 잡고있는 국보 4호인 고달사 터 부도를 친견할 때가 되었다. 이 부도는 원감국사 현욱의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장중함과 완벽한 조형미는 전국의 부도 가운데 으뜸자리에 해당되는 것이다. 산 아래 원종대사 부도와 같은 전형적인 팔각원당형으로 몸돌 중앙에 거북을 두고 구름에 노니는 네 마리 용을 두른 것까지 같지만 세련미와 균형미에서 흠어볼수록 차이가 느껴진다. 원감국사는 문성왕 2년(840)부터 혜목산에 주석, 당대 최고의 선법을 떨친 '혜목산 화상'으로 그가 입적하자 경문왕은 원감화상(圓鑑和尙)이란 시호를 내려 공적을 기렸다.

바야흐로 정처의 계절이다. 저마다 승천을 꿈꾸는 이 땅의 이무기 정치인들이 이 산 저 산 찾아다니며 큰스님들의 한두마디 덕담을 듣고 만용을 부려 논밭도 망치고, 가축도 망친다고 야단들이다. 그들이 한번쯤 고달사 터 산문에 든다면 원감, 원종 국사들께서는 무슨 법문을 내리실까. 길옆이며, 계곡 여기저기에 아무렇게나 드러누운 장대석들이 마냥 편안해 보인다.

〈시인 ·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다음은 원주 법천사터 편



몸은지구요, 마음은허공

초 대 합 니 다

1991년 8월
대광빌딩 임대 개원
불자님들의 수행의 길

때로는 눈물
때로는 환희

어두웁던 영혼 깨워
신천변 큰 법당으로 화하였습니다.
일체제불과 함께하는 준공법회에
모든 생명을 초대합니다.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장 혜 계
신 도 회 장 김 우 룡 합장
배 법 림

• 일시: 불기2546년 5월1일(수) 오전10시30분
• 장소: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www.hanmaum.org Tel.(053)767-3100

불사에 동참하실분은 다음 계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은행: 132-07-006435-8 김우룡(한마음선원)
• 농 협: 150016-51-030415 김우룡(한마음선원)